

서구인회 연수자료  
제 3 집

지방자치 세계속으로

# 2000 해외연수보고서

편저 : 장 현 일  
(서구의회 부의장)

■ 연수일정 : 2000. 8. 31 ~ 9. 10.

■ 연수국가 : 미 국, 캐 나 다

광주광역시 서구인회 해외연수단

## "광주 서구의회 연수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역사적으로 지방자치가 정착된 선진국의 제도와 의회 운영의 우수 사례들을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이를 통해 우리 실정에 알맞은 지방자치 제도로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를 통해 선진 정책을 의정에 반영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 수립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의원연수 내실화를 위해 연수주제를 사회복지, 환경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와 주의회, 시의회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제 연구와 함께 대상국가를 설정하였으며, 이동과정 시간을 최소화하여 그 시간을 연수에 활용하고자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등 2개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분야와 주제별 연수 특성상 4명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결정하였으며, 타 지방의회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 설들을 결정하여 그 곳에 대한 사전 정보자료를 분석하여 심도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 워크샵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민의회상 정립과 함께 공부하는 의원들이 되기 위해 선진의회와 각분야별 연수를 통해 정책 접목에 따른 다양한 방법론을 연구하고 그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알찬 해외연수를 위해 사전 연수 정보자료집을 발간하여 충분히 준비하여 현지에서 심도있는 연수를 전개하였습니다. 연수 보고서가 연수에 임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00. 10. 20.

편저자 서구의회 부의장 **장 현 일**

# 목 차

<b>I. 연수개요</b> .....	7
1. 연수목적 .....	7
2. 연수개황 .....	7
3. 연수일정 .....	8
<b>II. 연수국의 주요현황</b> .....	11
1. 미국 .....	11
2. 캐나다 .....	15
3. 한국·캐나다 관계현황 .....	22
4. 연수국의 방문도시정보 .....	24
5. 미국의 지방자치 .....	35
6. 미국의 사회복지 .....	45
7. 캐나다의 지방자치 .....	54
8. 캐나다의 지방재정 .....	63
9. 미국·캐나다 노인복지시설 .....	71
<b>III. 연수내용</b> .....	77
1. 레드후크 수질오염 조정시설센터(RHWPCP) .....	77
2. 국립보건연구원(NIH) .....	80
1) 국립보건연구원 .....	80
2) 국립보건연구원 문화예술센터(community center) .....	82
3) 미국의 의료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	82
3. 남북통일 음악제 .....	85
4. 링컨센터 .....	85
5. 링컨센터와 필랜트로피 .....	86
6. 오타와 시의회 .....	87
7. 미국의 지방자치(워싱턴시 중심) .....	88
<b>IV. 자료</b> .....	103
1. 미국의 대통령선거 .....	103
2. 연수 영문자료 .....	133

## 연 수 개 요

# 1. 연수개요

## 1. 연수목적

지방자치 선진국으로 미국과 캐나다를 선정하여 미국 뉴욕 레드후크 수질 오염 정화시설 센터(RHWPCA)의 정화시스템과 그 운용실태를 살펴보고, 미국의 의료 정책 및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주관하는 국립보건연구원(NIH)의 현황과 특히 부설 문화센터를 통한 커뮤니티 치료법(Community Therapy)과 공동체 문화예술 체험을 살펴보고자 했다.

지난 남북정상회담 기념 뉴욕민주평통이 주관하는 『남북통일음악제』(링컨센터 피서홀) 참석과 함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링컨센터의 시설과 그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시의회, 오타와 국회 의사당,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 자연 친화적 환경관광 정책을 펼치는 천섬을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연수 대상국을 미국, 캐나다 2개국으로 집중하여 심도있는 연수가 되도록 했다.

## 2. 연수개황

- 연수기간 : 2000. 8. 31 ~ 9. 8. (9일간)
- 연수지역
  - 미 국(뉴욕, 워싱턴)
  - 캐나다(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
- 연수의원 : 김동식 의장, 장현일 부의장, 정찬경 의원, 오광교 의원
- 주요방문기관
  - 미 국
    - 뉴욕 레드후크 수질오염 정화시설 센터(RHWPCA)
    - 국립보건연구원(NIH)
    - 문화예술센터
    - 링컨센터(피서홀)
  - 캐나다
    - 오타와 국회의사당
    - 오타와 시의회, 오타와 시청
    - 몬트리올 올림픽 경기장

### 3. 연수일정

2000. 8. 31 ~ 9. 8.

행 사 명		미동부 및 캐나다 연수
일 자	장 소	
제1일 (8.31)	서 울 L A N·Y	서울 출발 LA 도착 - 출발 N·Y도착 (전일정 이동 전용버스)
제2일 (9. 1)	나이아가라	버팔로, 나이아가라 폭포관광(캐나다 환경시설 참관)
제3일 (9. 2)	토론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토 시청, 토론토시의회방문, 토론토 꽃길참관</li> <li>• 천심관광(자연친화적 환경관광정책)</li> </ul>
제4일 (9. 3)	오타와 몬트리올	오타와 국회의사당, 오타와시청, 오타와시의회(오타와 시정보센터), 몬트리올 올림픽경기장
제5일 (9. 4)	뉴 욕	남북통일음악제 전야제 및 자매협의회 회의 참석 (기념식 및 기념품 전달식)
제6일 (9. 5)	뉴 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 통일 음악제(링컨센터 피서홀) 참석</li> <li>• 레드후크 수질오염정화시설센터(RHWPCA) 참관</li> </ul>
제7일 (9. 6)	워싱턴	국회의사당 방문(상원 회의 참관), 백악관, 링컨기념관
제8일 (9. 7)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립공원(롤레이 동굴) 방문</li> <li>• 국립보건연구원(NIH) - 사회복지 보건 정책 참관</li> </ul>
제9일 (9. 8)	뉴 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욕시 건축 폐기물 처리차량 현장</li> <li>• 뉴욕 시내 관광후 뉴욕출발(공항) (9. 9) 기내 2박</li> </ul>
제11일 (9.10)	서 울	서울도착

## 연수국의 주요현황

## II. 연수국의 주요현황

### 1. 미 국

#### (1) 개 요

수도 : 워싱턴 DC(Washington, D.C.)

인구 : 2억6,900만명(98)

면적 : 963만km<sup>2</sup>(한반도의 42배)

종교 : 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태교(2%)

#### (2) 역 사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이후 18세기초부터 종교와 정치적 자유를 찾는 청교도와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영국인들이 이주하여 대서양 북동부 일대에 정착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중엽,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재정난이 심각해 지자 식민지에 과다한 세금을 부과해 식민지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되어 1775년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발표하고 13개 식민지를 '주(州)'로 하는 미합중국을 탄생시켰다. 그후 1783년 '파리강화조약'으로 미국의 독립을 정식으로 공인 받아 미시시피 상 동쪽의 광대한 땅이 미국의 영토가 되었다.

노예제도 문제로 인해 남북전쟁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북부의 승리로 미합중국은 강력한 사본주의 국가로 세계의 대국이 되었다. 미국은 현재 본토의 48주에 알래스카 및 하와이를 합친 50주, 그리고 콜럼비아 특별구(수도 워싱턴)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이다. 이외에도 해외의 준주와 자치령으로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태평양의 여러 섬 및 파나마 운하지대 등이 있다.

#### (3) 지 리

미국은 지역적으로 동부, 남부, 중서부, 서부로 나누어 진다. 북부 캐나다 국경에서 남부의 멕시코 만 연안까지 약 200km, 동부의 대서양 연안에서 서부의 태평양 연안까지 약 4000km이다. 미국은 광대한 나라이므로 지형에도 변화가 많다.

면적은 한반도의 43배나 되는 937만 2614km<sup>2</sup>이고, 유럽의 4분의 3에 이른다. 숲이 우기진 뉴잉글랜드 지방, 모래민시가 자욱한 네바다 사막, 상하의 나라 플로리다, 얼음으로 감싸인 알래스카 등 변화부쟁한 땅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는 거대한 나라이다.

#### (4) 기 후

미 본토는 북위 25°에서 49°에 걸쳐 있고,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후도 열대 습윤지대에서 냉대 건조지대에 걸쳐 차이가 아주 심하다. 알래스카 북부는 북극권에 속해 있고 하와이는 온난한 기후이다. 본토의 기후는 서경 100° 부근을 경계로 하여 습윤한 동부와 건조한 서부로 크게 나누어 진다. 태평양 연안에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지중해성 기후로 1년 내내 온난하고, 겨울에 비가 많은 대신 여름에 건조하다.

기온은 20°C 전후여서 적당하다. 대서양 연안의 북동부에 있는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은 습윤한 대륙성 기후에 속한다. 여름 날씨는 섭씨 40°C가 넘는 상당히 덥고, 겨울은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 한국보다 추운 편이다.

#### (5) 사회문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생활 수준을 과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비교적 모든 생활면에서 안정된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다인종, 다민족에서 야기되는 심한 인종차별의 갈등과 자본주의 사회에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빈부계층 사이의 대립이 늘어 나고 있다. 미국의 인종은 백인이 약 83%, 흑인이 12%, 인디언과 동양계가 5%를 차지하고 있는데 흑인에 대한 원초적인 차별과 지방의 보호구역에 갇히게 된 인디언 등 미국의 인종문제는 심각하다. 종교는 건국의 중심이 된 프로테스탄트가 약 150종파로 인구의 32%를 믿고, 카톨릭이 22%를 차지하며, 그 외에 유대교나 그리스정교 등의 독특한 종교가 있다.

#### (6) 시 차

미국은 4개의 시간대가 있는데 동쪽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빨라지고, 서쪽의 경우에는 느려진다. 동부(뉴욕)은 14시간, 중부(시카고)는 15시간, 중부(덴버)는 16시간, 서부(LA)는 17시간, 하와이는 19시간이 늦다. 그리고 미국은 4월 첫째 일요일부터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시차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 (7) 구조적 특징

연방공화제로 3권 분립주의고, 대통령이 행정 및 군의 최고책임자이며, 각 주는 연방정부와는 독립된 헌법이 있고 독립국에 가까운 지방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세계 최고의 경제력을 가지고 농림수산업, 항공업에 있어 세계 제일의 다품목 생산국이다. 세계의 인종 전시장이라고 할만큼 다인종, 다민족이 섞여 있는 복수민족국가이고, 백인이 88% 종교는 대다수 기독교이며, 교육은 주에 위임되어 있다.

#### (8) 통 화

미국의 통화 단위는 달러(\$)와 센트(¢)로 \$1는 100¢이다. 우리나라 원화와의 환율은 1\$=1113.40원(2000년 6월기준)인데, 변동환율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달러의 가격은 매일 변한다. 통화는 경화(Coin)과 지폐(Bill)로 구분이 되는데 기액의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여행지 수표(T/C-Traveler Check)이 있다.

#### (9) 전 압

전압이 지역에 따라 110~115V로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장치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기구가 손상될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플러그 방식이 한국과 다르다.

#### (10) 전 화

공중전화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25,10,5¢ 세 종류이며, 공항 등지에는 신용카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국제전화 사용도 가능하다. 사용하는 방법은 수화기를 들고 동전 25¢를 넣고 다이얼을 누르면 자동 응답기가 최소 금액을 요구한다. 동전을 한 개씩 “Thank you” 소리가 날때까지 투입한다. 전화카드를 사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 - 한국으로의 전화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는 다일얼링 순서는

“0또는9번(외부전화 접속, 호텔마다 확인요)+01+82+2(0을 뺀 지역번호)+전화번호”

공항 또는 시내의 국제전화기 가능한 공중전화를 이용할 때

“011+82(한국 국가번호)+2(0을 뺀 지역번호)+전화번호.”

ex) 서울 725-6000으로 전화할 경우 : 011+82+2+725-6000

한국통신교환원서비스

미국 (AT&T) 1-800-822-8256, 미국 (MCI) 1-800-288-7358

미국 (SPRINT) 1-800-326-0082, 미국 (IDB) 1-800-889-2329

미국 (PGE) 1-800-832-8320

(11) 우 편

미국의 우체통은 파란색이다. 편지넣는 곳이 국내용과 국외용으로 나뉘어 있다.

한국까지 소요일수는 항공편이 약 6일이고, 선편이 1개월이다. 요금은 항공우편  
요금이 약 60¢씩 한다.

- 체험물가

생수 한병 \$1~2, 맥주 한캔 1.5~2

(12) 축 제

1월 01일 신년 (New Year's Day)

1월 20일(1월 제3월요일) Martin Luther King Day

2월 17일(2월 제3월요일) Presidents' Day

5월 26일(5월 마지막월요일) 현충일(Memorial Day)

7월 04일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9월 01일(9월 제1월요일) 노동절(Labor Day)

10월 13일(10월 제2월요일) 콜럼버스의 날(Columbus Day)

11월 11일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

11월 27일(11월 제4목요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2월 25일 성탄절(Christmas)

(13) 현지연락처

주미한국총영사관(L.A) 213-385-9300

- (워싱턴) 202-939-5600

- (하와이) 808-595-6109

- (뉴 욕) 212-752-1700

한국무역진흥공사(L.A) 213-954-9500

- (워싱턴) 202-333-2040

- (뉴 욕) 212-826-0900

대한항공(무료전화) 1-800-438-5000

아시아나(무료전화) 1-800-227-4262

## 2. 캐나다

### (1) 국가 개요

- 국 명 : 캐나다(Canada, 마을이라는 원주민어에서 유래)
- 면 적 : 9,970,610km<sup>2</sup>(한반도의 약 45배)
- 기 후
  - 대부분 한냉지역
  - 미국 접경 남부지역은 온대지역으로 캐나다 전체인구의 80%가 이 지역에 거주
  - 태평양 연안은 다습 온화
  - 태평양 연안은 다습 온화
  - 서부산악 및 내륙 평원은 대륙성 기후, 기온차 극심
- 인 구 : 2,925만명('94)
- 수 도 : 오타와(Ottawa, 인구 약 30만, 인근지역 포함 약 90만)
- 주요도시 : Toronto, Montreal, Vancouver, Calgary, Edmonton, Quebec(City)
- 주요민족
  - 영국계(28%), 불란서계(23%), 독일계(3.4%), 이태리계(2.8%), 중국계(2.2%), 토착원주민(1.7%), 기타(33.9%),
  - 한국계(0.25%)
- 주요언어
  - 영어, 불어(연방정부 공용어), 영어 사용자 61.5%, 불어사용자 24.3%, 기타 14.2%
- 종 교 : 카톨릭(45.7%), 신교(36.2%), 기타(회랍정교, 유태계등) 18.1%
- 교 육 : 의무교육 12년
- 화폐단위 : Dollar(캐나다 불)
  - (95. 9월기준 미화 1불 = 캐나다화 1.35불)
- 연방구상 : 10개주(Province) 및 2개의 특별지역(Territory)으로 구성
  - 주 : 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
  - 특별지역 : Yukon Territory, The Northwest Territories
  - ※ 2개의 특별지역은 연방정부의 직속 관할하에 있음
- 영 해 : 12해리, 성제수역 200해리
- 국 방 : 지원제, 현역 6만9천명, 예비군 2만9천명

## ○ 주요언론

- 신 문 : The Globe and Mail(유일의 전국지 33만부)  
The Toronto Star(지방지 54만부)  
The Financial Post(경제지 15만부)  
The Toronto sun(지방지 30만부)  
The Gazette(몬트리올 지방지 25만부)  
The Ottawa Citizen(오타와 지방지 19만부)
- 잡 지 : Maclean's(유일의 시사주간지)
- T V : CBC, CTV, Global - TV 등
- 라디오 : CBC, CKO 등

## (2) 캐나다의 국가적 특징

### ○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연자원

- 총면적 997만km<sup>2</sup>로서 세계 제2위이며, 한반도의 약 45배임
-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아연, 우라늄, 신문용지 수출은 세계 제1위, 니켈, 유황, 밀, 보리 수출은 세계 제2위임.

### ○ 다양성속의 조화를 추구하는 복합민족사회

- 융합이 아닌 조화를 지향하는 복합민족의 이민사회이며, 이점에서 미국이 현란한 Oil painting이라면 캐나다는 Mosaic painting으로 비유될 수 있음.  
각 민족의 고유문화를 적극 보호, 지원하며, 60이개에 이르는 캐나다내 한글 학교도 대부분 주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음.

### ○ 최선진 과학기술과 최고의 사회복지 수준

- 통신, 항공, 의학, 환경, 전자부문에 최선진 기술을 자랑하고 있으며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함.
- 무선통신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잿드기의 상용화, 우주선용 로봇팔 개발도 캐나다인에 의한 것임.

### ○ 자유, 평화주의자로서의 확고한 국제적 신망

- 미국과의 관계 소원을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월남진 참전에 반대
- 자유진영으로서는 최초로 중국을 승인
- 유엔 창설이후 모든 분쟁지역에 유엔 평화 유지군 파견(현재 구유고, 아이티, 중동 등지에 약 3,200명 파병중)

### (3) 주요약사

- 1497 영국선원이 Newfoundland 최초 발견
- 1553 불란서인 상륙, 영불세력 분쟁시작
- 1663 불란서 류이 14세 불란서 식민지 선언
- 1756~63 영불간 7년 전쟁, 영국 승리  
(파리조약으로 불란서가 영국에 식민지 양도)
- 1791 영국 정부 '캐나다' 호칭 인정
- 1837 캐나다 지역에 지방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정정 격화
- 1867 영국 의회에서 '영령 북미조례(British North America Act)' 통과  
캐나다 연방(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 성립
- 1931 영연방 일원으로 독립  
(사실상 헌법인 '영령 북미조례'의 개정권은 영국이 계속 보유)
- 1947 Canadian Citizenship Act 제정, 캐나다인을 영국 국민이 아닌 '캐나다 시민'으로 규정(영연방 최초의 시민권 규정)
- 1965 독자적 국기제정
- 1969 영어 및 불어를 공용어로 채택
- 1982 캐나다 헌법(Canada Act) 선포
- 1989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발효
- 1990 Meech Lake Accord 헌법개정안 비준 실패, 폐기
- 1992 Charlottetown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부결
- 1993.11 자유당 정부집권(크레티앙수상 취임)
- 1994. 1 NAFTA 협정 발효
- 1995.10.30 퀘벡주 분리 주민투표실시 예정

### (4) 정 치

#### 가. 정치제도

- 국가성립 : 1867. 7. 1. 4개주가 캐나다 연방(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 구성
- 국 정 일 : 7. 1. (Canada Day)
- 국가형태 : 의회 민주주의 연방제
  - 국 체 : 입헌군주국
  - 정 체 : 의원내각제(양원제)
- 국가원수 : 엘리자베스 11세(총독이 권한 대행)
  - 총독(Governor General) : 로메오 르블랑(Romeo Leblanc)

○ 내 각

- 각료는 주로 하원의원중에서 임명되나 상원의원 중에서도 일부 임명 가능
- 각주에서 최소한 1명 기용이 관례
- 4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1회 전체 국무회의 개최(사회정책위원회, 경제정책위원회, 재정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 수상의 각료 23명

○ 의 회 : 의회 소집권은 사실상 수상이 행사

(1) 하원

- 인구비례에 의한 보통선거, 임기는 5년
- 의석수 295

(2) 상원

- 공직경력자 등 원로급 인사를 대상으로 수상의 추천에 의해 여왕이 임명, 75세까지 재임 가능
- 30세 이상, \$4,000이상의 재산 소유자
- 의석수 104

(3) 양원의 관계

- 정부제출 법안은 하원에 먼저 공공 지출과 무관한 의원재출 법안은 상원에 먼저 제출되는 것이 관례
- 상원의 기능은 연방국가로서 각주, 소수민족, 종교적, 문화적 소수민을 보호하는데 있음.

○ 정 당

- 제2당은 공식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 지도자는 수상과 같은 액수의 봉급을 받음.
- 12석이상의 정당은 연구활동을 위한 공공자금 지원을 받으며, 그 지도자는 일반의원보다 고액의 봉급을 받음.
- 정당별 의석분포

구 분	하 원	상 원
자 유 당	177	50
퀘벡블릭당	53	0
신 민주 당	9	0
개 혁 당	52	0
진보보수당	2	51
무 소 속	2	3
계	295	104

- 정당별 정치성향

(1) 자유당

- 보수정당이나 자유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전통적으로 동부 도시층에 기반이 강함. 소수민족 권익확장, 연방정부 권한 강화를 지향
- '64~79, '80~84, '93~현재 집권

(2) 퀘벡블럭당

- 퀘벡주에 기반을 둔 퀘벡당(Parti Quebecois)의 연방차원 자매정당
- '93. 10총선시 제1야당으로 부상하였으며 퀘벡분리 독립을 주목적으로 활동

(3) 개혁당

-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에 불만과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부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영어권 캐나다의 이익 대변을 표방하면서 '87년 창당
- 자유당, 식민당, 진보보수당 등 기존 정치 세력에 대한 실망감에 편승, 지지기반 점차 확대

(4) 신민주당

- 사회주의적 정당으로 서부에 기반을 두고 있음.

(5) 진보보수당

- 진형적인 보수정당으로 주로 서부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며, '84. '88년 총선시 동부지역에서 압승, 연방정당으로서 지위가 확고해졌으나 '93년 총선시 참패, 군소정당으로 전락

나. 정치정세

○ 최근정세

- '93. 10. 연방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자유당이 9년 집권의 진보보수당을 누르고 압승
- 특정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정당(퀘벡블럭, 개혁당)이 급부상한 반면, 진보보수당은 불과 2석의 군소정당으로 몰락
- 자유당정부는 재정적자 감축과 경제성장위주 정책실시 및 정부의 도덕성 제고로 지지기반 확산
  - '93. 10 총선 당시 41%에서 '95. 8월총선 56%
  - 크레티앙 수상 자신도 강직, 정립되고 가정적인 이미지로 70% 수준의 높은 인기도 유지
- 퀘벡분리 독립문제 대처가 크레티앙 정부의 향후 최대 과제

○ 퀘벡주 분리·독립문제

- '80. 5. 퀘벡주의 '주권인합'형태 독립안 주민투표 부결(찬성 40%, 반대 60%)
- '94. 9. 퀘벡당 집권, Parizeau 신임 퀘벡주 수상은 '95년 봄 퀘벡주 독립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공약
- Parizeau 주수상은 40%를 약간 상회하는 퀘벡주 단순독립 지지여론에 커다란 변화가 없자 '95. 6월 단순 독립안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계획을 변경하여 '정치·경제연합과 연계한 독립안'에 대한 주민투표를 '95. 10. 30. 실시 예정
- 캐나다와의 정치·경제 연합을 전제로 한 퀘벡주 독립안에 대한 지지도는 9월말 현재 반대여론 다소 우세(찬성 46.8%, 반대 53.2%)

(5) 경 제

가. 경제의 특징

○ 풍부한 자연자원

- 산림, 광물, 수력 등 자원공급국으로서의 위치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아연, 우라늄 생산은 세계1위
  - 니켈, 유황, 식면, 카드뮴은 세계2위
  - 알루미늄, 금, 은, 동, 흑연, 티타늄 등은 세계5위권

○ 고도의 개방경제체제 유지

- 국내시장 협소, 높은 대외의존도('94년 교역량은 3,116억미불로서 GDP의 56%)
- 제조업, 광업, 석유, 가스산업의 약 40%이상이 외국자본

○ 높은 대미 의존도

- 총교역량의 78%가 미국에 의존
- 국민의 80% 이상이 미국 집경 5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동서간의 교류보다는 월경 교류가 더 활발함.

○ 일부 부문에서 세계첨단수준의 과학기술 보유

- 통신, 생명공학, 환경, 원자력, 우주항공, 컴퓨터 Software 분야 등

나. 최근 경제사정

○ '93년 이래 고도성장세 시현

- '94년 4.6% 실질성장(G-7 국가중 최고 성장세)
- '95년에는 2.3% 선으로 다소 부진예상(미국 경제위축, 금리인상 등 요인)

○ 수출산업의 호조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

- '94년 : 수출 1,614억미불, 수입 1,502억미불(무역흑자 112억미불)

-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누적어 국가 경제의 큰 부담요인의 작용
  - '95.3월 현재 부채누계는 4,045억미불로서 GDP의 73.2% 수준(연방부채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년 예산의 1/3이상 지출)
  - 국방비 삭감, 정부기구 및 인원감축,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긴축정책 강화 ('95~97년간 연방정부공무원 45,000명 감원계획)
- '91년 이후 고실업현상 지속('94년 10.4%)
  - 소비자 지출 심리위축으로 국내수요 계속 부진
- 대외교역 다변화 적극 추진
  - 내미 무역의존도(약 78%) 축소를 위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구지역과의 경제 및 무역관계 강화 노력
- 지역경제통합에 적극 참여
  - NAFTA 확대 추진
  - 범미주 자유무역지대 결성 지지
  - APEC 무역투자 자유화 주도
- 퀘벡분리 referendum 실시('95.10.30)와 관련 국내 경제 동요 가능성
  - 외국인 투자자가 현재 연방 및 주정부 부채의 40% 이상 인수
  - 퀘벡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외국 자본 이탈, 카불 평가절하 및 금리 대폭 상승 가능성
- 주요 경제지표

구 분	'92	'93	'94
인구(단위:천명)	28,542	28,941	29,248
실질 GDP 증가율(%)	0.8	2.2	4.6
소비자 물가지수(%)	1.5	1.8	0.2
실업율(%)	11.3	11.2	10.4
경상수지(C\$ 십억)	-25.9	-28.7	-22.3
수출(C\$ 십억)	155	181	218
수입(C\$ 십억)	149	172	203

### 3. 한국·캐나다 관계현황

#### (1) 한국·캐나다 외교관계

##### ○ 연 혁

- 49. 4. 아국 승인
- 63. 1.14 국교 수립
- 65. 8.23 주캐나다 초대 상주대사(백선엽) 부임
- 70. 2.12 주밴쿠버 총영사관 개설
- 74. 1.17 주한 캐나다 초대 상주대사(Stiles)부임
- 75. 8.18 주토론토 총영사관 개설
- 80. 8.15 주몬트리올 총영사관 개설
- 81. 9.27~29 Trudeau 수상 공식 방한
- 82. 8.28~31 전두환 대통령 캐나다 공식방문
- 86. 5.12~15 Mulroney수상 공식 방한
- 91. 7. 3~ 6 노태우 대통령 캐나다 공식 방문
- 94. 4.21~25 Hnatyshyn 총독 국빈 방한

#### (2) 캐나다의 대한반도 정책

##### 가. 대한정책 기조

- 아시아·태평양권 진출 전략상 한국을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인식
  - 대미 무역의존도(약 80%)를 줄이기 위한 대외관계 다변화 노력의 일환
  -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잠재력에 주목
  - 한국·캐나다 특별동반자 관계 구상의 기초
  - 각종 국제무대에서 한국입장 적극 대변
- 평화통일정책 및 북한 핵문제에 대한 아국입장 적극지지
  - '95. 3월 KEDO 창설식후 동기구 가입 및 150만달러 기여 결정
  - 캐나다·북한 관계 발전을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연계
  - '95. 6월 Halifax G-7 정상회담시 의장국으로서 남북대화 재개 촉구
- 경제·통상관계 강화에 우선순위 부여
  - UR 타결 및 NAFTA 출범이후 대아시아 시장 진출
  - 농산물, 정보통신, 원자력, 환경분야에서의 진출에 1차적 관심
  - 캐나다의 첨단기술과 한국의 산업화 능력의 접목에 기대

- 비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 발전에도 열의
  -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문제 협회에 주도적 참여 희망
    - 우리측 구상인 동북아 다자안보대화(NEASED)참여 적극 희망
    - '90. 7 Clark 외무장관,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 제안
  - 군사, 문화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희망
    - 방산분야 협력 희망
  - 다변화된 협의체제 발전에 적극적

나. 대북한 정책

- 북한을 승인치 않고 있으나, 민간교역 및 왕래는 허용
  - '88. 10 캐나다는 외교관의 북한외교관 접촉 허용
- '94년도 캐나다·북한 교역은 63만8천카불(약47만미불)로서 극히 미미한 수준

(3) 한국·캐나다 경제관계

가. 교역규모

- 한국은 캐나다의 제7위 교역상대국(수출 4위, 수입 10위)이며, 캐나다는 한국의 제13위 교역상대국(수출 14위, 수입8위)

※ 대캐나다 연도별 무역수지

(단위 : US\$백만)

연도	수출	교역규모	교역규모	무역수지
1990	1,731	1,465	3,196	266
1991	1,673	1,907	3,580	-234
1992	1,608	1,574	3,182	34
1993	1,374	1,695	3,069	-321
1994	1,390	2,005	3,395	-615

나. 교역품목(아국 기준)

- 수출품목 : 전자·전기제품, 심유류, 자동차, 철강제품 등
- 수입품목 : 화공제품, 농산물, 광산물, 일반기계류 등

## 4. 연수국의 방문도시 정보

### 1. 미 국

#### 1. 뉴 욕

뉴욕 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대서양의 허드슨 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미 합중국 최대의 도시이다. 세계의 정치, 문화, 경제, 예술의 중심지인 뉴욕은 약 8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이다. 세계 정치의 중심인 유엔본부가 있고 경제의 중심인 월스트리트 또한 다운타운에 있기도 하다. 맨하탄은 1524년 이탈리아의 항해사 베리자노의 발견으로 시작하여 1626년 네델란드 동인회사가 맨하탄 섬에 무역 거점을 두었고, 1825년에는 이리어 운하가 개통되면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루어 19세기 후반기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을 하였다.

뉴욕시는 다섯 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맨하탄섬, 브룩클린, 브롱스, 퀸스,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구를 합하여 뉴욕시라고 한다. 뉴욕시의 관광지역은 마천루가 우뚝 솟아있는 맨하탄 섬이 된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아래와 같다.

##### - 센트럴 공원

도시 속에 있는 인공공원으로 1850년에 “윌리엄 브라이언트”의 제안으로 만들어져서 1876년 시민에게 공개가 되었으며, 뉴욕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사랑받고 있다. 이곳의 조경을 한 사람의 이름은 “프레드릭 올스데드”로서 몬트리올의 몸-아르알 공원을 설계한 사람과 같다.

##### - 워싱턴 광장

1895년 “스탠포드 화이트”에 의해 건축된 대리석 아치는 워싱턴 대통령의 100주년 기념비로서 이 일대의 1700년대에는 공동묘지로 사용이 되었고, 공개교수형 장소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다. 1826년 이 일대를 매립해서 현재의 공원으로 만들었다.

##### - 자유의 여신상

미국의 100주년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보내준 것으로 1871년에 “프레드릭 바르톨디”에 의하여 만들어 졌으며, 모델의 여인은 바로 바르톨디의 어머니를 조각하였다고 한다.

## 뉴욕시(New York City)

### N.Y CITY 5개 행정구 상주인구 와 시의원

BROOKLYN 부룩클린	2,358,000명	시의원 51명 봉급 연봉 \$75,000.00
QUEENS 퀸스	1,967,000명	행사권
MANHATAN 맨하튼	1,488,000명	시 장 50%
BRONK 브롱스	1,172,000명	시의회 50%
STATEN ISLAND 스테이튼 아일랜드	390,000명	

### N.Y CITY 인종

백인 52.3 %, 흑인 28.7 %, 동양인 7 %, 원주민인디안 0.4 %, 기타 11 %

N.Y CITY는 현재 3,500만 비행기가 연간 착륙

연간 2,500만명에 관광객이 550만(관광객)

하루 이동인구가 약 250만명

음식점 17,000개, 신문사 109개, 잡지사 183개, 출판소 90개, TV방송국 13개,  
라디오방송국 117개, 병원 100개

## 뉴저지(New Jersey)

### 1. 뉴저지는 어떤곳

뉴저지주는 면적이 7만7천8백평방마일, 미터법으로는 약 20만 평방킬로미터로  
써, 미국에서 46번째 크기인 작은 주이다.

원래 Lenne-Lenape인디언들이 살던 지역으로 초기에는 화란, 스웨덴, 필란드  
인들이 이주해와 함께 평화적으로 살고 있었으며, 뉴욕과 함께 화란의 식민령으로  
되었다가 1664년 3월 12일 영국왕 찰스 2세가 영국령으로 선포, 동생인 제임스(요  
크 공작)에게 하사되었다. 1664년 5월 영국은 4대의 군함을 보내 화란에게 영국령  
임을 통고, 접수했다.

한편 영국에서는 요크공작이 절친한 친구 조지 카터렛 경에게 현재의 뉴저지땅

을 선불했으며, 카터렛정은 영국 해협 외 작은섬 Island of Jersey에서 이름을 따와 New Jersey로 작명함으로써 오늘날의 주명을 갖게된 것이다.

주의 모토는 자유와 번영이며 건국 13주의 하나로 1787년 12월 18일 떠연방에 가입했다. 주의 수도는 트렌톤이며 이곳은 독립전쟁때 치른 치열한 전투로 “트렌톤의 전쟁”이란 명성을 얻은 유명한 사적지가 있는 곳이다.

뉴저지 곳곳에는 크고 작은 1백여 차례에 걸친 독립전쟁의 전투를 치른 사적지가 많다. 주를 상징하는 새는 이스턴 골드핀치 주의 꽃은 피플바이얼렛, 주의 나무는 붉은 참나무이다. 뉴저지는 농작과 산업, 좋은 학교들과 비즈니스를 함께 갖춘 다양성있는 땅이다. 이곳에 정착해 사는 한인들의 수도 어느덧 10만을 넘는 규모로 늘어났다. 자영 비즈니스를 하는 교포들, 유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의사 및 간호원들, 농장 근로자들, 국제결혼한 교포들, 그와 같이 교포사회도 뉴저지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으로 이민 생활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뉴저지 처럼이나 다양성을 지닌 곳도 드물다. 파일스톤강의 풍차, 패색익의 공장들, 펜리세이드의 화려한 경관, 서머세트의 늘씬한 구릉들, 싸우스 지지의 들뜬에서 자라는 싱싱한 야채들, 그린기하면 히드슨강을 가로지르는 철도망이 얽혀져 있고, 벌링톤 소나무 숲에서 자라는 난초들, 컴벌랜드에서 생산되는 수백만병의 맥주들, 헌터돈 언덕의 치킨, 그리고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로 유명한 아틀랜틱 시티, 그래서 뉴저지를 한마디로 <다양성의 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가든 스테이트> 라는 별명이 있기는 하지만, 가든 스테이트란 별명은 뉴저지의 중앙을 차지하는 만모스, 미들섹스, 미서, 벌링턴, 캠든, 그러스터, 새일랩, 컴벌랜드 등 카운티에서 감자, 토마토, 야채, 과일 등이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다는데서 유래한다.

뉴저지의 해는 뉴욕의 그늘 위로 치솟아서 하루종일 비치다가 저녁에는 필라델피아의 그늘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형상으로 매일 뜨고 진다. 이 거대한 두 도시를 붙잡고 뉴저지는 거대한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독립당시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과학자인 벤지민 프랭클린은 뉴저지를 가리켜 “양쪽 끝에 꼭지를 달아놓은 술통”과 같다고 말한적이 있다. 양쪽의 두도시가 뉴저지의 술을 다 빨아먹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사실상 뉴욕시와 인접해 있는 버겐 카운티 및 필라델피아와 인접해 있는 캠든 카운티는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거숙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두 도시의 침실역할을 하고 있다. 뉴저지를 가든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 동의하는 사람들은 주내 8천개에 달하는 농장에서 수억불의 연간소득이 이루어지고 에이커당 순익에 있어서는 미국 제일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들겠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뉴저지가 미국 제 7위의 산업주로서

귀금속으로부터 제분업, 맥주 제조업, 우주 산업, 첨단산업, 화장품 제조업, 약품산업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산업기지임을 주장하고 있다.

뉴저지주에 거주하는 인종들의 정착 역사를 돌아보면 그 역시 재미있는 현상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처음 뉴저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홀랜드와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인들이 있었는데 1664년 영국이 이 지역을 정복, 그들외에 영국인, 아이리쉬, 스코틀랜드인들이 추가됐고 독립직전에 독일인들이 몰려와 헌터돈의 농장과 세일랙카운티의 유리공장, 패세익 카운티의 광산 등에 인부로 들어갔다. 남북전쟁 이후에 들어온 민족은 이탈리아들로 그들은 남부 저지의 해먼튼의 포도농장을 건설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유럽 각지로부터 피곤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이민선을 타고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 라투아니아 그리고 스칸디나비아반도로부터 들어와 <벨팅삿> 을 이루었다. 이후 3세기동안 뉴저지는 그와같은 민족들로 융합된 커뮤니티로서 발전을 거듭했고 그들 다음으로 푸에코리칸과 흑인들의 유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또한 1970년대 이후로는 한인들을 비롯한 동양계의 괄목할만한 증가가 이루어졌다.

뉴저지는 행정적으로 21개 카운티로 나뉘어 있지만 이를 지리적으로 구분하면 3개지역으로 크게 나뉘어, 북쪽의 산악지역, 중부의 구릉과 골짜기, 남부의 해안 및 평원지역으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산악지대에는 매장량이 풍부한 철광들이 많고 그 사이에 급류를 이루는 하천이 모리스 카운티와 워린, 석센스, 헌터돈 카운티등을 굽어 흐르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때문에 철도산업도 따라서 발달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지역에는 또한 호수들이 많고 주택이 많이 들어서서 휴가를 즐기려는 별장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뉴저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앙부 15마일 폭에 달하는 좁은 지대는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연결하는 북도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 시티 벨트라고 부르기도하는 이지역에는 아틀랜틱시티를 제외한 모든 도시들이 연도에 몰려 있는게 또한 특징이기도 한다. 뉴저지의 심장부인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쪽으로 통근하는 커뮤지터족들이 많으며, 이북도는 하이웨이와 철도로 곧장 연결되고 해안의 도크나 피어까지 손이 닿아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는 교리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부뉴저지의 해안 지역인데 이곳에는 1백27마일에 달하는 가느다랗고 긴 비치가 샌디 후크서부터 케이프 메이까지 뻗어 있어 과도와 모래가 함께

있는 해변 공원의 장관을 보이주고 있다. 해변 휴양지로서의 구실도 특특히 하는 이 지역에는 또한 농장이 곧 연결되어 각종 농산물과 치킨의 생산지로도 유명하다.

이와함께 공장과 농장이 함께 있고 오래된것과 새 것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곳, 뉴저지의 정신은 바로 그 다양성에 있다.

## 2. 보스톤

보스톤은 매사추세츠의 수도이며,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다. 또한 경제, 정치,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보스톤의 인구는 57만 명이며, 도시의 크기는 51평방 마일의 도시이다. 메트로 폴리탄 지역에는 323만 명이 거주하는 곳으로 미국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에 속한다. 보스톤하면 우선 생각이 되는 것이 대학가이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들이 모여서 있으며, 대학 외에 다른 많은 교육기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는 좋은 도시이다. 이곳 보스톤은 1630년에 미국에서는 최초로 형성어진 도시이다.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으며, 1822년에 이곳은 시로 승격이 되어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가장 빠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가 말할 때 보스톤은 “자유의 발상지(Cradle of Liber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이 바로 독립전쟁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다.(1775-1783)

### - 보스톤 커먼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으로 약 45에이커의 부지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며, 존 윈드롭에 의해 세워졌으며, 처음에는 군인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었으며, 역시 “쇼”를 방목하여 기르는 장소로 사용이 되었다. 존 윈드롭은 보스톤을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장소이며, 근처 직장인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다. 보스톤 커먼이란 이름은 시민들의 집회와 연설의 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졌다.

### - 주의사당

보스톤 커먼의 북쪽에 자리잡은 의사당은 금빛의 독특한 거스올 1798년에 세워졌다. 의사당을 설계한 사람은 “찰스 블루핀치”이며 의사당의 건물 안에는 플리머스 식민사의 중요 문서들이 있다.

### -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1861년 세워진 이래 미국의 공과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으로 학생의 숫자는 10,000여 명이었지만 너무 남학생만 있어서 학교의 분위기가 험악해서 현재는 문과생도 받아들여서 학생의 수가 15,000명 정도라고 한다. 학교의 이름은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이며 보통 M.I.T라고 한다.

1816년에 보스톤에 세워졌던 이 학교는 1916년에 지금의 캠브릿지로 이전을 했다.

#### - 하버드 대학

1636년에 세워진 미국의 최초의 대학으로 12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하여서 현재는 15,0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미국 최고의 대학이며, 케네디를 비롯한 6명의 대통령과 33명의 노벨상의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며, 각 개의 뛰어난 인물들을 배출했다. 약 400여동의 건물과 90개의 도서관과 9개의 박물관을 자체에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IVY리그의 대학을 8개교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브라운 대학, 프린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 펜실바니아 대학, 다트 마우스 대학 등을 말한다.

### 3. 워싱턴 DC

미국의 3번째 수도로서 연방직할시이며, 콜롬비아 특별구라는 행정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1800년에 당시의 수도 필라델피아로부터 이전한 이래 미합중국 및 세계의 정치, 외교의 중심지로서 오늘에 이르렀고, 인구는 약 65만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다.

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흑인이 75%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무원과 법률가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의 참모장교였던 랑팡의 설계로 이루어진 도시인데 버지니아의 땅 일부를 포함시켜 100평방 마일로 만들어진 도시이다.

현재는 63평방 마일로 이루어진 불규칙한 도시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주에서 땅을 돌려달라고 하여 되돌려 주었기 때문이다. 정연한 도시 계획에 따라 건설된 거리와 풍부한 녹지 속의 관장, 박물관, 기념관 등의 건물이 어우러져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 - 국회의사당

건물의 길이가 225m, 폭이 105m이며, 높이는 94m이다. 국회의사당은 “월리엄 도슨튼”에 의해 설계가 되었으며, 1793년 조지 워싱턴이 직접 주춧돌을 세웠고, 1800년대 11월 21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이주를 했다. 상원과 하원의 숫자는 100명과 435명의 의원들이 있으며, 국회의 직원만도 7500명이 된다.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면 1855년에 이태리로부터 이민온 콘스타치노 부라미드에 의해 그림이 만들어졌다. 가운데 그림은 워싱턴을 신으로 모시는 그림인 워싱턴 찬미와 1492~1903년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부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할 때까지의 그림이 있으며, 가장 아래의 자리에는 미국의 중요한 장면들이 유화로 그리져 있다.

#### - 백악관

1799년에 제임스 호반이 설계한 건물로 버지니아에서 수출되는 사암으로 건축되었다. 첫 번째 주인은 1800년에 미국의 2대 대통령인 “존 아덤스”이다.

-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연간 200만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이소은 1846년에 영국의 “제임스 스미슨”에 의해 “인류 지식의 변영”이라는 명분 아래 시작이 된 박물관이다. 현재 전시되어 있는 물품이 불과 1%밖에 안된다고 하니 얼마나 큰 박물관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모든 진시품을 전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

- 링컨 기념관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남북전쟁과 노예의 해방으로 유명한 대통령이다. “헨리 베이컨의 설계로 1914년 착공해서 1922년 5월 30일에 완성했다. 36개의 기둥은 1865년에 미국의 주가 36개를 나타내고 있으며, 22년 미국의 주가 48개이므로 건물의 위쪽에 독수리가 꽃줄을 장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8개이다. 건물 안의 링컨의 좌상은 “대니얼 프렌치“에 의해 조각되었다.

## II. 캐나다

### 1. 몬트리올

오타와 강과 세인트 로렌스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몬트리올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며, 프랑스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흔히 제2의 프랑스라고 말한다. 1535년 프랑스 탐험가 “자크 카르티에”가 최초로 몬트리올을 발견하였다. 1642년 상폴렌의 군대 부하인 “메종뇌브”가 40명의 일행을 이끌고 지금의 올드 몬트리올에 정착을 한 것이 공식적인 프랑스 식민지가 개막이 되었다. 북미에서는 오직 유럽의 문화를 볼 수 있는 몬트리올은 영화제 및 유명 페스티벌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상위권에 드는 이곳에는 너무 관광코스가 많다. 특히 유명한 것으로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프레드릭 옴스태드”의 작품인 몽 르와이알 공원은 시내의 번잡함은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휴식처이기도 하다. 또한 옆쪽으로 보면 성조셉 성당은 안드레 신부가 기적을 이룬 성당으로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당으로 캐나다에서는 가장 큰 성당이다. 몬트리올은 퀘벡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는 35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80%이상이 프랑스 인이다. 이런 관계로 몬트리올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 그라스를 가지고 있으며 성당이 상당히 많은데 아주 유명한 성당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트르담 성당인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테인 그라스를 가지고 있으며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꼭 다른 세상에 온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 몬트리올의 관광지는 여러 곳이 있다.

#### - 올드 몬트리올

17-19세기의 아름다운 건물이 앙상블을 이루는 도시이다. 19세기에 경제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해서 도시가 버려졌지만 1960년에 비거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현재는 많은 상가와 예술가의 거리로 변해 있다.

#### - 올림픽 경기장

1976년에 하계올림픽이 열린 곳으로 상당히 아름다운 경기장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69m의 타워는 45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곳에 오르면 몬트리올 동쪽의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진다. 세인트로렌스강의 모습 또한 환상적이다.

#### - 셸브룩 거리

1816년-1818년에 캐나다의 총독을 지냈던 “존 셸브룩”을 기념한 이 거리는 소위 황금의 25마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곳에 있는 100ad의 건물 주인이 캐나다의

부 70%를 좌우한다고 할만큼 이 지역이 캐나다의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 거리는 19세기 20세기 건물이 공존을 하는 곳으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를 한 도시로 건물의 지하가 모두 통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메인 스트리트는 “세인 로렌tm 블로바드”로서 활기찬 상업지역으로 도시의 남북을 연결하고 있다.

## 2. 오타와

오타와는 온타리오주와 퀘벡주의 경계선의 리도강과 오타와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1858년 빅토리아 이왕이 오타와를 수도로 정하고, 1867년 영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자치권을 획득하여 캐나다 연방이 오타와를 수도로 정하고 1867년 영국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자치권을 획득하여 캐나다 연방이 성립되면서 오타와도 정식으로 캐나다의 수도로 승격되었다. 이전의 이름은 “바이타운”이었는데 이것은 바이 중령에 의한 것이다.

바이 중령이 리도 운하를 자신의 돈으로 만들고 자신은 거의 파산 상태에 이르러 영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동네의 이름은 “바이타운”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우타우와 인디언은 오타와를 긴 여정의 정막지로 삼았으나 날씨의 변화가 너무 심해서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였다. 오타와는 인디언의 말로 “불건을 사고 파는 장소”란 뜻이다. 오타와는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도시로서 여러 개의 박물관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봄에는 네델란드에서 보내준 튜울립과 수선화로 연방의 광장이 장식되어 있어 더욱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된다. 오타와에 처음으로 들어온 백인은 1796년 청교도인 “필그렘 화이트”와 그의 가족과 동료들이 정착을 하면서부터 이다. 오타와의 관광지로는 다음과 같은 곳이 있다.

### - 국회의사당

1866년에 완성이 되었으나 1916년 화재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에 탔다. 1920년에 완성을 하였고 건축 양식은 상중간 고딕양식으로 지붕은 구리로 만든 것인데 녹이 슬어서 푸른 색을 보이고 있다. 영국의 국회 의사당을 그대로 본을 딴 모습이다. 중앙의 탑은 1927년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평화의 탑”이다. 그곳에는 53개의 종이 부착되어서 매 15분마다 종이 울리게 되어 있다. 높이는 84M이다. 의사당의 뜰 가운데는 “센트리얼 프레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1866년 12월 31일에 100주년 기념으로 분수대 가운데에다 불질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캐나다여 영원하라”는 뜻이다. 주변 일대의 동상은 빅토

리아 여왕과 수상들의 동상인데 퀘백의 유명한 조각가 '루이다 하버드'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 3. 토론토

토론토는 “만남의 장소(The meeting place)”란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는 인디언 언어에서 유래한 거승로 “물에 나무들이 있는 곳”이란 뜻이 있다. 만남의 장소란 뜻을 가진 이 말은 오늘날의 토론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잘 대변한 것으로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복합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라는 말에 부합되는 것이다. 토론토는 12000년전에 북미 일대에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면서 형성된 5대 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온타리오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아름다운 호수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아주 산뜻한 빛을 자아내는 국제적인 도시이다.

토론토는 1960년대 이후에 본격적인 인구의 이동에 힘입어 건물들은 거의 모두 현대식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서양과 온타리오 호수를 연결하고 있는 입지조건은 토론토를 항구의 도시로 그리고 운수의 중심도시로 만들었고, 캐나다 경제의 중심으로 온타리오주의 수도가 만드는데 충분했다. 또한 토론토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교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한인의 숫자는 약 60,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조그만 한인타운을 형성하고 있다. 토론토는 인구가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400만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토론토의 관광지로서는 다음과 같이 있다.

#### - CN타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인 CN타워가 있으며, 이것의 높이는 553.33M의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 - 토론토 시청

역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1957년에 필립스 시장이 새로운 시청의 건설을 계획하고 전세계 건축가에게 공모를 하여 공모에 참가한 520건의 작품중 핀란드 사람 “빌리오 레벨”의 작품이 선정이 되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청이 된다.

#### - 차이나타운

북미에서 세 번째로 큰 곳으로 시청의 근처에 있으며 토론토에서는 중국 사람을 무시하고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다. 그만큼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다고 할 수 있다.

#### - 카사로마(TJDST ROMA)

“헨리 펠라트”라는 부호에 의하여 세워진 성인데 그는 나이가가라에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돈을 모은 사람이다. 방이 98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세의 성을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이다. 1911-1914년에 완성된 건물이다. 이 외에도 토론토대학, 토론토 섬, 조각가 헨리 무어의 작품을 최대로 소장하고 있는 온타리오 미술관이 있다.

## 5. 미국의 지방자치

### (1) 자치단체는 주민의사로 설립

흔히 미국에는 주권을 가진 50개의 국가가 존재한다고들 한다. 이는 주를 하나의 '국가'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중국은 州(국가)의 결합체(United States)라는 뜻이다. 사실, 연방정부가 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려면 연방 헌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의 권한을 함부로 제약할 수 없는 것이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 주가 각자의 헌법을 제약할 수 없는 것이 철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각 주가 각자의 헌법을 갖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일본의 都道府縣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오랜 역사 속에서 연방정부의 집권이 서서히 진행되고, 그와 바래하여 주의 권한을 제한받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연방정부의 기능을 축소하고 州에 대한 분권을 강조하는 움직임도 있다.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나 권한이 주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州의 창조물'이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 사항이 하나부터 모두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치단체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市長제로 할 것인가, 커미션제로 할 것인가, 지배인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등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기는 수가 많다. 그 단적인 예가 홈룰(Home Rule)제이다.

#### 가. 자치단체의 공백지역

일반적으로 미국의 자치단체는 시(city), 읍(borough 또는 Town), 면(village) 등이다. 일본뿐만 아니라 영국, 덴마크에서도 전 국토가 자치단체로 구획되어 있어 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은 지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단체의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법인화'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 즉 '법인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꽤 있다. 물론 이들 지역에서도 일반적으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만, 이 서비스는 주의 하부기구인 카운티나 특별행정기관이 제공하고 있다. 때로는 민간업자가 주민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요금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다.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구역과 권한, 그리고 조직과 공무원의 채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헌장(Charter)'인데 그 내용은 주마다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같은 주안에서도 자치단체에 따라 내용이 다를 때가 많다. 이것은 주의회가 각 자치단체마다 다른 헌장을 특별법으로 규정

하기 때문이다. 물론 획일적인 현상을 州내의 모든 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주도 있고 인구규모별로 현장의 내용을 다르게 하는 주도 있다. 또한 몇 가지 표준적인 현장을 만들어 그가운데서 자치단체가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주도 있으며 현장 작성을 자치단체에 맡기는 곳도 있다.

## (2) 주민스스로 기본법을 세정

자치단체는 州의 창조물이다. 그러므로 자치단체는 주의회가 제정한 구속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실제로 자치단체는 주의 간섭을 그다지 받지 않는다고 한다.

자치권을 대폭으로 인정받고 있는 자치단체도 많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의 통치 기구가 주 법률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량으로 시장제로 할 것인지, 커미션제로 할 것인지, 시 재배인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미국은 자치단체의 구조가 ‘현장’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이 현장, 즉 자치단체의 ‘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주가 정하지만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재량으로 제정해도 되게 되어있는 주도 많다. 이러한 자치단체에 의한 현장 제정권은 19세기말 자치권 확충운동(홈룰(Home Rule) 운동이라 함을 계기로 주의회에서 인정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현장은 ‘홈룰 차터(Home Rule Charter)’라 불리고 있다.

### 가. 자치현장(Home Rule Charter)

자치현장(Home Rule Charter)은 자치단체 스스로의 재량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세정 과정에 자치단체의 주권자인 주민을 포함시키는 자치단체가 많다. 주민의 대표를 현장(Charter) 기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공청회를 열거나 원안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보기도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에 의해 자치현장을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치현장을 주민의 의향을 중시하여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또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것이기는 하지만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변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필요에 따라 현장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같은 자치단체라도 시대에 따라 통치기구나 자치단체의 권한이 다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뉴욕 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차례 자치현장이 개정되어 왔다. 최근에는 1989년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큰 힘을 행사하던 이사회(시장·시의회의장·회계검사관, 5명의 구청장으로 구성)가 폐지되었다.

이렇게 자치현장의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곳은 보통 시나 읍 정도의 자치단체이지만, 캘리포니아 주처럼 주의 하부기구인 카운티에 대해서도 자치현장의 제정권을

인정하는 주도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카운티가 자치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에 구성이나 이사선출 방법 등 조직상의 세부 사항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버몬트주, 뉴햄프셔주의 헌장채택절차

	버몬트주	뉴햄프셔주
청원주체	① 타운미팅 등의 타운 입법조직 ② 유권자의 5%	유권자의 20% 동시에 10명 이상의 서명
공청회	최고 2회 개최	헌장위원회 설치전은 수시로
채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어도 제1회 공청회의 10일 전에 헌장안을 서기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주민에 대해서 주지 가능하도록 할 것</li> <li>제1회 공청회는 적어도 타운미팅 또는 스페셜미팅의 30일 전에 개최해야 한다.</li> <li>공청회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적어도 타운미팅 또는 스페셜미팅의 20일전까지 수정할 것</li> <li>수정안은 타운미팅 또는 스페셜미팅의 공고와 같은 장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수정안을 주민에 대해서 주지 가능하게 할 것</li> <li>수정의 청원이 있는 경우, 제1회 공청회의 10일 이내에 제2회 공청회를 개최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원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헌장위원회(Charter commission) 설치할 타운 미팅 또는 스페셜미팅에서 상의한다.</li> <li>헌장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타운 공직과 마찬가지로 선출된다. 위원의 활동비용은 실비변상 한다.</li> <li>헌장위원회의 회합 후 14일 이내에 공청회가 있다. 위원선출 후 6개월 이내에 기헌장을 공포하고 10개월 이내에 최종보고를 타운에 제출</li> <li>적어도 최종보고의 60일 이후에 주의 승인을 얻은 후 타운미팅 또는 스페셜미팅에서 헌장안을 상의한다.</li> </ul>
타운회의 또는 특별회의의 투표방법	투표(Australian Ballot)에 의함	별도 규정은 없음
주의 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기는 투표결과를 공시함과 함께 10일 이내에 헌장을 주무장관에게 제출할 것</li> <li>주의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보고의 제출 후 10일 이내에 시기는 주무장관 사법장관, 세입성장관에게 해당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li> <li>보고서의 제출 14일 이내에 삼자는 주법에 저촉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야 한다.</li> </ul>

### (3) 이중언어(Bilingual)교육

현재 일본의 6·3·3제의 교육체제는 미국제도를 도입한 것이라고 하지만, 정작 미국은 6·3·3제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6·6제나 4·4제 또는 8·4제를 채용하고 있는 곳이 더 많을 정도이다. 의무교육의 연한도 주에 따라 다르다.

8년인 곳이 있는가 하면 12년인 곳도 있다. 전체적으로는 9년 또는 10년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주가 많은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교육제도 가운데 학년을 뛰어넘어 진급하는 '越班'도 있다. 물론 미국 전체를 통일하는 커리큘럼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과서도 전국 공통의 제도는 없고 각 주가 주 독자의 법령에 따라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다. 실재로는 시나 읍과는 다른 조직인 특별지방단체 '학교구'가 교과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주가 많다.

미국에서는 최근 20여년간 영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다.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사람들이 증가한것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큰 문제기 되어, 실제로 여러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이중언어(bilingual) 교육을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영어수업과 병행하여 영어 이외의 언어로 주요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초중고)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 1995년 현재 130만명 가까이 있고 그 반수 가까이는 모국어로 이중언어(Bilingual) 교육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을 가르치는 교원의 수도 많다. 정규 이중언어(Bilingual) 교원이 3만 명 가까이 있고 또 보조교원도 약 3만명 있다.

일본에서도 앞으로 공립 초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는 외국인 아이들(또는 일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없는 아이)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그를 위해서도 미국의 이중언어(Bilingual) 교육을 지금 시점에서 연구하고 이중언어(Bilingual) 교원의 육성에 주력해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 (4) 市가 선거비용 조성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진제를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 결과 선거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후보자가 정치 기부금에 의존해 왔다. 소위 '고액 정치기부금'이 미국 선거의 한 가지 특색이다. 그러나 공직후보자가 정치 기부금에 의지하게 되면 부정으로 연결되기 쉽다. 부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액 기부금 납부자가 공직자에 대해 큰 영향력을 발휘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 가. 공공비용

이러한 발상을 바탕으로 선거자금의 공비로 보조하고 정치적 기부금을 제한하는 자치단체가 있다. 로스엔젤레스 시나 뉴욕 시 등이 그러하다. 뉴욕시의 경우, 시장 선거 후보자는 최고 200만 달러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물론 모든 후보자가 보조를 받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장애물 제거가 필요하다.

첫째, 기부금액 제약을 따라야 한다. 공비보조를 희망하는 후보자는 한 기부금 납부사(기업)로부터 6,500달러 이상의 정치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뉴욕주의 법률은 이러한 선거정치 기부금의 제한을 10만달러로 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뉴욕시의 제한이 얼마나 엄격한지 분명히 드러난다.

둘째, 선거구내의 주민으로부터 소액 기부금(10달러에서 1,000 달러까지의 기부금)을 많이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후보의 경우, 소액의 정치 기부금을 적어도 천명으로부터 모으되 그 합계액이 25만 달러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시의회 의원의 경우는 제약이 그리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저 50명의 주민으로부터 5천 달러 이상을 모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 소액의 정치 기부금은 100달러 이하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선거자금의 보조금은 이 소액 기부금의 합계액에 따라 교부된다. 소액 기부금을 납부해주는 지원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후보자는 많은 공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보조금에는 상한이 있다. 시장 후보의 경우는 200만 달러, 구청장 후보는 45만 달러, 시의회 의원 후보는 4만 달러이다.

이 공비보조금을 받은 사람은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자금의 제약을 받으며, 또한 수입지출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제약도 있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공비보조는 세금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거액의 정치 기부금을 모아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전개하는 후보자도 있다.

또한 뉴욕 시가 이처럼 州法보다도 엄격한 독자적인 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뉴욕시가 홈룰(Home Rule)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이겨지는 것이 흥미롭다.

뉴욕시 선거는 일반적으로 주법으로 정해져 있다.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미국 국민으로 뉴욕시에 선거진 30일간 거주하고 있으며 선거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뉴욕은 영구선거등록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한번 선거등록을 하면 나중에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주거지를 이전하면 다시해야 하며 4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등록은 말소된다.

#### 나. 시의원 입후보

정당에서 입후보할 경우에는 정당의 예비선거에 입후보해야 한다. 이 예비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의 당원등록자의 900명 이상의 서명(또는 등록자 5%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 서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예비선거의 후보자가 된다. 그리고 예비선거에서 최다득표한 사람이 그 정당의 후보자가 된다.

다만, 투표자의 40% 이상의 투표가 필요하며,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상위 2명을 놓고 결선투표를 하게 된다.

특히 정당에 속하지 않고 무소속 후보자로서 본선거에 입후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마음대로 입후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거구의 선거등록자 2,700명의 서명(또는 전회의 주지사 선거에서 투표자 5%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서명을 얻은 후 무소속단체의 명칭과 상징물을 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후보자들간에 본 선거가 실시된다.

#### (5) 콘트랙트 시티(Contract City)

일본에서는 규모가 작은 시정촌이 공동으로 소방서를 설치하거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많다. 사무조합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인데 이를 통해 한 자치단체 만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는 좋게 평가할 수 있는 점도 있지만, 한번 사무조합을 설치하면 조합에 이양한 업무는 조합 사체의 사무가 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이후에 자치단체 의회에서 심의대상이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통한 주민의 심판도 받은 일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 가. 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구입

미국에서도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힘에 부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교외의 자치단체가 실행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는 카운티에 서비스 실시를 위탁하는 방법이다. 카운티는 주의 지방기관(일선기관)인데 로스앤젤레스의 카운티는 그 나뉠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 일본의 현에 해당하는 광역 자치단체라고 봐도 좋다.

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하여 그 카운티로부터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 이 서비스 위탁인데, 이 경우 자치단체는 서비스 구입자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당연히 자치단체에 있다. 또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실시할 책임도 자치단체에 있다.

따라서 시의회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 그 위탁패지를 포함하여 언제라도 심의할 수 있고 주민도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시당국을 비판할 수 있다.

카운티에 위탁하는 서비스 종류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산업폐기물 처리나 하수도사업, 신호 등의 보수점검, 가로수의 정비, 도로청소, 회계감사사무, 건축확인사무, 도로의 유지관리, 소방 등 여러가지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또한 로스앤젤레스에서든 경찰도 자치단체 사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카운티에 위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적지 않다.

#### 나. 콘트랙트 시티(Contract City)

로스앤젤레스에서 카운티에 서비스 실시를 위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콘트랙트 시티(Contract City)'라 불린다. 이 콘트랙트 시티는 해당 서비스에 종사하는 카운티의 공무원 급여, 기타 필요한 경비 전액을 카운티에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위탁에 의해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카운티에 지불할 경비는 카운티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파는 쪽인 카운티와 사는 쪽인 자치단체의 교섭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경비를 자기 부담으로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놀랄만큼 싼 편이다. 예를 들어 자치체국세화협회의 보고서(1993년 6월 30일)에 의하면 인구 75,000명의레이크우드 시는 이렇게 위탁한 결과, 시행정을 겨우 180명의 공무원(그 외에 300명의 비상근공무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위탁비를 포함한 세출총액은 1992년도 3,000만 달러(약330억원)였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정촌인 경우, 공무원은 비상근을 별도로 해도 600명 이상은 되며 세출도 2000억원을 넘는다.

레이크우드(Lakewood) 시의 현황

정 부 형 태		의회 - 시 지배인형
인 구		75,000 명
92 세출예산액		30,000,000 달러
공무원수	상 근	180 명
	비상근	300 명

레이크우드 시의 주요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실시방법

행정 서비스	실시방법
경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위탁
소방	"
도서관	"
폐기물수집	민간위탁
폐기물처리	"
동물관리	롱비치시
커뮤니티개발(Community Development)	레이크우드 시
레크레이션(Recreation)	"
도시재개발	"
공공근로	"
재정	"
케이블 TV	"
City Clerk	"
수도	"

(6) 성장관리정책과 시민참여

미국에서는 1970년대 무렵부터 자연환경 파괴에 위기감을 느낀 주 정부가 도시 성장을 관리하는 정책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성장관리정책'을 실제로 담당하는 자치단체(시)와 주정부가 보조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오리건 주처럼 성공한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장관리정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관리정책'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고 성공 사례였던 오리건 주의 정책을 모델로 새로운 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는 주 정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 워싱턴 주, 1992년 메릴랜드 주가 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는 등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들어서도 더욱 강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즘 일본에서도 성장관리정책을 주목하고 있는 듯 하나 성장관리정책의 내용은 주 정부에 따라 다르고 또한 논자에 따라서도 성장관리정책의 개념이 달라 성장관리정책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성장관리정책이라는 형태로 자연환경 보호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현재 성장관리정책의 모델이 된 것으로 평가받는 오리건 주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하자.

#### 가. 오리건 주의 성장관리정책 사례

오리건 주는 1973년 성장관리정책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숲과 농지 등 자연환경 보호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교통기반 정비나 도시의 질서있는 발전도 중시하였다. 이것이 다른 주의 1970년대 성장관리정책과 다른점으로 오리건 주의 성공비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황기가 되자 성장관리정책은 지역경제의 쇠퇴를 초래한다 하여 주민이나 자치단체(시)의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오리건 주의 성장관리정책은 주 정부 스스로 성장관리계획을 세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의 책정과 실시는 모두 자치단체에게 맡기고 주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의 경우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면 자치단체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오리건 주는 성장관리정책을 계속할 것인지를 주민이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주민투표는 1977년에 이어 1978년과 1982년에도 실시되었다. 주민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역시 미국다운 현상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자가를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 나. 주민단체활동

이밖에도 오리건 주는 성장관리정책의 운용단계에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은 물론, 주민 임의단체를 활용하였다. 1975년 州知事의 후원으로 설립된 ‘오리건 주민 1,000명의 모임’이 그것이다. 이 단체는 주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주 의회나 자치단체(시)에 면밀한 조사에 바탕을 둔 재언을 하거나 재판제도를 활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성장관리정책의 감시단체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인의의 주민단체 활동이 자연환경 보호나 질서있는 도시기반 정비 추진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성장관리정책에 적극적으로 주력하게 된 대부분의 주에서 같은 종류의 주민단체가 결성된 것만 봐도 확실하다.

#### (7) 환경보전과 쓰레기 처리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쓰레기 매립에 따른 토양이나 수질오염이 문제가 되어 연방정부나 주 정부가 자치단체에 대하여 쓰레기의 적절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부응하여 자치단체는 최신식 시설을 설치하거나 리사이클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는데 이는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에게는 어려운 과제였다.

아무리 독자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도 인구 수천명의 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광역적인 사무처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러가지 형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여러가지 형태의 광역처리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한가지 사례를 여기에 소개한다.

#### 가.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區

오리건 주가 일반 자치단체(시)와는 달리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광역지방 단체를 설치하고 그 광역단체에 쓰레기 처리나 리사이클을 맡긴 사례이다.

이 광역단체는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구'라 하는데, 1970년에 관할구역내의 사치 단체(시)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에 의해 설립된 것이다. 설립당시는 공공단체라는 점은 분명해도 '자치단체'라고 하기는 어려운 단체였다.

그러나 구 후의 개정에 의해 점차로 사치단체로서의 요소가 농후해졌다. 1977년에는 민선 의회가 설치되었고, 또한 市長에 해당하는 집행책임지도 선거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주민투표로 사치헌장이 제정되고, 이후 수수로의 제랑에 따라, 또한 스스로의 책임하에 환경보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나. 원탁회의

쓰레기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효과적인 리사이클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관심을 높여 협력을 얻는 것이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구는 의회의 심의상황을 지역 케이블 TV로 방영하는 등 주민의 관심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더욱 직접적인 광고활동도 활발하다.

예를 들어, 각양각색의 팸플릿을 만들어 각 가정이나 기업에 배포하거나 초등학교에 보내 학생들의 교재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도서관을 만들어 쓰레기에 관한 서적, 잡지, 비디오를 비치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대출하고 있다. 정보센터의 충실화도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구가 중요시하고 있는 일 중 하나이다. 5명의 공무원을 이 센터에 상근 배치하여 쓰레기에 관한 주민의 문의나 상담에 응하는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매년 10만건 가까운 문의가 들어온다고 한다.

사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감량과 리사이클을 위하여 관계자를 소집하여 원탁회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1994년 6월에는 기업, 호텔, 상점 등의 사업자 43명, 폐기물업자 41명, 주나 카운티 또는 자치단체(시) 공무원 20명이 모여 총 1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메트로폴리탄 서비스 구 공무원의 의사진행 하에 몇 시간에 걸친 의견 교환을 했다고 한다.

주민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집행기관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체재를 정비하고 있다. 그러한 결과, 쓰레기의 리사이클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 6. 미국의 사회복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17세기 초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시대로부터 유래한다.

신세계에 정착한 식민지개척자들은 여러면에서 영국의 복지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식민지 하에서 빈민을 돕기 위한 초기의 복지조건은 가족, 친구, 그리고 교회들이었다. 후에 지방과 주정부가 마지막 수단으로 개입하였다. 20세기에 들어 미국에서는 여러 사회복지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의 확대는 1930년대 뉴딜시대 동안 연방정부는 사회복지문제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대한 사회정책 (great society program)을 가지고 사회복지에서 연방정부의 역할이 계속 증대되었다.

또한 1980년대도 복지정책의 커다란 분수령이 되었다. 복지정책의 실패와 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레이건행정부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연방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민간부문과 주정부의 신뢰증대를 시도하였다.

1990년대 이후의 미국복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미국 사회복지사의 개관

여기서는 미국의 복지정책이 어떻게 형성되어 지금까지 발달하게 되었는가를 개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대공황과 뉴딜정책

#### 나. 빈곤에 대한 전쟁선포

#### 다.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 정책

오늘날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공공지출은 낮은 반면에 국민의 욕구는 짐증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보장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은 의존성을 부각시켜서 이러한 사람들을 줄이기 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데만 공헌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복지시스템에 대한 근심으로 나타났고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자유로운 사상과 희망으로부터 1980년대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보수적 관점을 가진 철학이 대중적 지지를 얻었다.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①복지에 대한

정부지출을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며, ②정부 특히 연방정부는 복지정책과 사업에서의 역할을 줄여야 하며, ③극빈자만이 복지원조를 받아야 하며, ④복지는 가능한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업의 변화는 이러한 것을 반영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와 같은 공적 부조사업에서의 정부지출의 비율은 상승률이 원만하며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이 더 엄격해졌고 새로운 사업을 설립하는데 있어 서항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에도 많은 비난이 있다. 복지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은 실업, 무주택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증가 등을 강조한다.

결국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정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원조해야 한다는 보수적이고 선택적인 접근방법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원조에 보다 더 개방적이고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간의 투쟁으로 남아있다.

## 2. 미국사회복지 확대의 요인

1900년대 초 이래로 미국은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원조받는 사람수의 증가, 복지 지출의 증가 등이 이루어져 왔다. 그 원인으로서는 ①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동, ② 거주요건의 철폐, ③ 복지권리 운동, ④ 물가상승, ⑤ 고령화, ⑥ 편부모의 증가 등을 거론할 수 있다.

### 가. 지방에서 도시로의 이동

상업혁명이 절정을 이루었던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 동안 미국인들은 일련의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다. 미국사회는 농경사회로부터 도시의 산업사회로 변모하였다. 사람들은 도시로 밝은 미래와 일자리를 꿈꾸며 가난한 농촌으로부터 벗어나 집결하였다. 게다가 외국인들까지 더 나은 삶을 찾고자 미국으로 몰려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희망은 산산히 부서졌다. 일자리를 얻은 사람들은 대부분 열악한 작업환경 아래서 적은 급료를 받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했다. 주택은 모자랐고 공중위생과 보건문제도 열악하였으며 사회문제는 점점 더 정부의 문제가 되었다. 경제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각 도시와 주정부는 악화된 사회문제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연방정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주도적 재정지원자로서 그 역할을 확인하고 1935년에 사회보장법을 마련하였다.

#### 나. 거주요건철폐

거주요건은 복지수혜자의 수를 적당하게 제한하는 전통적인 수단이다. 엘리자베스 식민지시대 동안 빈민자들은 그 지역사회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주요건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 되고 사람들은 더 자주 직업과 새로운 기회를 찾아 이동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정부와 지역사회는 복지사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규정을 계속해서 강요하였다. 수혜자들이 1년 또는 6개월동안 주요도시에서 거주해야만 하거나, 또는 심지어 거주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복지사업의 담당전수를 축소하는 방법일 뿐이었다.

하급법원에서 잇따른 쟁송으로 인해 대법원은 1969년에 거주요건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그것은 수혜사격을 더욱 완화하였고 결국은 복지사업 전수를 증가시켰는데 특히 1970년대의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 다. 복지관련 제권리

1960년대에 흑인과 일단의 빈곤한 미국인들은 복지권리향상운동(welfare right movement)을 통해 복지제도에 대한 그들의 불만을 표출했다. 시민권운동과 함께 일어난 복지권리향상운동은 미국 주요도시에서 일련의 소요로 나타났고 1964년부터 1968년은 미국역사에 있어 험난한 시기였다. 그런데 폭동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사업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하였으며 전보다 많은 비율의 복지수혜 신청이 인정되었다. 즉 복지권리향상운동은 복지사업수혜자들의 행동과 태도에 다음과 같이 변화를 가져왔다.

복지사업관료들과 사회사업자(caseworker)들의 태도 또한 변하였다. 상황한 배경 조사를 하던 관행은 사라졌고 원조를 받는 절차도 신속해졌으며 정부와 복지관련 기관은 수혜자들의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것처럼 서둘러서 혜택을 금지하지 않았다.

1968년경 복지권리향상운동은 끝이났다. 소요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운동과 빈민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직된 연방복지권리기구는 계속하여 남게 되었다.

#### 라. 물가지수조정

1970년대와 1980년대 동안의 복지사업지출의 증가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복지혜택이 유지되도록 계획된 COLAs(Cost-of-living Adjustments)라는 물가지수의 조정에 대한 국회승인에 기인한다. A. Wildavsky는 과거에 국회가 종종 특별

의결에 의해 사회보장지출을 늘려왔다고 한다. 그러나 후에 국회는 사회보장과 식량표, 그리고 SSI 사업에 있어 자동물가지수조정을 만들도록 결정했다. 즉 물가연동제로서 매년 이러한 사회복지지출은 늘어나는 물가지수에 근거하여 조정되었다.

1980년대 초 COLAs는 그 이론적 해석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사회보장지출이 증가하는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에 흐름이 완만한 경제하에 있는 많은 임금노동자들의 급여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인상되지 않았다.

#### 마. 미국인의 노령화

미국의 노령인구증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재 미국에 있어 65세 이상 인구는 금세기 초의 4%와 비교해서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쯤에는 약 12%가 될 것이다. 노인들은 매우 신체적, 금전적, 그리고 다른 사회보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영양섭취와 인공장기의 발달, 그리고 장기이식에 있어 최근의 비약적 발전을 포함한 의학의 발전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전보다 더 오래 살고 싶어하는 욕구를 갈망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점점 더 약해지고 때로는 자신의 욕구조차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된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에게 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폭넓은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 바. 편부모 가정의 증가

미국가정생활의 변화하는 양상은 복지부문지출의 증가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요인이다. 이혼이 만연하고 결혼하지 않은 10대들의 임신율과 치료를 요하는 병든 아이들은 국가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러한 가정생활의 변화는 편부모가정, 특히 어머니가 가장인 모자가정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났다. 1950년부터 1975년까지 여성에 의해 가계가 꾸려지고 있는 가정의 수는 700만 가구 이상으로 두 배가 되었고 그 중 70%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며 대부분 가난하다. 가족구조와 빈곤과의 상관성에 오랫동안 관심을 보여온 다니엘 패드릭 모이니암(Daniel Patrick Moynihan) 상원의원에 따르면 여성과 그들의 아이들의 빈곤이 대단히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권리신장운동이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증가시켜서 많은 여성가장 가정을 지난 10년동안 가난으로부터 구제했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아직 어두운 여성과 그들 아이들의 모습은 남아있다. 결국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의료보호(medicaid), 그리고 식품구매권(food stamps)과 같은 복지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결정적인 지원은 아니다.

### 3. 미국복지정책에 있어 이념적 논쟁

#### 가. 1980년대 미국복지 정책

1980년대 초 미국에는 보수주의 색채가 강한 레이건의 공화당 행정부가 등장함으로써 빈곤에 대한 관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보수주의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복지분야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대폭 감소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종전의 직극적이던 정부역할은 급격하게 퇴조하였다.

그 예로 복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정책을 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로는 1980년대 초에 레이건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의료보호(medicaid)를 책임지는 대신 주정부가 식품구매권 프로그램(the food stamp program)과 요보호아동가정에 대한 보조(AFDC : Aid to the Family with Dependent Children)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처럼 레이건 행정부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감소시키고 주정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자 한 이유는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복지제도가 미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무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복지정책이 보다 적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복지수혜자가 보다 강한 상호간의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족관계가 안정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특히 레이건 행정부 내의 복지문제 분석가들은 국가의 빈곤문제가 너무 복잡하여 아무도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으며 오직 주정부가 후원하고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광범하고 장기적인 실험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이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던 것이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특히 1986년에 들어서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국가복지 체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1986년에 레이건 행정부가 주장한 복지정책의 개혁은 특히 빈곤문제와 복지정책에 대해서 오랜만에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타협하게 됨으로써 입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급진주의자들은 기존의 복지제도가 지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합의를 이룸으로써 의회가 개혁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었다.

## 나. Reagannomics와 복지

Reagannomics라고 이름 붙여진 경제개념은 레이건 행정부의 복지와 경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Reagannomics를 간단히 말한다면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공급일변도 경제, 자본투자, 그리고 통화공급 같은 복잡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기는 곤란한 용어이다. 그러나 두 번의 임기를 통해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 궁핍지수(the misery index)

실업을 감소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쉽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정부노력이 쉽게 실업을 초래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실업률(the unemployment rate)과 물가상승률(the inflation rate)을 결합하기로 결정했고, 그것을 궁핍지수(the misery index)라고 명명했다. 1960년대 궁핍지수는 7.3이었지만 1980년쯤에는 17.2로 급속히 증가했다. 그러나 레이건의 첫 번째 재임기간 동안 궁핍지수는 엄청나게 하락하였고 그것은 경제개선으로 이어졌으며 이 사실은 대통령 인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쳐 1984년 선거에서 레이건은 승리하였다.

### ② 조세와 인플레이션 억제

조세감축은 레이건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부분이었다. 연방개인소득세의 점진적 증가때문에 소득세에 의해 요구되는 소득비율이 물가상승과 함께 증가하였다.

1981년 현재 연방의 개인소득세는 과세대상 소득의 처음 단계인 1,000달러의 12%에서 시작한다. 세율은 소득이 1,000달러 증가할 때마다, 높은 비율로 증가한다.

38,000달러 이상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세금감축에 착수하기 전에 당장 많은 세금을 내는 계층은 70%의 세율로서 20만달러 이상의 과세대상 소득이 거기에 해당된다.

### ③ 안전망(safety nets)과 계층

레이건 행정부는 많은 소득보장제도에 있어 과감한 삭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필요한 부분은 보호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사회보장, 의료보장, 실업보상, 퇴역군인수당, 보충적 소득보장(SSD), Head Start, 불우청소년들의 여름일자리, 아침 점심의 학교급식제도를 포함한다. 레이건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이라 주장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복지수당의 상류층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다. 이 상류층은 소득세에서 조싱되는 사회보험프로그램(social insurance programs)들로 대부분 구성되며 그들의 소득에

관계없이 자선단체에게 쓰여진다. 게다가 사회보장, 의호보장, 퇴역군인 수당은 실지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끼쳤다. SSI는 가난한 노인, 맹인, 불구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여름구직, 학교의 자유급식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안전망의 작은 부분을 차지할 뿐이다.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러한 많은 프로그램은 안전망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예산절약이 주목적이 된다.

④ 총액보조금(block grants), 세입분할, 그리고 신연방주의

대통령의 주요목표는 연방과 주관계의 재구조화였다. 구체적으로 주정부와 관련된 많은 지역프로그램을 주정부에게 인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의 첫임기 기간 동안 레이건 대통령은 교환을 제안했다. 연방정부가 의료보호 프로그램(medicaid program)의 전적인 책임을 맡는 대신 주정부는 식품구매권 프로그램이나 AFDC 프로그램의 연방부분을 떠맡는 것이다. 이 교환은 궁극적인 부담을 지는 행정부를 추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이 연방정부에 의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주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록 주정부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관심을 가졌어도 주정부들간의 재정의 차이는 주마다 불평등한 대우를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레이건 행정부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총액보조금은 주에 부여하는 연방보조금 또는 건강, 복지, 교육, 법집행, 지역 사회개발과 같은 일반작용을 위하여 지방정부에 주어지는 보조금이다. 그 돈은 구역보조금에 지정된 작용에만 쓰여져야 하지만 주와 지역사회는 그 기금의 특정 사용의 결정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총액보조금의 주목적은 워싱턴 관료주의자들의 힘을 감소시켜 의사결정을 주와 지방정부에 돌려주고 연방정부의 사금을 어떤 관련도 없는 다양한 목적에 유용하게 하는 것이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재정지원하는 또 다른 방식인 연방세입분할(revenue sharing)은 보건, 주택, 영양과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빈곤지역을 대상으로 1960년대에 시작되었다. 1972년 닉슨대통령은 일반세입분할을 제안했다. 그러나 결국 대부분 도시들은 재정사정이 적절해졌고 많은 도시들이 치안과 소방과 같은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그 자금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연방세입분할은 그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로서 그 동안 주 및 지방정부가 재정적 연방주의(fiscal federalism)에

따라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왔던 것을 바로잡고 지방분권화하려는 노력이다.

다음의 표는 레이건 행정부의 주요 복지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 주요 복지 프로그램

주요지출삭감의 결과로 레이건 행정부의 초기 3년간 이루어진 주요 연방복지프로그램	
AFDC	아이를 가진 저소득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을 나누주는 연방 프로그램
Medicaid	빈민의 보건을 위해 지원하는 주-연방프로그램
Food Stamps	음식구매를 위한 상품인 쿠폰을 저소득 주부들에게 발급
Housing Aid	저소득 가정을 위한 보조금 대부, 건축을 돕는 공공주택 프로젝트에의 원조와 자금운용
Title XX Social Service	가족계획, 양육, 탁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의 보조금
Com-Service Block Grant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활동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복지시스템의 근원은 엘리지베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구민법은 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했고 보호가치가 없는 빈민으로부터 보호가치가 있는 빈민을 구별하는 것을 강조했다. 오늘날 미국에서 복지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다.

건국 초기에 거대한 정부복지 프로그램은 없었다. 복지는 가구, 친구, 개인사선가, 교회에 의해 제공되었다. 그러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걸쳐서 산업혁명으로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은 빈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주정부들은 고아, 노인,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입법화하기 시작했다. 대공황이 몰아쳤을 때 주와 지방정부 원조는 더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1935년에 연방정부는 뉴딜정책의 일부분으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런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중 어떤 것도 빈민과 악사를 제거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 존슨대통령은 풀뿌리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수백만불을 쏟아부음으로써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medicaid, medicare 프로그램과 food stamp 프로그램 등이 1960년대 만들어졌으나 수백만명이 빈민으로 남았다. 복지권리운동이 발생했다 사라져갔으며 미국인들은 방위비 지출을 앞지르는 복지지출이 급격한 증가를 국가예산의 변화에서 목격했다.

복지의 팽창은 많은 이유 때문에 야기되었다. 직업을 얻기 위해 도시로 이동한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의존할 가족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이 증가하였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거주필요조건이 1969년 폐지되었고 원조를 받는 것이 보다 쉬워졌다. 1960년대의 복지권리운동은 공적 부조프로그램과 사회보장의 몇몇 지출은 자동적으로 생활비의 증가에 따라 증가됨으로써 이것은 또한 복지비를 증가시켰다.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수많은 편부모가정이 증가하였고 일반적으로 빈곤과 복지욕구가 가장 큰 여성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복지에 대한 많은 지출때문에 환상을 깨게 되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복지정책들은 정치적 갈등의 초점이 되었고 보다 보수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다. 두 번의 확실한 대통령 선거승리를 거둔 레이건 대통령은 많은 연방복지 프로그램들을 통합, 정리하고 지출을 감소시키고 많은 복지프로그램의 자격규정을 강화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또한 수많은 다른 경제개혁을 도입했다. 이러한 개혁들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 자극을 받는 과세율이 얼마인가에 대한 확실한 경제이론들에 기초하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프로그램은 화폐공급의 증가를 연착륙 시키고 세금을 삭감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며 동기부여를 증가시키려는 의도였다. 또 다른 레이건 계획의 중요한 측면은 어떻게 복지비용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의 상당부분을 주정부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그가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고 진실한 빈곤자에 대한 원조를 계속한다고 서약했지만 많은 비판자들은 그가 빈민을 뒷받침하는 균형예산을 시도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비록 정확한 원인들을 지적하기가 어렵지만 경제는 레이건이 취임한 뒤에 개선되었다. 인플레이션은 수그러들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현상의 일부일 뿐이다. 빈민의 수도 또한 늘어났으며 연방적자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대통령은 복지지출에 대해 보다 많은 삭감을 주장한 반면 그는 방위비 지출을 계속해서 옹호했다.

결국 오늘날 미국의 복지정책의 흐름은 보편주의로 갈 것인가, 계속적으로 선별주의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7. 캐나다(CANADA)의 지방자치

### (1) 개 요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44배에 달하는 광활한 국토를 갖고 있으며, 수력, 석유, 철, 석탄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인구는 우리의 약 2분의 1에 해당하는 2천3백49만9,000명뿐이다. 국민소득은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국토의 41%가 삼림, 6%가 농경지이며 그 이외의 부분은 황무지가 많다.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전력 등이 풍부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수지는 수출초과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최근에는 석유의 수입량이 수출량을 상회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낙관할 수도 없다. 니켈, 아연, 유황을 비롯한 광물의 산출, 소맥이나 목재의 수출 등 이러한 천연자원을 배경으로 한 종이펄프업, 금속제련가공업, 게다가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의 폭넓은 제조업을 자랑하고 있다. 취업인구 구성은 제1차산업 5%, 2차산업 25%, 3차산업 70%이며 GDP 구성에서도 1차 4%, 2차 28%, 3차 68%로 미국이나 유럽 여러나라들 이상으로 현저한 3차산업화가 진행하고 있다.

전국 당초부터 영국계와 프랑스계 이민과의 사이에서 대립항쟁이 계속되었다. 현재는 그 밖의 나라들로부터의 이민빈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민족 구성을 살펴보면 영국계 45%, 프랑스계 29% 외에 독일,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중국, 일본 계통 등의 사람들 그리고, 원주민인 인디안이나 에스키모를 비롯한 다민족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계 주민이 주류를 이루는 퀘벡주에 있어서의 독립운동 등은 캐나다의 국성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체로서는 영연방의 일원인 입헌군주국이며, 국기 원수는 영국 국왕이다. 이로 인해 형태상으로는 영국 국왕이 임명하는 총독이 통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총독의 권한은 상징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는 연방정부의 수상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 연방국회는 이원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공신의 하원과 수상선임에 의한 상원으로 나뉘어진다. 연방정부는 의원내각제에 의해 구성되는 내각을 중심으로 하여 연방을 행정집행을 담당한다. 연방국회 레벨에서의 정당으로서 자유당과 진보보수당이 2대정당이며 그 외에 신민주당, 사회신용당이 있다.

### (2) 지방제도의 구조

#### 1) 주마다의 지방제도

연방제 국가인 캐나다에는 10주와 2개의 연방직할령이 존재하고 있다. 지방제도의

형태를 정하는 것은 이들 주정부이며, 주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주에 있어서의 지방제도는 각각의 지역에 있어서의 인구나 자연조건뿐 아니라 식민연대나 이입민의 출신지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국토에는 사람들이 거의 희박하게 밖에는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 많으며, 주 내의 그와 같은 지역은 주정부의 직할지가 되어 지방단체가 전혀 두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지방단체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을 정하는 방식도 주에 따라 각양각색이다.

온타리오나 뉴펀들랜드에서는 주내의 모든 지방단체에 적용되는 단일한 법률이 있음에 비해, 마니토바에서는, 대규모 도시에 대한 개별 법률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한 공통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퀘벡이나 사스키체완 등의 주에서는 지방단체의 유형마다에 각각의 법률이 정해져 있다. 게다가 대도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현장이 부여되어 있는 주도 많다. 따라서 약 4,400에 이르는 지방단체의 유형, 권능, 내부 조직 등 모든 면에 걸쳐서 유추나 부주의한 일반화를 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주의할 요한다. 또한 도시에 현장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어서와 같은 「홈 룰 현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나라의 제도에서부터의 유추도 반드시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 2) 지방행정단위의 편성

### ① 일단계제와 2단계제

지방행정 단위의 편성방식으로는 온타리오 및 퀘벡 양 주에서 기본적 단위와 광역적 단위로 구성되는 2단계제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 밖의 주에서는 1단계제가 취해지고 있다. 단, 노바 스코티아주와 알베타주에서는 1단계제를 기초로 하면서 광역적인 구역이 실정되어 있어 복잡한 형태를 이루고 있다.

### ② 도시적 자치체와 농촌적 자치체

기초적 지방행정 단위는 주에 따라 각양각색의 명칭이 붙여져 유형화의 방법도 가지각색이나, 극히 개괄적으로는 도시적 자치체와 농촌적 자치체로 대별(어느 쪽이나 보통명사)되는 것이 통례이다.

지방적 자치체에 붙여지는 명칭은 통상 시, 타운, 빌리지이며 그 구분은 대략 인구의 다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들 사이의 변동은 큰데 예컨대, 「시」가 되는 것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남자 인구 100명 이상이면 가능한데 비해서 온타리오주에서는 인구 1만5,00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등 극히 다양하다 하겠다.

농촌적 자치체에는 주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온타리오 주에서는 다운십, 퀘벡에서는 페리쉬, 브리티시 콜럼비아에서는 지구자치체, 맨토바, 사스카체완 및 알버타에서는 자치지구라 불리는 자치체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노바 스코시아와 알버타양 주에는 1단계제 중에서의 광역적 자치체로서 카운티라 불리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 ③ 광역적 행정단위

온타리오 및 퀘벡 양 주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적인 지방행정 단위는 카운티라 불리고 있다. 단, 시의 구역 및 온타리오 주에 있어서의 몇 개 구니의 구역에는 카운티의 행정권한이 미치지 않고, 1/1 한도내에서는 1단계제의 지방제도를 이루고 있다. 이 카운티는 어디까지나 노바 스코시아 및 알버타 양 주와는 다른 2단계제 중에서 기초적 지방자치체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행정단위이므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 ④ 특별한 도시자치체

대도시 중 수도인 토론토(온타리오주)와 맨토바주의 위닝팩 양 도시에 있어서는 특별한 대도시 제도가 있다. 전자는 토론토 도시권자치체, 후자는 대위닝팩 도시자치체라 호칭되어 각각의 도시권역 정체를 커버하는 도시자치체 자신 및 보다 작은 부차적 자치행정단위의 2단계에 의해 지방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 3) 도시적 자치체

### ① 권능

자치체에 주어지는 권능의 내용은 주법이 정하는 방식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도시적 자치체의 권능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는 개개의 단체마다에 엄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극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공중보건위생, 레크레이션, 농림어업, 경찰, 소방, 교육, 병원, 사회복지, 주택, 시가지재개발 등등의 분야에 걸쳐 있다. 이러한 행정분야 중에서도 예컨대, 뉴 펀들랜드에서는 경찰·소방이 주정부의 소관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전국이 공통된 사무분배 패턴으로 되어 있지 않다.

### ② 의회와 수장

도시적 자치체에는 입법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 쌍방을 시나는 공신의 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의회는 적은 곳에서는 겨우 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도시자치체도 있는 한편, 몬트리올(퀘벡주)과 같이 50명 가까운 의원이 있는 곳도 있으나, 7내지 20명 정도가 동례로 되어 있다. 의원의 임기는 단체에 따라 다르며, 1년 내지 3년 이나 임기 2년 이상이 곳에서는 정수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이 매년 개선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단체도 많다.

도시적 자치체에 있어서의 행정집행부문의 수장은 공선되며, 시장 또는 읍·면 의장이라 불리운다. 시읍면장은 의회의 멤버도 되며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지는 한편, 정치적 리더로서 정책을 제창하고 행정집행의 총합조정을 담당, 의식 등에 즈음하여 자치체를 대표한다. 단지 수장의 권한 등은 각 주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각색이며 퀘벡, 마니토바,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여러 주에 있어서와 같이 어느 정도는 의회의 의결에 대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는 곳도 있으나 그 이외의 주에서는 특별히 강력한 입장이 많은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한편 토론토 및 위니펙에서는 수장은 의회 내부에서의 호선에 의해 선출된다.

### ③ 내부조직

내부조직의 구성은 대별하여 4개의 유형으로 나뉜다.

(ㄱ) 의회-위원회 방식 : 이방식은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형태이다. 의회에는 행정분야에 대응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위원회가 사무조직을 지휘하여 구체적 행정집행을 담당한다. 즉 위원회는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 각종 사안을 보조검토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그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수는 단체의 규모 등에 따라 다양각색으로 3내지 8정도인데 6~7위원회가 평균으로 되어있다. 이 방식하에서의 수장은 의회 의장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다. 또 특별 안건에 대해 조사 보고하는 특별위원회도 이따금 설치된다.

(ㄴ) 의회-커미셔너 방식 : 이방식은 공선 의회가 그 멤버 이외 중에서 행정 전문가를 커미셔너(상근)로서 임명하고, 행정사무가 집행을 맡게 하는 방식으로 사스카체완이나 알버타 주의 큰 도시 등에서 채택되고 있다. 커미셔너는 1명 또는 수 명인데 사부부문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하는 동시에 예산을 집행하고 내부조직을 행하며 정책적 사항에 대해 의회에 조언한다.

단체에 따라서는 커미셔너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수장으로서의 기능과 커미셔너로서의 기능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2명의 커미셔너가 수장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주로 행정관리나 재정 등의 사무부문을, 다른 한 명이 공공사업 등의 기술부문을 담당하여 수장과 더불어 3명이 중추관리를 맡는다. 의회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는 것은 수상이지만 2명의 커미셔너도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고, 요청에 따라서는 정보의 제공이나 조언을 할 수가 있다.

(ㄷ) 의회-지배인 방식 : 이는 의원 수 10인 이하의 작은 단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의회가 사무집행부문의 장으로서 행정 전문기인 지배인을 임명해 의회=정책결정, 지배인=행정집행이라는 일단의 역할분담에 의해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의회는 조례의 제정, 예산의 결정, 지배인의 임면이라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행하며 예산안의 작성, 경비의 지출, 사무부문의 관리, 사무직원의 임면을 비롯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작성이나 정책안의 세안 등은 지배인의 임무로 하는 것이다.

한편, 단체에 따라서는 행정 각 부의 위에 자리하는 총합조정역으로서의 지배인은 임명하지 않고 총무부문의 상이 지배인과 동일한 기능을 사실상 담당하는 곳도 있다. 또한 이 방식은 프랑스계의 국민이 정치적으로 우위인 지역에 있어 비교적 많이 수용되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ㄴ) 의회-이사회 방식 : 이는 특히 온타리오주의 도시적 자치체에 많이 보여지는 방식이다. 먼저 수장 및 4인의 이사가 해당자치체의 전구역을 선거구로서 공선하여 이사회를 구성한다. 이사회의 장은 수상이다. 한편, 구역을 분할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의원에 의회 의회가 구성되는데 이사회의 멤버는 의회의 멤버가 되기도 한다.

이사회와 의회와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법에 따라 명확한 권한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사회가 정책형성을 담당, 의회가 그를 심사, 승인한다고 하는 분담이다. 이사회의 권한은 행정 전반에 걸쳐 사무 각 부를 지휘하여 총합조절을 행한다. 또 이사회가 제안하는 예산에 관련된 의안이나 사무 각 부의 장인 직원의 임면에 관한 의안을 의회가 부결하는 데는 3분의 2의 특별 다수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등, 이사회의 권한이 보호되고 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의회 3분의 2이상의 다수에 의해 이를 두지 않는 것도 인정되어 있다. 또한 도시 이외의 자치체에도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임의로 들 수가 있다.

#### ④ 특별행정위원회 등

많은 도시적 자치체에 교육, 공익사업, 공공교통 등의 행정분야에 대해, 공선 또는 임명에 의한 특별한 행정위원회가 두어져 있으며 특정목적 이사회라든가 행정위원회라고 불리고 있다. 이러한 조직은 자치체의 일부이면서 상당히 독립된 지위를 얻어 담당분야의 행정을 맡고 있으며 또한 자치체 행정에 대하여 전문가나 지도적 시민의 참가를 촉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있다.

#### 4) 농촌적 자치체

농촌적 자치체의 권능은 도시적 자치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주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농촌적 자치체의 권한이 도시적 자치체와 동일한 곳도 있는 한편, 역시 보다 좁은 곳도 있다.

농촌적 자치체에도 공선의 의회가 있고 정수는 많아도 12명 정도, 임기는 과거에는 1년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2년으로 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있다. 수장은 공선에 의해 선출되어 도시적 자치체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장이 된다. 농촌적 자치체의 행정집행은 파트타임의 직원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며 공선의원 자신이 사무의 세부에까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 5) 광역적인 행정단위

##### ① 권 능

온타리오 주 남부 및 퀘벡 주에는 광역적인 지방행정 단위로서 카운티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 권능은 광역적 도로, 감옥 및 재판소의 건설과 운영관리, 양로원, 도시등기 및 공중보건위생 등이다. 쿿에 따라서는 카운티가 지방세인 과세대상 자산의 평가나 광역적 기본계획의 책정 등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러한 예는 적다. 카운티는 스스로 직접 조세를 과할 수는 없으며 구역 내의 기초적 자치체가 징수하는 세에 부가하여 필요한 조세수입을 얻고 있다.

또한 알버타 및 노바 스코시아 양 주에도 「카운티」라 불리는 지방행정 단위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1단계제 속에서의 소관 구역이 넓은 기초적 자치체이며, 온타리오나 퀘벡 주에서 말하는 「카운티」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 ② 내부조직

카운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내부조직은 카운티 의회인데, 직접공선제에 의하지 않고 소관구역 내의 기초적 자치체의 의회 멤버 중에서 간접선거에 의해 뽑힌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은 통상은 각 자치체의 수장 및 부수장이다.

카운티 의회에 있어서의 대의원수는 구역 내의 자치체 수에 따라 다르며 또한 각 대의원의 임기도 선출 보채인 자치체 의회의 임기에 따르므로, 동일 카운티에서도 1~2년이라는 폭이 있다. 카운티에 있어서의 행정부문의 장은 관리관이라 불리며, 매년 대의원 중에서 호선된다.

##### ③ 카운티 협의회

퀘벡 주에서는 인접한 2개의 카운티가 합동하여 카운티 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다. 이는 각 카운티의 관리관 및 그 밖의 2명의 대의원에 의해 편성되어, 인접 카운티

간에서의 각종 문제를 협의하는 장이며 광역적인 과제의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6) 토론토 도시권

### ① 2단계제

수도 토론토에 있어서의 인구 집중에 의한 도시권역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1953년에 13개에 이르는 기존의 기초적 자치체의 구역을 포괄하는 광역적인 연합체로서 토론토 도시권 자치체가 설립되었다. 1967년 이르러 권역 내의 자치체는 합병되어 그수를 6개 단체로 줄이고, 이에 대응하여 토론토 도시권 세도에도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토론토 도시권은 2단계제의 지방행정조직을 취하고 있으며 기초적 자치체로서 토론토시 외에 북요크, 스카버라, 에토비코크, 요크 및 동요크의 6단체가, 또 광역적 자치체로서 메트로 토론토가 있다. 메트로 토론토의 의회는 구성 6단체의 인구의 과소에 따라 분배되어진 평의원 40명에 의해 구성된다. 온타리오 주에 있어서의 자치체 선거는 2년에 1회, 전 주 통일된 월일(현재는 11월 둘째 월요일)에 실시되는데 이로서 메트로 토론토 회의로 6개 단체에서 보내야 하는 평의원도 결정되어 12월 15일까지는 메트로 런던 의회가 개최되어서 의장의 선임 등이 행해진다.

### ② 사무배분

토론토 도시권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서비스는 지방적, 권역적 또는 합동적 사무로 분류되어 각각 기본적 자치체, 메트로 폴리탄 또는 쌍방이 소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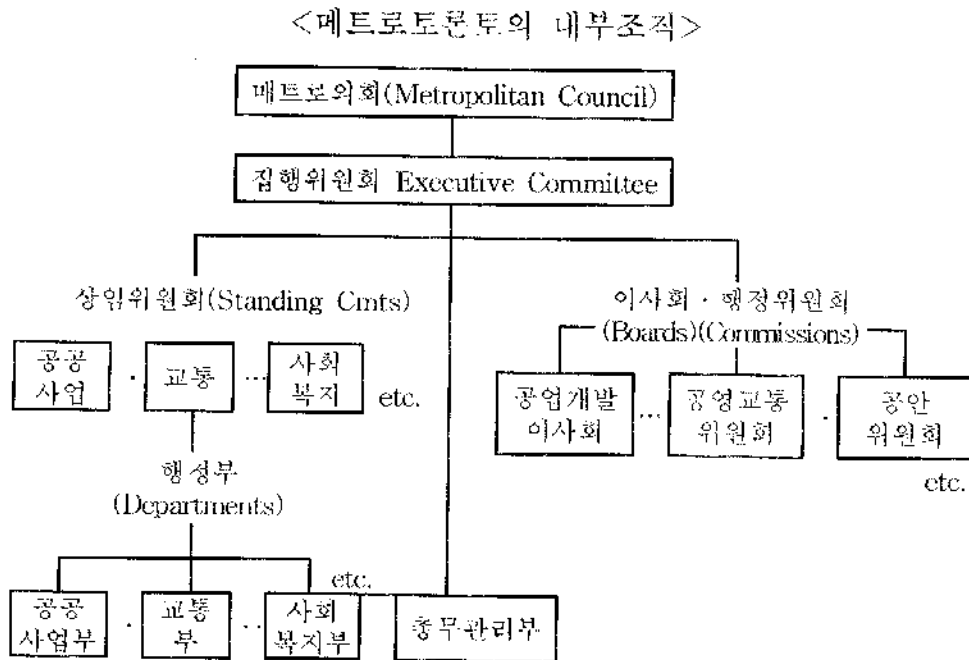
메트로 토론토가 소관하는 권역적 사무로서는 구급, 고속도로 및 주요간선도로, 폐기물 처리, 기간적 도서관, 영입의 허가와 감사, 대규모 공원, 공영 골프장, 경찰, 공영교통, 교통규제, 사회복지, 수도용수 공급 등이 있고 계획 및 개발규제, 세설, 병원조성 등은 합동적 사무로 되어 있다. 기초적 자치체는 그러한 것들 이외의 사무, 즉 건축규제, 소방, 폐기물 수집, 상수도(말단급수), 공중위생, 가로, 지방세의 징수 등을 맡고 있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는 행정특별조직으로서 수도권학교이사회와 지구학교이사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메트로 토론토 등의 총합적 행정주체로부터 독립된 입장에 있다.

### ③ 내부조직

메트로 토론토의 내부조직은 복수이나 내략적인 면에서 나타내면 그림 2-6과 같은 특별한 형태의 「의회-이사회」 방식이 되어 있다. 먼저 의회 아래 14인의 멤버로 구성된 집행위원회가 있으며, 메트로 토론토에 있어서의 행정 총합조정을 맡고 있다. 이 멤버는 기초적 자치체 6단체의 인구에 따라 할당되어 있으며 의회에 보내진 평의원 중에서 주요 인물이 선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집행위원회 아래

의회 상임위원회가 공공사업, 도로·교통, 사회복지 등의 분야별로 6개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업 개발 등을 소관하는 이사회, 공영교통이나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위원회가 다수 설치되어 있다.



상임위원회의 멤버는 모든 의회의 멤버인데, 이사회나 행정위원회의 경우에는 의회 멤버 이외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통례로 어느 정도 독립된 조직이 되어 있다. 어떤 사무를 상임위원회의 소속으로 할 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나 행정위원회의 소속으로 할 지에 대해서는 획일적인 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영교통, 동물원, 박람회장 운영의 사무적 분야, 경찰, 허가제 등의 정치적 중립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이사회나 행정위원회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3) 중앙-지방관계

캐나다의 연방국가이며, 지방자치체는 연방정부의 것이 아닌 주정부의 창조물이다.

연방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체로의 직접적인 관여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어 있으며 특히 프랑크제주민이 많은 퀘벡 주의 존재가 연방정부의 손에 의한 집권화의 움직임의 전제하는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주정부에 의한 지방자치체의 통제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먼저 지방자치체의 활동은 주법이 명시하는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원권행위」의 법리가 영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도 사치체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行財政的 컨트롤은 주정부의 지방제도 소관부(Department of Municipal Affairs 등이라 불린다)가 중심이 되어 각 행정분야의 소관부와 함께 행한다. 사스카체완이나 알버타 등의 주에서는 주의 감독관이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체의 감독역으로서의 카다란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주정부는 지방자치체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대한 주민으로부터의 불복신청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인구 11만명 정도의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주를 제외, 9개의 주에 각 주마다의 주정읍부즈망을 두고 있다. 주정읍부즈망의 권한은 주정부의 행정에 관련된 불복신청의 심사에 한정되는 것이 많으나 노바스코시아 및 뉴 브런즈윅 양 주에서는 지방자치체의 행정에 그 권한이 미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 (4) 지방정치

캐나다의 지방자치체는 미국에 있어서 만큼의 정당정치 침투는 보여지지 않고 있다. 정당은 확실하게 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를 지원하나, 많은 사람들은 일단 무소속으로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쪽을 선호한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공무원의 입면에 있어서도 미국에서 볼 수 있는 엽관제도 없어 정당의 보스는 출현하기 어려운 토양이 되어 있다.

지방자치체 행정에 있어서 공선에 의한 주민대표(의원) 이외의 사람들의 영향력은 미국 만큼은 아니나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져 압력단체, 각종 민간조사연구기관, 신문 등 지널리즘이 수행하는 역할이 중시된다. 또한 주민 자신이 자치체 행정에 관한 관여의 정도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이력나라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8. 캐나다의 지방재정

### (1) 세세의 변천과정

연방국가로 캐나다가 성립된 것은 1867년 7월 1일 영국령 북미법의 발효에 의해서이지만 그 이전에 모든 식민지가 각각 고유의 관세를 갖고 있어 관세가 이들 식민지의 주요 수입원이 된 것 외에 간접세를 중심으로 하는 약간의 내국세를 각각이 독자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직접세가 적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소득이나 토지를 부과대상으로 한 과세를 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영국령 북미법은 그 제1조에서 “방법 혹은 제도의 잘못을 묻지 않고 조세에 의한 금전의 징수”를 연방의 권한으로 하여 주에 대해서는 “직접세”를 부과하는 권한만이 남겨졌다. 이와 같이 캐나다는 이웃 미국에 비해 과세권에 관한 권한을 굉장히 크게 했다. 덧붙여 말하면 이 영국령 북미법 제1조는 이 외에도 연방 및 주의 권한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권한을 전부 연방에 부여하고 있는데 이와같이 연방에 큰 폭의 권한을 인정한 것은 합중국 헌법에서 주의 권한을 크게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던 미국과는 반대로 그 직전까지 남북전쟁(1861~1865년)이 행해져서 영국령 북미법의 기초자들이 연방정부에 될 수 있는 한 권한을 집중시키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후 잠시 동안, 연방은 간접세에, 주는 연방의 보조금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으나 연방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에 “전시소득세법”을 도입한 것을 근거로 하여 1935년에는 증여세, 1941년에는 상속세를 과세하기 시작하고, 또한 1924년에 연방매상세를 도입했다. 한편 주는 1880년대 이후 상속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었고 또 1920년대에는 가솔린세를 그리고 1936년에는 소매매상세를 각각 “소미지구입세”라는 형태로 “직접세”로 도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소매매상세는 그 후 주의 주요 세목의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연방 발족 당초에는 깔끔한 형태였던 캐나다의 세제는 시대의 추이와 함께 굉장히 복잡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것에 대해 캐나다 전체의 세제 간소화, 정비를 행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40년의 “연방·주관세에 관한 왕립위원회”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상속세의 과세권 모두를 연방정부에 이관하는 뜻의 제안을 하였으나 몇몇의 주기 거부해 취소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중 각 주는 이들 세목을 부과하지 않을 것을 동의했으나 대전후 다시금 과세권을 쫓는 싸움이 일어나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와의 사이에 “조세임차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

다. 그러나 각 주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많았고 또 195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주가 소매매상세를 도입하는 등 세제는 더욱더 복잡화되어 갔다.

1962년 9월 당시 캐나다 후생회의 의장이었던 케네스 카터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제에 관한 왕립위원회가 설립되어 캐나다의 세제 전반에 걸친 조사가 행해졌다. 그리고 이 위원회는 1966년 12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카터리포트는 당시의 캐나다 세제를 엄격하게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담의 공평원칙에 입각해 포괄적 과세표준에 의한 소득세의 도입을 제안하는 등의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제안한 것이었기에 국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부르고 또 조세의 이론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후 이루어진 1971년의 세제개혁은 이 카터리포트의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때까지 비과세되었던 자산소득의 원천과세화등이 행해졌고 또 유산세·상속세가 이것에 맞춰 폐지되었다.

그후 1984년의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성립한 마르르니정권은 경제·세정개혁을 우선 과제로 해 작은 정부와 민간활력의 활용을 기동으로 하는 “경제재생계획”을 책정해 그 실현을 꾀했다. 세제개혁도 그 일환으로 행해져 정부는 1986년 7월에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할 것을 표명하고 다음해인 1987년 6월에는 세제개혁의 전체상을 화이트페이퍼라는 형태로 발표했다. 화이트페이퍼에서는 세제개혁의 이론으로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경제성장의 촉진, 세제의 간소화 등이 기론되어, 전년에 행해진 미국의 1986년 세제개혁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여겨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화이트페이퍼의 정돈된 형태로 1988년 이후 대규모의 세제개혁이 일어났다.

우선 1988년에는 세제개혁의 제1단계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세율인하와 과세기반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특히 개인소득세의 세율구조 개혁은 그때까지 6~34%의 10단계에서 17%, 26%, 29%의 3단계로 바꾸는 대폭적인 것이었다.

또한 법인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36%에서 28%로 인하되었다. 한편 과세기반의 확대를 위한 조치로는 자본이득세의 강화나 교제비과세의 강화, 감가상각분의 감축등이 취해졌다.

화이트페이퍼에서는 세제개혁의 제2단계로 연방매상세의 개혁을 제안하고 있었다. 연방매상세에서는 종래보다 과세기반이 좁고 서비스에는 거의 부과되어 있지 않은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과의 구별이 어렵다. 세율이 복수인 관계로 집행비용이나 납세비용이 크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화이트페이퍼에서는 연방매상세와 각 주의 소매매상세를 폐지하고 연방과 각 주가 공동으로 집행하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화이트페이퍼 발표후 연방과 주와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989년 봄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방정부는 연방 단독으로 매상세제도의 개혁을 하기로 하고, 윌슨 재무부장관은 1989년 4월의 예산연설에서 1991년부터 연방 매상세 대신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 그후 그해 8월에 개략이 발표되었으나 세율(9%)이나 과세대상에 관한 국면의 비판이 강하여 11월 하원재정 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아 12월에 세율을 7%로 하는 등 정부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그후 법안은 1990년 1월에 하원에 제출되어 상하양원의 심의를 거쳐 12월 17일에 성립, 1991년 1월 1일부터 재화·서비스세가 도입되었다.

그후에는 경기의 후퇴를 배경으로 일정한 정책감세 등이 이루어졌으나 마르르니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했던 것도 있고 해서 세제들의 개혁을 포함하는 커다란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3년 3월에는 마르르니수상이 사의를 표명, 당년 6월에는 여당 진보보수당의 신어성수상인 캠벨이 취임해 이후의 동향이 주목된다.

## (2) 조직과 그 운영

### 1) 입법과 행정조직

캐나다는 영국 국왕(여왕)을 원수로 둔 입헌군주제이고 10개의 주와 2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다. 캐나다의 정체는 대체적으로 영국의 의회제도에 미국의 연방제도를 가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가. 입법조직

캐나다의 입법기관은 국왕과 상원·하원이다. 국왕은 법률상의 재가를 행하는데 총독이 이를 대행한다. 그리고 총독은 상하양원을 통과한 법률안을 반드시 재가한다는 헌법 관습이 성립되어 있다.

상원은 10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상의 조언에 의해 총독이 임명한다. 임명할 때에 각 주에서 선출되는 의원의 정원수가 정해진다. 상원은 재정에 관한 법안과 헌법의 개정에서 하원에 선의결권이 있다는 것외에는 하원과 동등의 권한을 가지나 정부의 법안은 통상하원에서 선의결된다. 최근 상원의 입법활동은 극히 저조하였으나 1990년 재화·서비스세 법안 때에는 꽤 활발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하원은 29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고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다. 임기는 헌법의 법제상 5년으로 되어 있으나 임기 4년정도로 해산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 또한 하원은 의원 이외는 발언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위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원에서 헌법에 관한 심의를 행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인 재정위원회이다.

세법의 개정법안은 우선 하원에 제출되어 본회의에서 심의후에 재정위원회에 송부된다. 그리고 위원회, 본회의의 가결후, 상원에 송부된다.

상원은 총독의 임명에 의한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국정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하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통례이다. 상원이 법안을 가결하면 국왕의 명령으로 총독이 법안을 제가하고 개정법이 성립된다.

#### 나. 행정조직

캐나다에서 조세제도의 기획·입안을 담당하는 것은 재무부이다. 재무부는 통합국고자금의 관리나 재정정책(단, 내각예산국의 소관사무를 제외), 조세정책, 금융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예상의 작성이나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조정도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에는 조세정책국이 있고 이 국이 연방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담당한다. 단, 세입예산의 편성이나 그 때의 세입 추계는 여기서기 아닌 재정정책·경제분석국이 담당한다.

한편, 연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세청이다. 이 국세청은 다시 직접세 담당부문과 관세·소비세담당부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하여 개별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방세 외에 사회보험료의 징수사무도 행하고 있다.

또한 연방과 주와의 징수협정에 의해 연방정부는 협정에 가맹되어 있는 주 소득세의 징수사무도 하게 되어 있다. 현재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10개의 주 중에서 9개주와 법인소득세에 대해서는 7개주의 징수사무를 국세청이 하고 있다.

주세의 기획·입안에 관해서는 각 주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 주소 매매상세 등의 징수도 각 주가 한다. 또한 지방세 제도는 각 주마다 다르지만 세목에 대해서는 주가 정하고 세율의 설정이나 징수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하는 경우가 많다.

#### 2) 연방의 세입·세출

캐나다의 재정제도는 회계연도(4월~익년3월)나 단년도예산주의, 내각의 예산제출권, 하원에 있어서의 심의수속 등 영국의 제도와 공동점이 많으나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의 편성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른 점등 캐나다 독자적 성격을 갖는 부분도 꽤 존재한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세입은 조세수입과 잠수입으로 성립된다. 연방정부는 모든 공급수입은 통합국고기금에 유입된다. 이 통합국고기금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부의 권한이다. 매년도 세출예산의 편성에 맞춰서 세입예산도 편성된다. 세입추계와 세입예산의 편성은 재무부기 한다. 세입에 대해서는 각 년도의 세제개정안이 세입법으로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지만 세입예산 그 자체는 재무부장관이 하는 예

산연설 등 참고자료로서 세입추계액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의결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예산연설은 통상 세출예산안이 하원에 제출되고 나서 1개월 후에 이루어 지는 것이 통례이다. 또한 재정연설의 전날에는 경제~재정의 현상과 전망을 설명하는 예산보고서가 발표된다. 예산연설은 마지막에 필요에 따라 그 연도의 세제 개정안의 개요와 그 심의에 들어가기 위한 세입동기를 제출한다. 하원은 통상 6일간 심의하고 세입법안의 심의개시를 승낙하는 결의를 한다. 이것에 기초하여 세입법안이 하원에 상정되어 통상 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세입법안이 가결, 성립되면 재정연설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 효력이 발생된다. 단, 매상제나 개별소비세의 개정에 대해서는 예산연설의 시점에서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연방의 모든 공적지출은 통합국고기금에서 지불된다. 그리고 통합국고기금에서의 공적지출은 전부 세출예산서에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세출예산은 다시 통상의 세출예산과 유지·출자로 나뉘어 그 안에서 각각 의정항목과 기정비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의정항목은 신규시책이나 단년도의 지출이 중심이고 그 지출에 관해서 매년 의결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 의정항목 부분이 세출예산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 기정비는 세출예산법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에 비해 기정비는 세출예산법 이외의 일반법에 의해 지불의 법적근거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그 일반법의 재정이나 수정이 의결되면 지출이 승인되게 되어 정부에 지불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기정비에 대해서는 매년의 의결은 필요하지 않고 기정비는 세출예산서 안에서 그 예상액이 계산에 들어가게 되지만 심의에서 참고사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별개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재무위원회의 사무국인 내각예산국이 담당한다. 단 내각예산국이 실질적으로 편성을 담당하는 것은 기정비 관계의 예산이고 의정항목관계의 예산은 수상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우선순위 결정·계획위원회와 그 하부기관인 4개의 정책부문별 위원회가 각 부청에 지시하여 실질적인 편성을 하여 내각 예산국이 기정비 예산과 병행하여 이것을 정리한다.

내각예산국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매년 2월에 우선 하원에 제출된다.(하원의 선의결권) 세출예산안은 세출위원회로 넘어가 그곳에서 내각예산국장관이 예산 설명을 행한다. 그 후에 세출예산안을 관계되는 상임위원회에 넘어가 각 항목별로 상세하게 심의된다. 심의후 상임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세출위원회에 보고하고 세출위원회는 각 항목 별로 세출예산안을 의결한다. 그리고 하원(분회의)에 상정되어 하원의 의결후 상원을 통과하여 총독이 재가하면 세출예산법이 성립된다.

본 예산이 성립하는 것은 통상 6월이 되기 때문에 3월에는 잠정예산이 편성된다. 또한 보정예산은 매년도 3회까지 할 수가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예비비제도가 없어 매년 가을이나 년도말에 재정된다.

또한 예산의 제출권은 내각에 속한다. 하원은 예산에 대해 수정권을 가지나 금액 수정 혹은 거부만이 가능하고 증액수정은 불가능하다. 또한 상원은 예산의 수정권도 부결권도 없다.

### 3) 지방의 세입·세출

1986년 재산세와 관련된 조세수입은 지방정부 총세입의 37.3% 보조금은 46.9%였고, 수수료 수입은 10.3%, 투자환수금은 2.55%였다.

캐나다 지방정부의 주된 자체재원인 재산세는 본질적으로 역진적·비탄력적이며, 불충분하다고 비판되었다. 재산세수입은 1960년 지방세입의 2/3를 차지했던 데 비해, 1980년대 들어 1/3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1988년 지방조세수입의 79.7%인데, 1980년 82.5%보다 감소한 것이다. 반면 주정부의 재산세 수입은 1980년 수입의 0.4%에서 1.8%로 증가하였다.

세율은 밀단위(1/1000)로 정해진다. 조세기준은 실제 재산의 평가된 가치이다. Ontario주에 있어서 과표는 세입부 직원에 의해 정해지는데, 이는 자유시장에서 구입자와 판매자가 기꺼이 지불하는 재산가를 반영한다. 교회, 묘지, 박애 및 비영리기관, 사립학교소유의 재산은 조세가 감면되고 정부소유재산은 세금 대신에 상급단위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Alberta와 같은 다른 곳에서는 시정부가 과표를 결정하며, 주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조세감면대상을 설정할 수 있다. 보조금수입의 크기는 주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1980년대 초 British Columbia의 28%에서부터 Prince Edward Island의 80%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1986년에 보조금의 88%는 특정적, 조건적이었다.

Ontario주의 경우 지방정부 및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16개의 주부처에 의해 이루어졌다. 111종류의 보조금과 6종의 부담금형태의 보조금이 있다.

1970년대 Ontario주는 일반적 지원을 위한 무조건적 보조금, 사원균등화 보조금, 인구희소지역에 대한 특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970년대 말 Ontario주정부는 재정지원을 총재원 성장률에 연계시키려던 시도는 실패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원은 부정기적으로 정해졌고 이에 시정부는 이 결정전까지 예산매분 결정을 미루어야 했다. 1980년대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기획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격차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차입은 주정부에 의해 엄하게 제한되어, 주정부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러나 1980년대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같은 재정위기는 없었으며, 1983년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위기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1990년대 초 경제침체로 이전에 지방정부수입에 기여했던 경제 성장요인을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딜레마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과감한 감축과 주재정정책의 급진적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3) 세 체계의 특징

#### 1) 개 관

캐나다세제의 특징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기타 연방국가와 달리 연방국가로서는 연방정부의 과세권이 크고 그런 의미에서 제도상으로는 중앙집권적이라는 것이다. 전술했으나 연방정부에 일반적인 과세권을 부여한 영국령 북미법 제91조의 생각은 1982년의 신캐나다헌법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승되고 있고 캐나다세제의 커다란 특징의 하나로 현재도 남아있다.

제2의 특징으로는 소비에 대한 과세가 이중, 삼중으로 행해지고 복잡한 제도로 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종래, 캐나다에서는 연방이 매상세를 부과하고 다른 한편에서 주는 소매매상세를 부과하고 있었던 것 외에 연방·주 쌍방에 각각 별개의 개별소비세나 물품세가 존재하고 있었다. 연방은 1991년부터 연방매상세에 대신에 재화·서비스세를 도입했으나 제도는 여전히 복잡하다.

제3의 특징으로는 1966년에 왕립세제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이른바 카터리포트)의 징동된 형태로 이루어진 1971년의 세제개혁에 맞춰 유산세·증여세가 폐지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유산과 증여자산은 소득세제도 안에서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있다.

#### 2) 세수구성

캐나다에는 과세주체에 대응하여 연방세, 주세, 지방세가 있다. 구중에서 연방세는 현재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재화·서비스세, 자본세, 개별소비세, 물품세 등이 있다. 한편 주세에는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매매상세, 가솔린 세, 담배세, 주세, 자본세 등이 있다. 또한 시군에는 지방세로서 독자적으로 부동산세, 영업세 등을 부과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세는 시군의 주요 재원이다.

#### 3) 지방세(주세)

개인소득세는 연방과는 별개로 각 주·준주도 과세하고 있다. 퀘벡주 이외의 주·준주의 개인소득세는 연방의 개인소득세액(부가세액을 제외한)에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다. 한편 퀘벡주의 개인소득세는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이 연방세와 달라서 그 과세소득에 대해 직접세율을 적용한다.

그 외 대부분의 주에서는 산출한 주 개인소득세액에 대해 다시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한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준주가 주 개인소득세의 징수를 연방에 위임하고 있다.

각 주·준주는 법인소득세도 독자적으로 부과한다. 법인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연방 법인 소득세액이 아니고 부과소득에 대해 직접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각 주·준주도 표준세율외에 소규모 사업버인에 대한 경감세율을 설정하고 있고 또한 제조·가공업 법인에 대한 경감세율을 두고 주·준주가 주법인소득세의 징수를 연방에 위임하고 있다.

소매대상세는 앨버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부과되고 있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접세”의 과세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소매대상세는 “그것을 지불할 의도를 가진 자에게서 징수하는 직접세라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률상의 납세의무자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구입자 등이고 소매업자는 주정부의 대리인으로 소매대상세의 징수·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다.

소매대상세는 원칙적으로 소매단계의 매상일반에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기초식료품이나 의류등의 생활필수품이나 인쇄물, 의약품, 농어업용구 등은 모든 주에서 비과세하고 있다.

세율은 각 주마다 달라서 4~12%로 되어 있다. 또 연방의 재화·서비스세액을 과세표준에 넣는지에 대해서도 각 주마다 달라서 캐나다의 매상제제도를 복잡하게 하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자본세는 캐나다의 10개주 중에서 6개 주가 법인·일반에 대해 그 자본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은행이나 신탁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주에서 금융기관자본세를 부과하고 있다.

## 9. 미국·캐나다 노인복지시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맞으면서 노인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으며 노인복지 수요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정부에서는 민간기업도 유료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93. 12. 27자로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에따라 선진국의 현대적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의 파악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노인복지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정책반영에 도움을 얻고자 미주 지역을 전격하게 되었다.

### (1) 미국 노인복지시설 소개

#### 가. 전문 노인요양시설(SLEEPY HOLLOW MANOR)

미국의 실버회사인 비벌리 기업이 경영하는 요양시설로서 23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85명의 직원과 100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수용인원보다 원등히 많은 수의 종사자들이 노인을 세밀히 보살피고 있다.

거동불편 또는 치매현상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따라 전문요양보호나 중간요양보호로 구분하여 치료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일일 110~145\$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상적인 치료요양은 물론 오락·건강 프로그램과 언어장애치료, 치료식이요법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의 추가비용을 부담하면 의약품 제공이나 특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나. 노인전용아파트(ANGELUS PLAZA)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전용 아파트로서 미국 주택개발국과 주정부의 보조에 의해서 저소득노인을 입주시킬 목적으로 1980년에 설립되었다.

입주자격은 62세이상의 노인으로서 연평균 수입 10,000\$미만의 저소득층 노인이라야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보증금은 없으며 매월 임대료만 지불하면 되는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방세가 다르나 평균 월소득의 25%를 지불하게 되어있다. 현재 총 1,093개의 거실에 1,243명의 건강한 노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복지회관, 운동시설, 식당은 지역노인을 위한 시설로도 개방된다.

#### 다. 소규모 노인전용아파트(TERRY MANOR)

로스엔젤레스 한인 밀집지역인 버본트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노인을 위한 정부보조 노인전용 아파트로서 흑인과 아시아계 노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당수의 한국노인이 입주하고 있다. 주로 미국의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로 입주보증금은 없고 소득수입에 따라 일정비율의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

#### 라. 유료노인 주택단지(SUN CITY WEST, CARILONS)

미국의 실버산업 재벌그룹인 DEL WEBB사가 경영하는 세계최대의 노인 촌락인 SUN CITY는 미국내 피닉스시를 비롯하여 여러곳에 설치되어 있다. SUN CITY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노인주택 모델을 설치하여 5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7,000에이커의 광대한 대지에 현재 약 13,500개의 주거홈이 있으며 약 2,000명의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각종 오락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실내·외 수영장, 테니스코트, 헬스클럽, 경찰서, 소방서 등 부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

CARILLONS은 SUN CITY에 위치하고 있으며 1년단위 입주계약으로 월사용료로 평균 1,100~1,400\$를 부담하여 은행, 개인참고, 버스운행, 관광, 쇼핑센터, 당구장, 영화상영, 도서관 등 부대편의시설과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 (2) 캐나다 노인복지시설 소개

### 가. 노인종합전문보호시설(BAYCREST CENTRE FOR GERIATRIC CARE)

70년이상의 전통을 지닌 캐나다 최대 노인종합병원 시설의 하나로 건강한 노인이 거주할 수 있는 입주시설로부터 병약한 노인을 위한 용양시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다. 1,700명의 의사,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하루에 2,000명이상의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아파트, 탁노소, 주간 및 단기보호, 외래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건강카운셀링, 정신과병원, 노인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요양원, 영안실 등 노인에게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토론토 대학과 교류를 맺어 학생과 직원들은 상호 기술습득과 경험 축적으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끝으로 핵가족화 사회에서 노인을 보살피는 일은 가족 기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 캐나다의 노인복지시설 시찰을 통하여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라와 시설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입주노인들의 취미·오락활동을 돕기위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취미·오락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그곳에 사는 노인들은 각기 자신의 취향에 따라 여가활동을 즐기면서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양로원, 요양원이나 노인정 등 노인복지시설은 많지만 ‘소프트웨어’ 즉 운영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운영(여가활동 포함)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에 많은 노력과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종사자,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확보도 시급한 과제로 여겨진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금년부터 민간기업의 유료 노인시설에 활발한 참여가 예상되므로 이 분야에 오래전부터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선진국의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시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노인보호 대상의 세분화 작업이나 노인복지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대학과의 교류 등이 우리나라에도 도입할만한 제도로 보이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연 수 내 응

### III. 연수내용

#### 1. 레드후크 수질오염 조정시설센터(RHWPCP)

##### 뉴욕시

<p style="text-align: center;"><b>레드후크 수질오염조정시설</b> <b>(Red Hoo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b></p>
---

RHWPCP는 뉴욕시의 5개 지구(맨하탄, 브롱스, 퀸스, 부루클린, 스테텐아일랜드)로 나뉜 14개 수질오염 정화 센터 중 하나이다.

이러한 14개 시설은 매일 하수의 약 17억 갤론을 취급하고 있다. 이 하수는 NYC가 1696년 시작된 8000마일의 하수도관을 통해서 이동되고 있다.

RHWPCP는 3200에이커를 시브스지역으로 하고 있다.

레드후크처리시설에 의해 얻어진 양질의 수질개선은 보기좋은 잔해, 병원균, 산소소비자등 물질들을 제거한 것들을 포함한다.

RHWPCP는 1일(myd) 건조기후에 하수도 6000만 갤론을 취급하고 우수기에는 그 두배인 12000만 갤론을 처리한다. 전체 오염된 하수도의 85% 제거한다.

##### RH 시설설명

###### 1. 액체 처리공정

- ① 시설유입로
- ② 차단걸름대
- ③ 주하수펌프
- ④ 1차조정탱크
- ⑤ 탄산가스포화탱크
- ⑥ 최종조정탱크
- ⑦ 염소접촉탱크
- ⑧ 시설배수구확산기
- ⑨ 탄산가스포화탱크 위한 송풍기

###### 2. 고체처리공정

- ⑩ 찌꺼기 수집과 제거
- ⑪ 규질사암(돌맹이) 제거

- ⑫ 침전물 농밀화
  - ⑬ 유기체 침지(浸漬)
  - ⑭ 저장(3% 교체)
  - ⑮ 원심분리기
  - ⑯ 고체상태저장(23%)
  - ⑰ 상차
  - ⑱ 선택적고체 처리
3. 시설서비스와 이용시설
- ⑲ 시설입구
  - ⑳ 행정건물
  - ㉑ 조정실
  - ㉒ 희석된 메탄가스 압축기
  - ㉓ 희석된 가스저장 탱크
  - ㉔ 보일러
  - ㉕ 전기공급시설

### 공정흐름도

1. 유입과정 단계 : 하수를 걸함(유입방에서 유입)
2. 정화 단계
3. 1차조정 단계
4. 탄산가스포화 단계
5. 최종조정 단계
6. 소독(살균) 단계

이상의 공정단계를 거쳐 하수를 정화시켜 강에 배출시킨다.

하수유입과정에서 살균, 소독 한후 12~14시간 후 처리하여 강에 배출한다.

하수청결도 즉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의한 박테리아를 배양하여 B.O.D는 80% 되어야 배출이 가능하다.

RHWPCP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탱크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살아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1일 BOD일정수준 유지를 위해서 1일 6시간(박테리아 배양)마다 매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약품처리 역시 6시간마다 실시하고 있다.

현재 RHWPCP에서 배양하고 있는 박테리아는 16종류이며 각 종류별로 균형을

갖게한다. 80년 당시 타시설에서 가지고 온 박테리아가 살아있다고 대단한 지부심을 갖고 있었다. 하수처리 비용은 100갈론당 3센트이다.

현재 공무원을 포함한 연구원은 60명며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는 자가발전에 의해 공급받으며 보일러 없이 난방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정화된 물을 공급해주고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다. 또한 뉴욕시 주변 상수도 공급에 있어서는 Delaware System, Catskill System, Croton System 등 3곳에서 집수하여 공급하는데 80년 이후 썩는물을 80%이상 살려내고 있다. 이곳에서 잡은 광어 등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화하고 있다.

또한 분리3단계 격차를 두고 오염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노즐을 설치 살수하는 것은 박테리아를 키우는데 있어 거품이 생겨 증발되기 때문에 이를 줄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물은 정화되기 직전 단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생물학, 수학, 전기학 등 규정에 관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들로 시간당 22달러 일당을 받는다. 수질의 정화정도에 대해서는 RII관리건물 정면에 인공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물고기와 꽃이 성장하고 있었다. 즉 정화된 하수물로 정원이 가꾸어져 있었다.

특히 제1차 조정조에서 제2차 조정조 사이에 복숭아나무가 있는데 그곳에서 정화된 물로 복숭아 열매가 자라나는 것을 가지직으로 보여주기 위해 열매가 있었다. 한편 주변에 아파트단지과 공장들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시설이 입지되어 있고 정화시설을 전체 청소할 때 냄새가 나기는 하지만 공공시설을 위해서 서로 인내해주고 이해하는 공공심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더욱 빛나고 있었다.

## 2. 국립보건연구원(NIH)

### 메리랜드주

#### (1) 국립보건연구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NII)

- 설명 : 세론그린웨일

NIH는 미국 메리랜드주 베데스다시에 있다. NIH는 25개 연구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NIH는 미국 보건성의 중요한 8개의 건강기구중의 하나이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 ① 국립 암연구소(NCI)
- ② 국립 안연구소(NEI)
- ③ 국립 심장연구소(NHLBI)
- ④ 국립 유전자연구소(NHGRI)
- ⑤ 국립 노령화연구소(NIA)
- ⑥ 국립 알콜남용증독연구소(NIAAA) 등이 있다.

배경 19C 콜레라로 인한 수백만명이 사망하게 되어 평균연령이 45세에서 현재 미국인의 평균연령이 75세이다.

이러한 고령화사회에 따른 국립NIH의 이국전역에 대한 의학연구 필요성이 절실했다. 이런 이후로 NIH가 창설하게 되었고 역대 수많은 대통령이 가장 관심을 갖는 곳이기도 하다. 직원수는 2만명 정도이다.

규모는 320에이커(320×1200평)이다. 현재 75개 빌딩과 병동이 있다. 연간 10만명 환자 이중 통원치료는 5천명 정도이다.

전체 예산중 80%는 의과대학과 병원의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 6만명에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나은 보건복지 환경현동에 집중적인 연구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곳 NII의 지원비를 받아 연구한 사람들 중에 현재 100명의 의학자,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연구실적을 갖고 있었다.

연구영역에 있어서도 기본연구원과 임상연구원이 있어 치료법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질병을 발견, 예방하여 장수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보건복지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청소년, 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전액국비로 무료로 치료하고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노인치료 병원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특이한 신종질병에 대해서 담당의사의 추천이나 본인이 직접 인터넷(www.nih.gov/icd/)을 통해 치료를 신청하면 NIH에서 이를 판단하여 연구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선택지원을 통해 치료한다.

한 예로 담배를 피지 않았는데 폐암에 걸렸다면 이는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환자가 갖고있는 병이 연구대상이 되면 수입에 관계없이 무료로 치료하고 연구한다. 만약 외국인 경우라면 비행기표까지 구입해서 보내주고 치료하는 도중에 생활속에서 임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병원아파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심지어 청소년인 경우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25개의 침실과 1명의 부모가 간호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과 개인교사까지 지원하여 학업을 계속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의료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종질병이 날로 급증하고 환자가 전세계적으로 찾기 때문에 연구센터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일 화제를 대비해서 근처에 전용소방서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NIH의 최종목표는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다. 즉 모두가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복지와 보건의 잘 조화된 정책이며 실천이라 판단되었다.

NIH에 가장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암센터이지만 실제 AIDS에 대한 연구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알콜중독과 남용문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질병, 시력, 인간게놈문제 등 순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서적안정과 심리적 치료를 위한 치유센터인 종교시설을 갖추고(무대가 다양한 종교의식 가능하도록 설계) 시간별로 예배의식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뿐만아니라 레크레이션을 통한 치료, 독서요법(Biblio Therapy)등 다양한 치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영화, 스포츠, 취미 등 다양한 문화활동 등을 통해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병원이라기 보다는 보건복지 천국이었다. 사회의 노약자중심,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더 나은 장수사회를 만들어가려는 특히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들의 노력에 다시한번 격려를 보낸다.

## (2) 문화예술센터(PATIENT RECREATION ACIVITIES)

NIH에 입원하거나 동원치료하는 환자, 가족에게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전개하면서 심리적 안정과 정상적인 문화활동과 문화향수를 통한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PRA는 14층에 있으면 문화,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체육관(Gymnasium), 공예실(Craftroom), 회의실(Conference room), 도서관(Library), 의회(Assmby Hall), 여가센터(Recreation Area), 전시실(Main Lobby) 등을 갖추고 있다.

PRA는 매월 월별 PRA일정표(Calendar)를 제공하여 환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되고 있다.

September 20000

연수단이 방문했던(2000. 9. 7) 날 환자들의 다양한 종교의식이 가능하도록 채플(예배양식)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종교의식이 요일별, 시간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NIH의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1차) 오후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2차) 예술과 공예품 만들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14층 예술공예실)

그리고 체육관에서는 오후 1시3분부터 3시30분까지 당구, 농구 그리고 체력단련실에서 헬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었다. 오후 6시30분부터는 영화를 통한 세계여행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고 있었다.

## (3) 미국의 의료제도

다음은 의료제도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미국의 의료제도(메디케어,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는 미연방정부의 보건후생성에서,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주 정부 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의료혜택이다.

## 1)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수입에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기본적으로 65세 이상인 대부분의 노인들이 메디케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필요한 소셜 시큐리티 크레딧을 예치할 충분한 기간동안 일한 경력이 없는 노인들은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물론 혜택에서 제외된 이들도 매월 일정 정도의 보험금을 지불하고,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의 주 수혜자는 노인 층이지만, 이외에도 신체장애인과 그의 부양가족, 만성 신장환자 등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제도에는 Part A와 B, 두종류가 있다.

Part A는 연금 수혜자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①병원에 입원환자를 위한 치료 ②특수환자가 양로원에서의 치료 ③가정에서의 보건의료 ④특수환자를 위한 치료 등 네 가지 환자에게 혜택을 주며 병원비 중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커버해 준다.

Part B는 일반의료보험처럼 외래환자로서의 각종 치료비를 커버해 주는데 치료비에서 최소 기초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만 커버해 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Part B는 과거에 납세실적이 없어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과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갖고 거주지 인근의 소셜 시큐리티 사무실을 방문 안내를 받는다.

보건성 산하기관인 HCF(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메디케어 제도를 운영하며, 소셜 시큐리티의 일원인 수입세가 주요재원이다.

## 2)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는 미연방정부로부터 기금의 반을 보조받아서 주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로서 저소득층과 정부 보조를 받는 사람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연방정부의 메디케어에서 지원 받고 있어 일부 주에서는 메디베어로 불리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메디케이드로 통용되고 있다.

자격조건은 현재 정부로부터 여하한 형태이든 생활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생활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65세 이상이거나 21세 미만자,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임신부는 연령에 관계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특기할 점은 소유재산 제한에 있어서 본인소유 거주주택 한 채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는 점이다. 물론 거주하는 집 이외의 부동산이나 농산이 주 정부에서 기속 수에 따라 정한 일정액을 초과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자격

이 제한된다. 또한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는데 있어 본인의 수입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는다. 즉 의료비 분담제도가 있어서 수입이 가족수에 따라 정해진 일정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에 비례되는 만큼만 의료비를 먼저 자신이 지불하면 그 차액을 메디케이드에서 지불해 준다.

신청방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소셜 시큐리티 카드, 은행장고증명, 수입증명 등을 지참하고 직접 DPSS(Department of Public Social Service)를 방문, 소정양식을 작성한 후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방법이 가장 정돈이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신청자의 대부분이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는 노인층으로 병원 측에서 일선하는 한국인 소셜 워커나 봉사기관의 도움을 얻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을 통한 메디케이드 신청은 약 8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 3) 진료비 지불방법

정부의 진료비 지불방법은 메디케어파트 A와 B, 그리고 메디컬 환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메디케어 파트 A는 메디케어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연방정부가 질병당 정해진 금액을 병원에 직접 지급하게 된다. 파트 B는 환자가 개인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경우, 의사가 사전에 연방정부에서 정한 금액을 받기로 동의했으면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환자가 진료비를 의사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정부가 환자에게 진료당 정해진 진료비를 보상한다.

메디컬 환자가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정부가 진료 제공자에게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한다. 이때 진료비는 각 주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양하며 환자는 진료비 지불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결국, 각 주마다 독특한 메디케이드 세도가 있으므로 타주로 이주, 메디컬을 신청할 때는 경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사간 주의 내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남북통일 대음악제

### 3. 남북통일 음악제

(The Great Sound of Peace

Korea : Are One)

- 지휘 : 박동명, 이준무
- 피아니스트 : 서해경, 임미정
- 소프라노 : 신영옥
- 바리톤 : 김성길

미국 로얄 심포니 오케스트라(American Royal Symphony)

뉴욕 국립합창단

2000. 8. 5(화) : 8시

Avery Fisher Hall, Lincoln Center Broadway at 65th Street

(링컨센터 에버리 피셔 홀)

### 4. 링컨센터

링컨센터는 1950년대부터 존 D 록펠러 Jr에 의해 새로운 음악의 거점으로 기획 개발된 곳이다.

브로드웨이 65번기 음악, 연극, 무용의 중심부대, 뉴욕을 세계최고의 음악 중심지로 만든 대표적인 문화예술센터이다. 세계 최 정상의 뉴욕 필하모닉과 메트로폴리탄오페라단 뉴욕시티오페라의 홈무대가 있으며 5개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METROPOLITAN OPERA HOUSE

총 3천 8백명을 수용하는 초대형 오페라 하우스다.

무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박스태이지 투어가 있다. 현재 진행중인 공연의 무대주변, 리허설시설, 의상보관실 등 오페라 준비에 따르는 모든 가정을 볼 수 있다. 이곳은 최근 한국의 오페라 "명성황후"가 공연된 곳이다. 이곳은 마이크가 없이도 천장과 관광석까지 노래소리가 잘 들릴 정도로 음향효과가 뛰어나다.

#### (2) AVERY FISHER HALL

총 2천 7백명을 수용하는 미국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본거지이다.

### (3) ALICE TULLY HALL

유명한 실내악단의 연주자 자주 열린다.

### (4) NEW YORK STATE THERTER

발레와 오페라가 열리는 곳으로 뉴욕시립 오페라단의 홈무대이다.

### (5) THE JUILLIARD SCHOOL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학교로서 수많은 정상급 음악인과 연주자들이 졸업한 실기 위주로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줄리아드 예비학교와 본학교 과정이 있다.

## 5. 링컨센터와 필랜스로피

NPO에 관해 설명하기전에 우선 필랜스로피(philanthropy)라는 용어부터 언급하자. 필랜스로피란 이원적으로는 그리스어인 'philos'(사랑하다)와 'anthropos'(인류)의 합성어로, 인류애나 박애를 의미한다. 그러나 근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념에 입각한 사회 시스템, 즉 '시민이 자발적인 공익 활동 조성' 혹은 그러한 활동을 통한 공동체의 유지를 가리켜 이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NPO이다.

NPO에 관한 약간 특수한 예이기는 하지만, 뉴욕에 있는 링컨센터의 운영 방식을 한 예로 소개한다. 링컨센터는 브로드웨이의 극장가를 북쪽으로 벗어나 콜럼버스가와 교차하는 서쪽 62번가에서 66번가에 이르는 아주 넓은 공간에 자리 잡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무대 예술센터이다. 우선 시설면에서 보더라도 두 개의 오페라 및 발레 극장, 두 개의 콘서트홀, 두 개의 영화관을 비롯한 도서관과 학교, 필름 센터, 사부국 등으로 구성된 복합 건물이다. 그러나 링컨센터는 이러한 시설을 단순히 집합해 놓은 장소가 아니라, 이들 시설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문화 단체들의 공동체이다.

구성된 조직으로는 메트로폴리탄오페라, 뉴욕필하모니, 뉴욕시타발레 등 세계적인 무대 예술 단체 외에 줄리어드학원, 아메리칸 발레학원, 무대예술도서관 등의 문화 기관도 있다.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의 총 관객수는 연간 500만명 이상이며, 그중 뉴욕 시민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링컨센터의 설립이 구상된 것은 1960년대로 메트로폴리탄오페라와 뉴욕필하모니가 종래의 활동 지역에서 벗어나고자 새로운 공간을 찾은데서 시작된다.

실제로 이 일을 제안한 이는 록펠러 3세인데, 그의 제안으로 시민 차원의 위원

회기 계획을 세워 1959년의 그 모체가 탄생하였다. 1962년부터 서서히 건설이 시작되어 1969년에는 현재의 시설 대부분이 완성되었다. 건설비는 당시 금액으로 약 1억 8,500만 달러였으며, 그 중 연방정부나 주.시의 출연금이 4,000만 달러이고 나머지 1억 4,100만 달러는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모았다.

링컨센터의 연간 예산(소속 단체는 기본적으로 독립 법인으로서 예산이 개별적으로 수립되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총계임)은 1990년과 1991년에 2억9,000만 달러로 이는 일본 문화청의 예산에 필적하는 규모이다. 수입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입장료로 약 1억 달러이며, 기타 사업수입(매점, 식당 등이 판매 수익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상소 임대료 등)과 자산 운영 이익을 포함한 자체 수입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1억 달러는 외부 지원이다.

지원내용은 가장 많은 것이 개인기부(찬조 회원 등의 회비 수입포함)이고, 다음이 민간재단의 조성금이며, 기업 지원(기부와 협찬 비율은 4:6 정도)은 전체 지원액의 15%도 채 미치지 못한다. 중앙과 지방 정부의 공적인 보조도 매우 적다.

이처럼 NPO는 사업 수익만으로는 활동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많은 시민이나 재단 기업(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민간의 공익 활동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필랜트로피'라고 한다.

링컨센터라는(NPO로서는 지나치게 규모가 커 꼭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없다) 문화 단체 운영을 살펴보았지만 여기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미국의 사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시민(입장료 등의 시장적 지출과 기부 또는 이니셔티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시민에 의한 필랜트로피는 NPO에 의해 비영리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실현되고, NPO의 활동은 지원자인 시민 스스로의 통제와 사회적 책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 6. 오타와 시의회

### 오타와시의회 상임위원회 구조

#### 1. 의사결정은 어디서 하는가?

- 법적지원을 위해서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회문제에 대한 연구와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상임위원회는 오직 선출직 대표에 의해 구성된다. 시민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은 오직 상임위를 통해서 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 회의는 지역신문의 금요일 시에 관한 난에 광고한다.  
만일 시의회의 주제에 관해 정보를 알고 싶다면 시의 웹사이트를 참조한다.

- 위원회가 결정한 대부분은 마지막 시의회의 승인을 요구한다.  
 시의회는 단지 7월과 8월에는 오직 첫 번째 수요일만 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달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수요일 오후 1시에 갖는다.  
 시 의회 회의는 시청 첫 번째 순위에 해당하는 Bytown Pavilion에 있는 Victoria Hall에서 개최된다.

시 의 회

시 책 임 관

최 고 행 정 관

- 협동관리  
 ○ 인권과 고용  
 ○ 경제개발  
 ○ 시장관리

지역공동체서비스

- 화재
- 레지서비스
- 사업계획
- 문화

협력서비스

- 의회와 위원회서비스
- 시
- 기록관리
- 민간자원
- 급여
- 정보
- 커뮤니케이션센터
- 재산/부동산 서비스
- 환자 치료센터
- 소청센터(접수, 정보, 제고)

도시계획과 공공사업

- 계획,구획정리
- 경영지도
- 건물과 재산표준화
- 교통(신호체계,도로)
- 기술
- 환경관리
- 주차관리
- 도로,다리,공원,나무
- 소방관리
- 건축,운영,유지
- 소유,동물관리

재 정

- 재정
- 회계
- 예산재정
- 예산계획
- 세금징수
- 비용체계

7. 미국의 지방자치(워싱턴시 중심)

가. 미국 지방자치의 간략한 소개

미국의 경우를 심층분석하는 사례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지방의회를 집중 연구대상으로 삼을 것이나 그에 앞서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간략한 소개가 순서일 것이다.

1) 일반적 추세

약 150년전경 프랑스의 사상가 토크빌이 미국을 여행하고 난 후 시술한 「Democracy in America」라는 책에 나타난 미국이라는 거대한 사회의 특성은

아직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특징지을 수 있는 몇몇 개념을 추출해 낸다면 아마도 공통적으로 선택되는 개념은 토크빌이 지적한 대로 “다양성”에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인 면에 있어서 뿐 아니라 행정구조와 이에 수반되는 지방자치제도에서도 또한 극명하게 드러난다. 실제에 있어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라는 개념은 일목요연하게 그 위상을 정립하기가 쉽지 않다. 즉 3층구조(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로 되어있는 미국의 지방행정조직 중 마지막 단계인 지방정부의 단계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많은 경우 ‘市政府’가 그 수나 중요도에 있어서 지방행정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는 아래의 도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즉 현재의 경우 81,248개 지방정부 단위중 시정부가 차지하는 숫자의 비중은 22.2%에 불과한 18,048개이고 나머지는 군, 읍, 학군 및 특수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도	1967	1974	현재
정부형태			
- 연방정부	1	1	1
- 주정부	50	50	50
- 지방정부	79,862	78,218	81,248
군(County)	3,042	3,044	3,049
시(Municipality)	18,862	18,517	18,048
읍(township)	16,822	16,991	17,105
학군(school district)	15,174	15,781	21,782
특수군(special district)	25,962	23,885	21,264
합 계	79,931	78,269	81,299

이러한 지방정부형태의 다양성은 ‘위로부터’뒀어 쓰여진 일정한 규격을 설여 하는 독특한 형태의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구조는 국방 및 외교의 문세를 제외하고는 강력한 구심력이 결여되어 왔다. 흔히 이야기 되는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 모든 정치는 지방정치다.’(Every politics in America is local politics)

즉 미국의 정치구조는 미국의 정치구조는 지방적 수준에서 매우 독립적이고 지방주민의 이해관계에 지극히 얽매어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과같은 전통적이며 일반적인 전통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률성은 점차로 쇠퇴해가고 있다. 이를 특히 2차대전후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성립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지방

정부의 운영에 있어서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세원(tax base)의 감소추세 및 고가화되어 가는 서비스제공 등을 중앙정부의 재정적 보조를 필수불가결로 만들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적 정치 이슈는 더 이상 지방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 이슈(national issue)화 되게 되었다. 즉 지방정부의 활동을 “폐쇄정치체제”(closed political system)로 분석하는 것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게 되었다. Lowi가 적절히 지적한대로 복지국가의 사상적 밑받침이 되었던 자유주의(liberalism)는 종언을 고하고 있다. 월남전 이후, 특히 공화당이 정치적 상승부드름 타고 심권하기 시작한 1970년대 이후 등장한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는 그간 뉴딜(New Deal) 체제하의 복지국가에서 관행화 되어 왔던 중앙-지방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Nixon 대통령 시절 시작되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하에서 가장 팽창적으로 시도되어 온 신연방주의의 중심된 목표는 그간 복지 국가체제하에서 연방정부가 관장해 왔던 여러 책임과 권한을 주정부 및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닉슨 행정부시절의 목표는 ‘의부가 부과되지 않은(no-strings-attached)’ 일반회계수입의 분할에 머물렀으나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간 중앙정부가 대부분 재정지원을 해왔던 복지계획 등을 주정부로 완전 이관하는 성도에까지 이르렀다.

비록 레이건 행정부의 야심찬 계획이 완전히 실행에 옮겨졌다고 보기는 무리가 많지만 1980년대 이후 주정부의 연방정부에 대한 의존도는 크게 약화되었으며, 미국의 신보수주의자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주정부는 상당히 양호하게 사회계획의 프로그램들을 집행해나가게 되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우려했던 복지국가체제의 와해로까지는 진행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신연방주의하의 재지방분권화는 애시당초 의도되었던 바와는 달리 지방정부까지의 완전한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대신 주정부 수준으로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신연방주의’가 지방분권화를 촉진시켰다는 의미의 주장은 주정부 수준까지는 합당한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지방분권화라기 보다는 복지국가의 쇠퇴화 현상에 따르는 지방정부의 부담증가 및 미국이라는 국가의 보수화로 표현되는 것이 합당하나할 것이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도출될 수 있는 잠정적 결론은 지방의회와 실제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재적 변수가 재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방회회의 자률성을 제고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주정부 및 사기업으로 표현되는 이익단체 등의 침투성을 높여서 자률성을 저하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즉 지방정부의 운영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을 담당해야 하는 지방정부로서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과거와 달리 차단된 상태에서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책임지게 되고 결국 재정적 압박의 부담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주정부 사기업의 지방 서비스 제공 사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미국지방정부의 변천과 구조

미국의 200년 조금 넘는 역사적 배경하에서 20C 중반 이후의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외재적 변수를 살펴는데 있어 초기 독립기의 지방자치제도는 유의미하지 않다. 특히 20C 중후반의 지방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史的 요소를 고찰하자면 결국 2가지의 변수령이 되는 역사적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번째는 ‘잭슨식 민주주의’로 표현되는 엽관주의의 폐해와 이에 부수되는 지방적 부패정치이다. 1830년대 민주당의 Andrew Jackson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행정부의 인사정책은 능력이나 자질보다는 정당과의 연계관계하에서 재조정되게 되었다. 즉 식입적 공무원제는 장기간의 연임으로 인하여 부패의 온상이 되므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이 국민에 책임지는 의미에서 직업공무원을 임명한다는 논리하에서 중앙 뿐 아니라 특히 지방정부의 공무원 임명제도는 후원자-수혜자 관계의 정당적 도당정치화하게 되었다. 특히 1840년대애 들면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급증하면서 시정부는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들 이민들의 후원자로 사처하며 수혜자들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물고불리는 부패정치가 창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C 들어와서도 잔존하여(특히 대도시) 시카고의 John Daley와 같이 전설적인 보스적 시장이 지방의회 운영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전권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Milton Rekove(1975)의 표현을 빌리자면

‘효율적인 정당은 5가지가 필요하다. 관직, 일자리, 돈, 노동자 그리고 투표가 그것이다. 관직은 일자리를 낳고 일자리는 돈을 낳고, 돈은 노동자를 낳고, 노동자는 표를 낳고, 표는 관직을 낳는다.’ 이는 곧 특정 정당이 관직을 독점하게 되면, 이것은 곧 관할구역내의 정치를 상악하게 된다는 것이다. 19C 중후반에 걸쳐 미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이러한 현상이 창궐하였다.

1840년대 유럽으로부터 갓 이민은 신미국인들은 지방정부가 복지혜택을 주지도 않고 풀 능력도 없는 정치적 행정적 진공상태에서 기댈 곳이라고는 정당의 보스를 중심으로한 도당적 집단밖에 없었고 쓸것이라고는 선거시 표밖에 없었다.

도시의 부패정치 구도는 비록 복지기관이 아니었지만 무능한 행정부와 가혹한 정치·경제적 조건하에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목하 미국의 지방정치 및 지방의회 운영에 영향을 끼친 분수령적인 사건은 19C 말엽부터 일기 시작한 중산층의 진보개혁운동이었다.

도시거주 백인 중산층 중심의 진보개혁운동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 남부 및 중부 농민이 주동이 되어 발생하였던 인민주의운동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인민주의운동이 농민중심의 반독점적 성격이 강하였다면 진보개혁운동은 도시 및 주정부의 정치체제 민주화 운동적 성격이 강하였다. 즉 주 수준에서 진보개혁운동은 뉴욕,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및 오레곤주에서 강하였고 지방적 수준에서는 대개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적 보스정치의 청산을 통한 시장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진보개혁운동이 지방의회 운영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선거과정에서 정당적 요소를 제거시킴으로 인하여 파생된 지방의회의 구조적 변화였다.

지방적 보스가 좌지우지 하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을 지방의회가 정한 시정지배인으로 바꾸고 선거절차에 있어서도 부패된 정당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밖에 주민 소환 및 주민발의 제도가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개혁운동이 끼칠 수 있었던 영향력의 과장은 일반화시키기에는 나기적이었고 심층적이었나기 보다는 표피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 즉 가장 부패의 정도가 심하였고 도당적 성격의 시정지배가 강렬하였던 동부 대도시의 경우보다는 서부의 주 및 소도시에서 진보개혁운동의 결실이 더욱 뚜렷하였다.

이것은 미국역사 뿐 아니라 세계사적 조류에 있어서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비약적인 공업발전과 이에 수반되는 사회, 정치, 행정현상의 복잡화는 대도시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이들 대도시에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시정지배의 민주화 보다는 시정의 효율적 관리가 더욱 시급하였던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시정치의 민주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진보개혁운동은 대도시보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진척정도가 낮은 서부 및 소도시에서 더욱 강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대도시의 도당적 부패정치에 대한 대안적 제도는 정당적 요소를 제거시킨 정치적 공백을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시상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결말이 나기 시작하여 1920년대 들어 대부분 미국의 대도시는 강시장형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하였다. 반대로 대부분의 소도시에 있어서는

의회·지배인체제를 택하게 되었고 이 두 제도의 변형으로 弱市長型制와 委員會制가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유추될 수 있는 중요한 결론은 미국 지방행정제도의 다양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이다. 즉 미국의 생성역사에서 잘 이해될 수 있듯이 미국의 행정조직은 지방행정구조에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중심적 권력의 부재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영미법 계통에서 드러나는 행정제도의 특징은 임시적 관행의 집적이 축적되어 다양한 지방행정구조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적 관행의 집적은 통일되고 표준화된 행정구역의 설정을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하여 파생되는 문제점도 반반치 않다. 비근한 예가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한 행정구역 개편운동의 실패에서 드러난다. 대도시 주변의 근거리 주거지역이 미국적 지방행정 전통하에서 자치라는 이름하에 계속 분열되어 나감으로 인하여 주거공간과 작업공간의 이분화는 물론 세원의 공간적 배분문제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쉽게 이야기하여 소득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은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되면서도 주거지인 근교 소도시에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인하여 대도시 지방행정운영에 막심한 타격을 끼치고 이는 곧바로 지방재정 지립도의 악화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당연히 재정자립도의 약화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경향을 갖게 되고 중앙에의 의존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킨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 미국 지방행정 구조의 분권화 현상은 정치적, 행정적 책임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양대목표를 조화시키는데 있어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Washington D.C.의 경우

##### 1) 사적배경과 의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워싱턴은 비합중국의 수도이다. 연방정부체제하에서 갖는 수도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워싱턴의 지방자치적 위상은 여타 미국 지방자치단체의 그것과 사뭇 다르다. 1790년 미국 독립전쟁후 헌법작성사의 합의에 의해서 성립된 워싱턴은 100년동안(1874년부터 1974년까지) 자신의 지방자치조직을 구성하지 못하고 미의회의 포괄적 통제하에 있었다. 즉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 베네주엘라의 수도인 카라카스, 인도의 수도인 뉴델리,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로 연방체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직접적 통감하에 놓여있어 실제적 의미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실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외적 경우를 당하였다.

미 의회의 각종위원회, 연방정부의 각 부처 및 사법부의 여러 채널로부터 미로와 같이 복잡한 통제를 받고 있어서 비록 1974년 자치법이 발효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제약조건이 산재하여 있다. 따라서 워싱턴 D.C.의 지방의회가 미국 지방의회들의 대표적 사례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오히려 지금까지 지방분권화된 미국 지방자치제도의 구조적, 역사적 현황을 생각하건대 오히려 예외적 경우라고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외적 경우로서의 사례 연구는 逆으로 생각하여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전통하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한 나라의 수도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떠맡고 있는 워싱턴의 경우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 뿐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각종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양사간의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첨예한 문제로 떠 오를 수 있다. 이는 교부금의 배분문제 뿐 아니라 행정적 통제의 문제까지 겹쳐있다. 즉 미국의 수도로서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의 중심지로서 가지는 워싱턴의 위상은 60만을 넘는 워싱턴 주민의 이해관계와 대립관계를 가져올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워싱턴 시의회의 자율성 정도는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다.

이하의 자세한 설명에서 드러나겠지만 워싱턴 시의회의 경우 연방정부 및 미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간 연락 책임직을 둔다던가 또는 법안 통과시 중요사안을 의회와 협의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는 시사하는 바가 많다.

目下 워싱턴 D.C.의 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시장 등이 주장하는 자치의 두요소로서 연방의회에의 대표권과 재정적 자율성의 확립 등은 미 헌법 개정 등의 문제와 맞물려 미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주목해야할 케이스로서 떠오른다 할 것이다.

## 나) 의회의 구성

### ○ 의회구성과 운영의 일반적 사항

워싱턴 시의회는 시 정부의 입법부로서 기능한다. 시의회는 12명의 의원과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4년 임기로 선출된다. 8명의 시 의원은 8개 소선거구로부터 선출되고 나머지 4명의 의원은 시 전구역을 기준으로 선출된다. 시 전구역을 출신의원중 2명 이하는 동일정당 소속일 수 없다. (이 경우 의장은 제외)

시의회 의원은 교차로 선출된다. 즉 6명이 한 해에 나머지 6명과 의장은 2년후에 선거로 선출된다.

시의회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 2주 화요일에 입법회의를 가진다. 의회는 부활절, 크리스마스 및 8월중 휴회기간을 가진다. 입법회의는 펜실베니아가 1350번지 소재 구의회 청사 5층의 시 의회실에서 오전 10시에 회합을 갖는다. 매 4번째 회합은 많은 청중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후 6시 30분에 갖는다.

### ○ 議 長

의장은 시의회의 최고 수뇌부로서 의회규칙에 따라 모든 회의를 주재하고 의회를 대신하여 모든 입법문서에 서명한다. 의장은 시의회 직원, 의장 직무대리,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 소속 의원을 임명한다. 의장은 모든 의안이 합당한 위원회에 배부되는가, 입법절차가 제대로 시행되는가, 승인된 법안이 시장서명과 미 의회에 제대로 이송되는가 등에 관해 책임을 진다. 의장은 또한 시의회 전국연합, 의회, 워싱턴내 국제 공동체 등의 조직에 시의회를 대표한다.

### ○ 의장 직무대리

의장 직무대리는 의장이 부재시 의장 대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시의회의 각종 의식행사를 주재한다.

### ○ 시의회 직원

#### ① 의회 사무직

- 의회 사무직은 시의회의 수석행정직원으로서 이하의 직무를 수행한다.  
첫째, 시의회의 제반운영사항(인사, 회계, 사부보조, 서류정리, 법안의 추석정리, 정보제공)을 책임진다.  
둘째, 시의회의 운영예산을 입안, 수행한다.

#### ② 상임 고문직

- 시의회의 상임고문은 의회 절차에 대하여 자문을 행하고, 시의회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가 법률분쟁의 당사자가 될 때 시의회를 대표하며, 또한 시의회 의원에게 법률조안 작성시 보조를 해 준다.

#### ③ 정부간 연락 사무관

- 정부간 연락 사무관은 시의회와 연방정부 및 의회와의 관계 협조사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밖에 책임 사항은 이하와 같다.
- 워싱턴 시 및 시의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안 중 미의회에 계류중인 법안의 감시추적
- 시의회와 주 또는 전국 시의회 연합체 및 관계 조직과의 관계 조정

○ 委員會

① 전체 위원회

- 전체 위원회는 이하와 같은 사안을 논의한다.
  - 연간예산 및 예산의 수정, 증보, 보완에 해당되는 사항
  - 토지 사용 관련 사안 및 총괄계획
  - 워싱턴 시 정치구 분할 및 재 조정
  - 국제적 사안
  - 특별히 기타 위원회에 할당되지 않은 지역 조직과의 관계 조정
  - 시의회 행정 및 인사제도
  - 시의회 입법회의 관계 사항의 시간 조정
  - 워싱턴 시의회가 정치적 단위로서 관련되는 입법사안
  - 의회 규칙이나 의장에 의해 전체위원회 사안으로 규정된 사안들
  - 전체 위원회는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시의 감사, 시의회, 首都계획위원회, 예산 및 조달관계 사무국, 시 구획조정 위원회, 기획발전사무국, 핵무기억제사문위원회를 비롯한 기타 각종 위원회)

② 복지위원회

- 복지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복지, 사회봉사, 건강, 문화행사, 교정을 제외한 청소년문제, 노인복지문제, 에너지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다.
  - 피 감독기관으로서는 이하의 기관이 있다.  
(사회복지부, 노후대책위원회, 노인복지사무국, 워싱턴시종합병원, 인문예술 위원회, 의료국, 에너지국, 시민에너지자문위원회)

③ 주택 및 경제발전위원회

- 주택 및 경제발전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주택량의 유지 및 개발
    - 주거 환경 개선 및 유지
    - 고용 및 인력개발
    - 경제, 산업, 상업발전 및 금융기관 규제사항
  - 피감독기관  
주택개발부처, 토지재개발국, 워싱턴시 상공회의소, 주택금융저, 고용증진사

무국, 경제 발전국, 워싱턴시 컨벤션 센터위원회, 도제위원회, 경제발전재정 조합, 주택생산위원회, 기업육성자문위원회

④ 공공서비스 위원회

· 공공서비스 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논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도시공공 설비
- 레크리에이션
- 인권사항

- 피감독기관

문화, 체육활동부, 탄약위원회, 권투 및 레슬링위원회, 야구위원회, 공공서비스 위원회, 주민자문위원회, 중소기업증진위원회, 인권 사무소 및 인권위원회, 이싱위원회, 남미주민사무소, 남미계 주민 지역개발위원회

⑤ 공공사업위원회

· 공공사업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도시공간의 조정 및 유지 보수
- 공공건물의 유지 보수
- 쓰레기 처리
- 용수공급 및 환경문제(공기, 상하수도)
- 고속도로, 교량, 자동차 교통규제 등의 공공교통기관

- 피감독기관

공공사업부, 워싱턴 대도시 교통관리처, 워싱턴 대도시 교통위원회, 워싱턴 도수관리사무소, 워싱턴 사전거 자문위원회, 위해 물질 연구위원회, 액체 및 고형폐기물 감소위원회, 워싱턴 택시운송위원회

⑥ 사법위원회

· 사법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워싱턴 시의회의 권한 범위내에 있는 법적 절차 및 법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유산 상속 문제
- 행정법과 행정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형법과 형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워싱턴시 경찰 및 소방법규 관계 사안
- 경찰보호, 범죤인 선도, 화재예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
- 피감독 기관

워싱턴 경찰청, 소방청, 긴급재난대책사부소, 주 방위군, 집행유예위원회, 시법적인명위원회, 기업사문사부국, 법령개폐위원회, 항고 및 재심위원회, 워싱턴시재판부, 교정 선도청, 범죤 예방 분석청, 시민 소원수리위원회, 범죤감독위원회 등

⑦ 교육 및 도서관 위원회

- 교육 및 도서관 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공공교육 및 도서관 설비에 관계된 사안

- 피감독 기관

워싱턴시내 공립학교, District of Columbia 대학, 기술연구소 협찬교육, 워싱턴 학교법 위원회, 워싱턴시내 공공도서관

⑧ 정부운영위원회

- 정부운영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선거 관계 사안
- 인사 및 일반행정 관계 사안
- 유선 T.V. 관계 사안
- 주민 자문위원회 관계 사안

- 피감독 기관

- 워싱턴 시장실(이 경우 상업 경제 개발실은 제외)
- 수식 비서관실 및 공보 비서관실, 인사국, 복지 및 퇴직공단, 시 행정관 사무소, 행정서비스국, 피고용자 항소실, 주민자문위원회, 선거 및 윤리위원회, 정부간 관계실, 감사원장실, 교육제도 증명위원회, 계약 심판국, 유선 TV실 및 주민 민원실 등

⑨ 재정/수입 위원회

- 재정/수입 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시정부 운영을 위한 조세 및 기타 재정적 수입에 관계된 사안
- 채권 발행법 및 예상 재정수입안 법에 관계된 사안

- 피감독 기관

재정/수입청, 多州間 조세위원회, 워싱턴시 복권 및 자선게임 운용위원회,  
제정 경영실

⑩ 소비자/규제 관계위원회

· 소비자/규제 관계위원회는 이하의 사안을 토의하고 이하의 기관을 감독한다.

- 토의 사안

· 상공, 직업, 부동산거래, 주택에 관한 정부규제 사안

· 소비자 관계 사안

· 소비자 문제에 관계된 은행활동

- 피감독 기관

· 소비자/정부 규제 관계청(이 경우 권투/레슬링 위원회는 제외)

· 소비자 불만 중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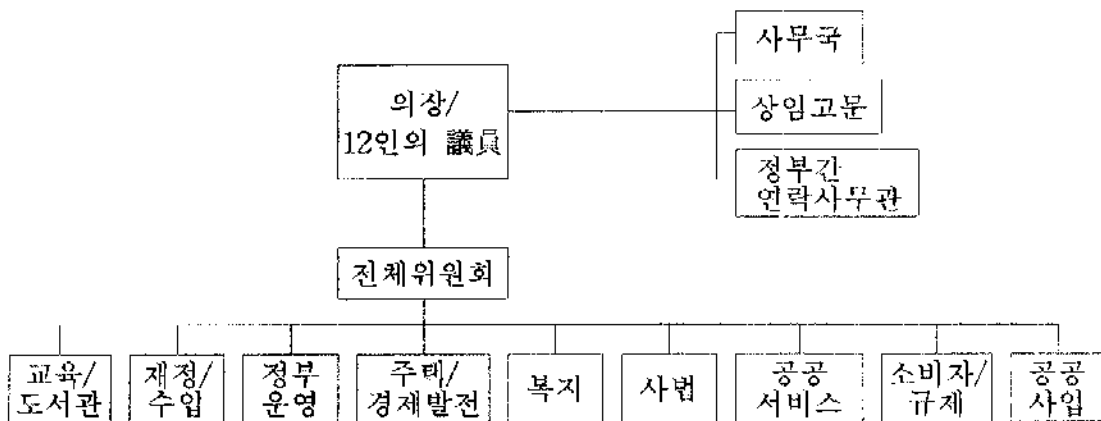
· 2륜 구동차 보험심사위원회

· 전세주택 위원회

· 토지 및 수질 보존 위원회

· 기타 위원회 소관이 아닌 직업증명서 발부국

○ 이하의 의회 구성을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자 료

## IV. 자 료

### 1. 미국의 대통령선거

오는 11월 7일 새 천년의 첫 미국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정가가 대선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우선 공화당보다 2주 늦게 전당대회를 연 민주당은 8월 17일 앨 고어 부통령을 대신 후보로, 조셉 리버먼 상원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고어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자신이 부통령을 8년째 지낸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 나아가 이제는 클린턴의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에 나선 지도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선거 유세 때마다 '공화당이 힘 있는 자의 편에 선 정당'이라고 비난해온 그는 이 날 다른 어느 계층보다 '근로 가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의도적으로 공화당과의 차별적 '계층 색깔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또 약 5천 단어로 이루어진 연설문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을 딱 한번 언급했을 정도로 성추문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자신의 상사와 분명하게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

민주당에 비해 일찌감치 전당대회를 치르고 '조지 W. 부시-딕 체니' 정부통령 후보팀을 출범시킨 공화당은 현재 느긋한 편이다. 자당후보인 부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고어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오는 10월 3일과 11일, 17일 세 번에 걸친 부시와 고어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을 지켜보아야 좀 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겠지만, 최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부시 쪽에 유리하다.

이틀대만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인 8월 16일 정치 전문 인터넷 사이트 보터닷컴(Voter.com)에 예상 투표자 천명을 조사한 결과 부시(48%)가 고어(37%)를 11% 포인트나 앞섰다.

서부지역 최대 유통지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8월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전국 1천2백27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결과 부시 후보 지지도가 48%, 고어가 39%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전국지인 <유에스에이 투데이>의 조사 결과도 비슷하다. 민주당 전당대회 도중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부시, 37%가 고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로 대선 승리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학적인 대선 여론조사가 실시되기 시작한 1936년 이래 지금까지 전당대회를 전후한 여론조사에서 처진 후보가 대선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는 사실은 꽤 시사적이다.

비록 여론조사 결과가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고어 후보측은 8월 17일 끝난 전당

대회를 계기로 지지율이 상승하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대중적 호감도에서 공화당의 부시 후보가 워낙 고어를 앞지르고 있어, 고어측 선거 진영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부시에 비해 고어는 뭔가 딱딱하고 지루하며, 서민과는 동떨어진 귀족적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지난 8년간 부통령을 지냈을 만큼 자신이 누구보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유권자들에게 별로 먹히지 않고 있다. 고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후보 개인의 호감도보다 정책집행 능력에 더 신경 써 달라고 호소했다.

사실 유권자들이 자신을 왜 지지하지 않는지 고어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미국 역사상 전례없이 경제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분명 집권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게다가 공직 경혐이라고는 주지사 6년이 전부인 부시에 비해 자신은 연방 상원의원에 부통령까지 지낸 ‘중앙 정치인’이다. 그는 클린턴 대통령과 팀을 이루어 무려 2천2백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 주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유권자들이 이런 ‘공을’ 알아주지 않은 채 부시 후보 쪽에 더 지지를 보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선거 분석가들은 고어의 열세 요인 중 하나로 고어 자신의 대중적 호감도 부족을 꼽고 있다. 화술이나 제스처·대중적 친화력 등에서 고어는 절대 부시를 따라갈 수 없으며, 바로 그 점이 고어의 감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8월18일자 사설을 통해 고어의 최대 과제는 유권자들이 그에 대한 고정 이미지에서 벗어나 그가 내세운 정책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바로 이 때문에 고어 후보측은 앞으로 철저히 정책 이슈 중심으로 부시와 대결한다는 전략을 세워놓았다. 이를테면 전통적인 민주당지지 세력인 흑인과 남미계 등 소수 민족과 노조 근로 중산층의 표를 확실히 끌어 모을 수 있도록 세금·보건·교육·충기규제·낙태·사회보장·의료보험 등 여러 분야에서 공화당과 차별되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15개 분야 가운데 세금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고어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환경 부문은 29% 포인트나 공화당을 앞지른다. 다만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강점인 감세 부분과 관련해 민주당은 공화당의 감세 정책이 부유층을 겨냥한 것임을 부각하면서, 평균 두 자녀를 기르며 연 평균 6만 달러 정도를 버는 대다수 중산층에 대해 대폭적인 감세 조처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부동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젊은 백인 여성을 끌어들이기 위한 혜택도

마련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으로 여성 유권자들이 민주당지지 대열에서 떨어져나갔지만, 고어는 자신의 러닝 메이트이자 도덕성과 인품을 인정받고 있는 리버먼을 통해 이상표를 만회한다는 복안도 세워놓았다.

이처럼 정책 이슈 집중 부각과 함께 고어측은 주요 산업지대가 몰려 있고, 이번 대선의 최대 표밭이라 할 수 있는 중서부의 오키오 · 미시간 · 위스콘신 · 일리노이 · 미주리주에 대한 유세 작전을 세웠다. 또 전통적인 공화당 표밭이라 할 수 있는 남부 여러 주에 대한 공략 계획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부시 후보의 동생인 제프 부시가 주지사를 맡고 있는 플로리다 주를 공화당 취약 지역으로 꼽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미국 주요 언론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부시는 텍사스 주를 포함해 대다수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크게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 추세라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백70표중 1백67표를 당상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어는 뉴욕 주를 포함한 동북부와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서부의 캘리포니아에서 다소 우세하지만, 당상 선거가 실시될 경우 선거인단은 77표밖에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관건은 전체 선거인단의 45% 규모인 백중 지역을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인데, 고어가 승리하려면 중서부의 75% 이상을 휩쓸어야 한다.

고어 후보의 한 가닥 희망은 오는 10월3일부터 초당적인 ‘대통령 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해 1주일 간격으로 열릴 부시 후보와 텔레비전 생중계 토론이다. 이미 외교 분야는 물론 환경 · 국방 · 교육 등 주요 정책 부문에서 고어에 비해 실전 지식이 훨씬 뒤떨어진 것으로 드러난 부시를 공략할 질호의 기회가 바로 이 토론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어 후보측은 대선까지 부시와의 토론회를 많이 가질수록 유리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시측은 토론회에 세 번만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과연 고어가 텔레비전 토론회를 통해 역전극을 펼칠 수 있을지 두고보아야겠지만, 9월에 들어서도 고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부시에게 뒤질 경우 11월 대선 게임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앨 고어(52)는 지난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환호하는 대의원들을 헤치고 연단으로 걸어갔다. 매시간주 디트로이트의 준교외지역에 있는 사택 거실에서 이 장면을 TV로 지켜보던 켄 키티(25)는 쓴웃음을 지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프로레슬링 팬인 그는 이미 사흘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전당대회상에 화려하게 등장하던 장면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키티는 “클린턴의 등장은 마치 세계프로레슬링연맹(WWF) 경기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싱 고어의 후보 수락 연설이 시작되자 킨터의 생각은 바뀌었다. 고어의 연설이 WWF처럼 요란하진 않았지만 킨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도전적이었기 때문이다. 킨터와 그의 약혼녀 커스틴 웰드는 고어가 낙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였고, 교육개혁·사회보장·메디케어(노인·장애인 의료보장제)등 모든 일상생활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호하고 심지어 확대해 나가겠다는 고어의 약속과 담배회사·제약회사·석유회사에 대한 고어의 공격에도 호감을 느꼈다. 킨터는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의 밥도울 후보에게 투표했고 지금은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박력있는 스타일이 이끌리지만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어가 따분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그가 제시하는 공약은 현실에 확고하게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고어의 지지자들은 후보 수락 연설이 옐 고어의 가장 세롭고 깊숙한 변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호황에 따른 이익을 근로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에 쓰겠다고 맹세하는 대중적 후보의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고어의 메시지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 고어는 전당대회 연설 후 지지도가 크게 반등했다. 전당대회 전에는 부시에게 10% 포인트 (48% 對 38%) 뒤졌지만 고어가 전당대회를 마치고 미시시피강을 따라 중부 지역 유세에 나섰을 때 뉴스위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48% 對 42%로 앞섰다. 오차범위를 고려할 때 거의 백중세다. 전당대회 이후 나타나는 반등세는 한풀 꺾이게 마련이지만 고어는 백인 남성과 교외지역 주민의 지지도를 높였고 망설이던 민주당 유권자들의 지지를 다시 쟁취했다. 개인적 이미지도 나아졌다. 응답자의 60%가 이제 그를 ‘강력한 지도자’로 보고 있다.(지난 주에 비해 7%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며 부시에겐 불과 2%포인트 뒤져있다).

부시진영은 고어의 제안을 진보주의의 재탕으로, 또 그의 담배·제약·석유회사 공격을 ‘계급전쟁’으로 몰아붙이며 즉각 반격할 계획이다. 뉴스위크 취재에 따르면 부시 진영은 미시간주를 포함한 여러 주요 주에서 클린턴-고어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강력한 학력 향상책을 제시한 부시의 교육개혁안을 치켜세우는 대규모 TV 광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화당은 고어를 기업의 후원을 뜯어 업고 인기몰이에 나선 사이 비 정치인으로 몰아세울 광고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 킨터와 웰드처럼 시사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선거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준이 커진 세련된 유권자층을 겨냥한 11주 간의 치열한 공공파 전투가 벌어질 예정이다.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이들 유권자층은 늘 양당의 공략 대상이

왜온 소수 대규모 주(개개는 중서부에 있다)의 거대 미디어 시장에서 살고 이다. 부시가 공화당 주지사의 지지를 업고근소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 미시간주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곳일지 모른다.

미시간주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승리하려면 고어는 먼저 클린턴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클린턴은 전당대회 첫날 강력한 작별 연설을 했고 고어의 연설이 열정도나 전당대회 마지막 날 특별검사가 클린턴의 섹스 스캔들을 재조사하기 위해 연방계배심을 새로 구성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런데도 고어의 연설은 클린턴의 그늘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할 정도로 대답했다. 고어는 1만 2천단어(최종 원고는 7천5백 단어로 줄였다)에 달하는 연설문을 랩톱 컴퓨터로 직접 작성했다. 그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오늘밤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희망대로 됐다면 그가 말하는 진면목은 남부 풀뿌리 민주주의의 색채를 가졌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일구려는 진보주의자, 또 거대 연방정부의 김투사, 자신의 아버지이자 테네시주 연방 상원이었던 고 앨버트 고어 1세의 정치적 계승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고어의 새로운 모습은 그가 말을 이겼다는 데서도 누드러졌다. 고어는 고배한 비전이나 장엄한 주제를 다루지 않았다. 가족문제를 공개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나누려 하지도 않았으며(대신 이번주 자신의 새로운 ‘일대기’ 광고방송에 나설 계획이다),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는 ‘신민주당’ 인사들(러닝메이트인 조 리버먼이 대표적이다)에게도 경의를 표시하지 않았고, 공화당 전영을 ‘구세력’으로 부르긴 했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신영을 ‘신세력’으로 부르지도 않았다. 게다가 그는 공화당 주도 의회의 과오를 지탄했지만 부시의 이류를 들먹이며 공격하지도 않았다.

러닝메이트로 리버먼을 발탁한 것과 함께 고어의 연설은 민주당의 양면 전략을 드러냈다. 한가지 전략은 민주당 지지가반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미시간주를 포함한 산업지대 주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다른 작전은 부시와 벌이게 될 토론이다. 다시 말해 이슈들을 놓고 앞으로 11주 동안 부시와의 토론을 진정 바란다는 것이다. 고어는 새로운 지출계획을 약속하면서도 어느 정도 보수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예컨대 재정흑자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부시가 주장하는 일률적인 대규모 소득세 삭감이 아니라 매니케어 및 사회보장제 보호·확대에 대부분 쓰도록 떼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략을 통해 고어는 주요 주의 주요 권자 집단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부시 전영은 민주당의 텃밭에 대한 공략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의 고위 참모 칼 로브는 “고어전영은 모든 연설 내용에 대한 여론조사될 거

쳤지만 거기엔 아무 주제도 비전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시는 자신이 그 두가지 모두를 갖췄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적극적 자세와 자유시장 원칙이 미국의 부활을 위한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부시 진영이 아직 자신만만해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부시는 승리에 필요한 2배 70표의 절반인 1백35표가 걸린 16개 주에서 확고한 우세를 지키고 있다. 또 그는 아이오와·위스콘신주 뿐만 아니라 워싱턴·오리건주까지 포함한 부동(浮動)지역 공략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이 지역은 역사적인 기준에 따르면 이미 민주당편에 서 있어야 한다).

9월 15일 개막될 시드니 올림픽으로 양 진영의 9월 유세가 대부분 빛을 잃게 될 것이란 점에서 10월 선거전은 전례없이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선거전은 TV 토론과 함께 다시 부상할 것이다. 로브는 부시가 적어도 5회의 토론(3차례는 대통령 후보, 2차례는 부통령 후보 토론)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전은 급속히 아전투구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고어측은 부시가 텍사스 주지사로서 갖고 있는 전력의 구체적 면면들에 집중 포화를 퍼부을 계획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격목표는 휴스턴의 대기오염, 의료보험이 없는 다수의 텍사스주 아동, 멕시코와의 썩경에 있는 중남미계 이민촌의 빈곤 문제 등이 될 것이다. 고어측은 일단 부시 진영으로 하여금 ‘상대비방 공격’에 나서도록 유도한 뒤 그들이 전술적 위선을 보였다고 몰아붙일 계획이다. 반면 부시는 고어를 민주당 불법 선거자금 모금과 결부시킬 것이다. 부시는 고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이 바로 선거자금법 개혁안 제출이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고어 자신이 해명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켄 키티와 악흔녀 커스틴 헬드는 앞으로도 계속 그들을 지켜볼 생각이다. 다음 달 결혼할 예정인 그들은 결혼 후에도 거실에 놓인 대형 TV를 통해 고어와 부시의 토론을 귀담아 들을 것이다. 그들은 어느 후보가 가장 큰 희망과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며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은 수사(修辭)가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시라고 말했다. 그들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을 것이다.

##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 - 대통령선거 과정의 첫단계 -

1988년 미국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최종집계에 의하면 총 91,602,291명의 유권자가 투표하였다. 즉, 총 유권자 수의 50.16%에 해당된다. 민주주의 전통이 일천한 제3세계의 나라들도 대개는 이보다 투표율이 높다. 부시 후보의 4,900만 표에 가까운 득표 수는 득표율로 보면 53%가 조금 넘는 것이지만 그것은 총유권자 수로 볼 때 겨우 27%에 지나지 않는다. 즉, 미국 총인구 중 약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런 민형성 대통령선거 결과가 보여 주는 미국의 경향을 우려해 왔다. 미국의 현대정치 비평가들은 겉치레와 TV 이미지 조작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별로 없는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이 지나는 무감각한 진부성을 지적한다.

미국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와도 분위기가 냉랭하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여차피 변할 것이 없을 바에야 누가 되든 상관 있겠느냐는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향이 그대로 오래 지속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지 못한, 위험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사람들이 대통령선거에 무관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과정이 지루하게 길고 복잡하다는 데 있다. 이 점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거기 얽힌 의문들을 풀어보기로 한다.

#### 1. 선거인단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은 정당의 무슨 정치학교가 아니다. 미국제도에서 이 선거인단 제도만큼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당혹감을 주는 것도 흔치 않다. 선거인단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어른들도 움츠러들어 팔을 더듬게 된다. 선거인단은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하는 의문은 매 4년마다 논쟁의 제목이 되는데도 그 제도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은 투표자들이 뽑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미국 정치제도의 다른 모든 관행처럼 선거인단도 타협의 산물이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초안을 잡기 위해 모여 앉아 대통령선거 규정 부분을 논의했을 때

확실한 것은 오직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된다는 것뿐이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대표들에게 말했듯이, 「첫번째로 키를 잡을 사람은 좋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엔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모른단 말이요.」

인민에 의한 직접선거가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일 듯 싶었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은 민주주의가 너무 흔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래서 대통령 선출과정에 대한 제어력을 유지하자는 뜻에서 그들은 선거인단이란 것을 창안하여, 각 주마다 그 주 출신의 의회 상하양원 의원 수와 동수의 대통령선거인을 뽑도록 하였다. 선거인을 뽑는 방법은 주마다 형편에 따라서 상하도록 하였다. 각 주에서 뽑혀 나온 선거인들은 함께 2명의 후보를 선정하여 투표하였다. 투표 결과 최다 득표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차위 득표 후보가 부통령이 되었다.

이 제도에는 한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만일 선거인들의 투표 결과 분명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 때에는 의회 하원에서 선거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주마다 균일하게 단 한표의 투표권이 주어졌다. 정당이 없던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워싱턴 이후에는 어느 후보도 절대다수표를 얻지 못할 것이므로 종내는 의회에서 현명한 의원들이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워싱턴 대통령이 되었을 후 얼마 안되어 두 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나오지 못하여 나머지 절차가 의회로 넘겨졌다. 1800년 같은 당에서 나온 토머스 제퍼슨 후보와 야론 비 후보가 선거인단 투표에서 똑같이 73표씩을 얻었다. 그래서 하원에서 다시 선거절차를 거쳐 제퍼슨을 백악관의 주인으로 들어앉혔다. 이 선거 뒤에는 제12차 수정헌법에 의하여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를 따로 투표하에 되었다. 그 후 1824년에는 앤드루 잭슨 후보가 일반투표에서는 앞섰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다수표를 얻는데 실패하였다. 이번에는 의회하원에서 잭슨을 따돌리고 존 퀸시 애덤스 후보를 선출하였다.

사람들은 일반투표에서 이기니 후보가 낙선될 수도 있느냐고 묻는다.

미국 역사에서 그런 사례는 두 번이나 있다. 1876년에 새뮤얼 틸든 후보는 일반투표에서 러더퍼드 헤이스 후보에게 이겼다. 그러나 그 후 헤이스는 부정선거운동을 통하여 충분한 선거인단표를 얻어냄으로써 승리를 훔쳤다. 그 후 1888년에도 글로버 블리블랜드 후보가 일반투표에 이기고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벤저민 해리슨 후보에게 패배당한 일이 있었다.

1988년 선거인 수가 하원의원 수에 상응하는 435명과 상원의원 수 100명에 컬럼비아 특별구(D.C.), 즉 수도 워싱턴 몫으로 3명을 더한 총 538명이었다. 그러던 이

신비에 싸인 선거인들은 누구인가?

의회 의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으므로, 이들은 각각 소속 지방(주)당에서 임명한 일성 당원들로서 선거 당일 소속정당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선거인 투표를 하는 극히 의식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선거인은 일반투표에서 선출된 자기 소속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다. 그 허점으로 인하여 왕왕 상징적인 항의투표가 나타나는데, 그 좋은 예는 1988년의 선거에서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나온 선거인이 마이클 듀카키스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로이드 벤첸에게 투표했던 경우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전통과 당에 대한 충성심에서 선거인단은 선거 당일에 내려지는 인민의 선택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다.

선거인단은 존재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망가지지 않았거든 손대지 말라.> 는 오랜 속담을 믿기 때문이다. 선거인단 제도는 지난 100여년간 일반투표 결과를 확인해 주는 구실을 잘 감당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또한 보는 이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목적에 봉사하고 있다. 즉, 선거인단 제도는 양당제를 보호하는 일종의 헌법상 방패로서 제3당의 후보가 양대당의 후보들에게 진지한 도전할 수 없게 가로막고 있다. 그러므로 제3당의 후보들은 단지 상징적인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든지 또는 양대당 어느 한쪽 후보의 표를 깎아서 다른 한쪽에 유리한 결과를 안겨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수정하여 선거인단제를 폐지하고 보다 간편한 대통령 직선제로 대체하려는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1979년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은 복잡한 선거운동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왜 미국은 옛날에 유권자들로부터 그들의 권리를 빼앗기 위하여 만들어 낸 피상한 장치를 지금도 필요로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이 문제가 다시 고개를 쳐드는 것이다.

## 2. 코커스

코커스(caucus)란 말은 일콘킨 족 언어의 <카우카우아스(caucauas)>란 말, 즉 <충고하는 사람>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측된다. 초기의 정치적 코커스는 정당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선거에 나갈 후보들을 선택하고 기타 당무를 논의하는 회의였다. 처음에는 <담배연기 자욱한 방> 안에서 당의 유력 인사들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던 것이다.

현대의 정치용어에서 코커스란 낱말은 대통령 선거질이 오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주 코커스의 장이 되는 아이오와 주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아이오와 주의 지방 당대회는 모든 소도시에서 따로따로 열리는데, 거기서 후보로 나서길 바라는 당원들이 일어서서 출마 의사를 밝힌다. 이 절차가 전국지명대회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거나 그 대회에 보낼 대표들을 실제로 선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후보의 실력을 일차적으로 시험하며 그들을 주요 보도 매체에 선보이는 기회가 되어 왔다.

1976년의 대통령 선거전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조지아 주지사 지미카터가 아이오와 주 코커스에서 이기고 난 뒤 〈지미가 누구지?〉에서 선두주자로 부상한 이래, 이 조그만 아이오와 주 선거인단의 중요성이 그 절체 무게보다 크게 부풀려진 것이 사실이다. 1988년의 선거전에서는 민주당의 아이오와 주 코커스에서 승리한 리처드 케파르트 후보가 경쟁에서 도중 하차하고서부터 아이오와의 중요성은 몇 단계 아래로 떨어졌다. 오늘날의 아이오와는 보도매체들의 부추김 여하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오르내리는 실정이다.

### 3. 예비선거

코커스가 일반 공개보임인 것과는 달리 예비선거는 정당의 주 단위 후보지명 비밀투표 과정이다. 각 주에서는 당 전국대회에 파견될 대의원들이 투표권자이므로 후보경쟁자들은 거기서 뿔을 겨루는 것이다.

최초로 직접투표에 의한 예비선거가 실시된 것은 1900년 미네소타 주에서였는데, 그 뒤를 다투어 다른 주에서도 예비선거제도가 채용되었다.

처음으로 전통적인 예비선거를 실시한 곳은 뉴햄프셔 주로서 후보들의 중요한 시험장이 되어 왔다. 최근의 미국 역사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예비선거는 1968년의 뉴햄프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유진 매카시 후보가 지명경쟁에서 린든 존슨에게 졌으나 그 득표차가 너무 근소하기 때문에 존슨 후보가 사퇴하고 로버트 케네디 상원의원이 대신 나서서 대통령 자리를 다투었다.

아이오와 주의 코커스처럼 뉴햄프셔 주도 인구의 크기나 당 전국대회에 파견되는 대의원의 수로 볼 때 그 힘은 미미하나 이곳 예비선거가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공화 양당이 최근 결행한 일련의 당 개혁으로 인하여 예비선거 제도는 후보지명 경쟁에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갖게 되었다. 옛날에는 전당대회 대의원을 많이 거느리는 당내 유력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결정했지만 지금은 예비선거를 통해서 후보경쟁자들이 후보지명 전당대회에 앞서서 대의원들의 표를 미리 챙길 수 있게 되었다.

#### 4. 대의원 섹

후보경쟁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코키스와 예비선거의 목적은 단 한가지이다.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들로부터 지지표를 끌어모으는 일이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친 개혁이 있기 전까지는 대부분이 당료들, 즉 후보자 선정에 발언권이 센 <킹메이커> 들의 수하에서 움직이는 당원들이었다. 근년에는 예비선거를 통해서 전당대회 대의원들을 유권자들이 직접 선거하게 되어 그만큼 권력 브로커들의 힘은 약해지고 유권자들의 힘이 훨씬 강해졌다.

<대의원 섹(delegate count)> 이라고 하는 말은 예비선거에서 한 후보경쟁자에게 지지표를 던진 대의원들의 수를 합산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합산한 표가 더 많은 경쟁자가 대통령 후보로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후보지명 전당대회 이전에는 당의 후보가 누가 될지 확실하지 않았다.

전당대회장에서 벌어지던 드라마와 초조한 분위기와 뒷방의 흥정 그리고 기기에 이어 되풀이되던 점호와 투표절차 등이 이제는 높은 수준으로 다듬어진 부용쇼 프로 정도로 대체되어, 대회장은 예비선거에서 다수표를 얻어 이미 걸정이 난 후보를 확인하여 공식으로 지명하는 축하행사장으로 변모하였다.

정당의 규정은 신축성이 있어 정치환경에 따라서 계속 변해가긴 하지만, 예비선거제가 묶은 정치적 보스체제를 밀어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보지명, 전당대회의 선성시대는 끝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역대 대통령과 행정부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1	1789	조지 워싱턴 (부통령) 존 애덤스	
	1792	조지 워싱턴 (부) 존 애덤스	
2	1796	존 애덤스(연방당) (부) 토머스 제퍼슨	토머스 제퍼슨
3	1800	토머스 제퍼슨(민주공화당) (부) 아론 버	존 애덤스 및 아론 버

양당제와 정부통령 분리선거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흔히 같은 당에서 3-4명의 후보가 나오는 것이 예사였다. 188년의 선거가 그 가장 두드러진 예이다.

제퍼슨 후보와 아론 비 후보 둘 다 민주공화당 소속으로서 그중 제퍼슨이 비공식이나마 당의 후보자로 되어 있었는데, 선거인단 투표결과 둘이 똑같이 73표를 얻었다.

연방당에서 나온 존 애덤스와 찰스 핑크니 후보가 그 뒤를 바짝 쫓아 각각 65표와 64표를 얻었다. 선거는 이른바 <188년의 혁명> 이란 이름으로 하원에서 결판이 났다.

대	연 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3	1804	토머스 제퍼슨(민주공화당) (부)조지 클린턴	찰스 핑크니
4	1808	제임스 매디슨(민주공화당) (부)조지 클린턴	찰스 핑크니
	1812	제임스 매디슨(민주공화당) (부)엘브리지 게리	데 위트 클린턴
5	1816	제임스 먼로(민주공화당) (부)다니엘 톰킨스	루퍼스 킹
	1820	제임스 먼로(민주공화당) (부)다니엘 톰킨스	존 퀸스 애덤스
6	1824	존 퀸스 애덤스 (민주공화당) (부)존 퀘호운	앤드루 잭슨

1824년 선거에는 존 퀸스 애덤스, 앤드루 잭슨, 헨리 클레이 및 윌리엄 크로포드 등 4명의 적법 대통령후보가 출마하였다. 그중 잭슨 후보가 일반투표에서 뿐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선거인단 표에서 정족수에 미달하였다. 그래서 선거는 하원으로 넘겨졌고, 하원 내 유력한 지도자인 클레이 후보가 사퇴하고 자기 지지표를 존 퀸스 애덤스에게 몰아주어 그를 당선시켰다. 그것이 이른바 <더러운 흥정> 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다.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7	1828	앤드루 잭슨(민주당) (부)존 캘호운	존 퀸시 애덤스
	1832	앤드루 잭슨(민주당) (부)마틴 반 뷰렌	헨리 클레이
8	1836	마틴 반 뷰렌(민주당) (부)리처드 존슨	윌리엄 해리슨
9	1840	윌리엄 해리슨(휘그당) (부)존 타일러	마틴 반 뷰렌
10	1841	존 타일러(휘그당)	

해리슨 대통령이 취임 수개월 만에 서거함으로써 타일러가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직을 승계한 첫 번째 부통령이 되었다. 타일러는 전임 해리슨의 각료들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부통령 자리는 매우 지켰다. 1967년 제 25차 수정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헌법에 부통령 후임 선임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11	1844	제임스 폴크(민주당) (부)조지 달러스	헨리 클레이
12	1848	자차리 테일러(휘그당) (부)밀러드 필모어	루이스 캐스
13	1850	밀러드 필모어(대통령 사망으로 승계함)	
14	1852	프랭클린 피어스(민주당) (부)윌리엄 킹	윌리엄 스코트
15	1856	제임스 부캐넌(민주당) (부)존 브랙켄리지	존 C. 프레몬트
16	1860	에이브러햄 링컨(공화당) (부)하니탈 햄린	스티븐 더글리스
	1864	에이브러햄 링컨(공화당) (부)앤드루 존슨	조지 매크렐런
17	1865	앤드루 존슨 (링컨 암살로 인하여 대통령직 승계함)	
18	1868	율리시스 그랜트(공화당) (부)찰러 콜렉스	호레이쇼 세이모어
	1872	율리시스 그랜트(공화당) (부)헨리 윌슨	호리스 그릴리
19	1876	러더퍼드 헤이스(공화당) (부)윌리엄 휘러	세뮤얼 털든

탈든 후보가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근소한 차로 앞섰으나 선거인단 표에서 정족수에서 한 표가 부족하였다.

선거인단 표 중 20표가 논란의 대상이었다.

탈든 후보는 20표가 필요하였다. 드디어 공화당 의장이 그 20표는 모두 헤이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말쟁은 1877년 3월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남부에서는 투표와 관련하여 부정이 널리 만연하였다.

문제는 의회로 넘어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거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당별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남부에 대하여 <재편입> 사업을 중지하고 연방정부군을 철수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헤이스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대	연 도	대통령(정당)	경 쟁 자
20	1880	제임스 가필드(공화당) (부)체스터 아서	윈필드 헨콕
21	1881	체스터 아서 (대통령 암살로 인하여 그 직을 승계함)	
22	1884	글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부)토머스 헨드릭스	제임스 블레인
23	1888	벤저민 해리슨(공화당) (부)리바이 미턴	글로버 클리블랜드

1888년 선거에서는 클리블랜드 후보가 일반투표에서 48.6%의 득표로 이겼으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233대 168표로 해리슨 후보에 패배하여 결국 낙선하였다.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24	1892	글로버 클리블랜드(민주당) (부)아들라이 스티븐슨	벤저민 해리슨
25	1896	윌리엄 매킨리(공화당) (부)게릿 호바드	윌리엄 브라이언
	1900	윌리엄 매킨리(공화당) (부)시어도어 루스벨트	윌리엄 브라이언
26	1901	시어도어 루스벨트(공화당) (대통령 암살로 인하여 그 직을 승계함)	
	1904	시어도어 루스벨트(공화당) (부)찰스 워런 페어뱅크	앨던 피커
27	1908	윌리엄 태프트(공화당) (부)제임스 셔먼	윌리엄 브라이언
28	1912	우드로 윌슨(민주당) (부)토머스 마샬	시어도어 루스벨트
	1916	우드로 윌슨(민주당) (부)토머스 마샬	찰스 E. 휴즈
29	1920	워런 하딩(공화당) (부)캘빈 쿨리지	세인트 루크스
30	1923	캘빈 쿨리지(공화당) (대통령 병사로 인하여 그 직을 승계함)	
	1924	캘빈 쿨리지(공화당) (부)찰스 도우스	존 데이비
31	1928	허버트 후버(공화당) (부)찰스 커티스	앨프레드 스미스
32	1932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부)존 낸스 가너	허버트 후버
	1936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부)존 낸스 가너	앨프레드 랜든
	1940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부)헨리 윌리스	웬델 윌키
	1944	프랭클린 루스벨트(민주당) (부)해리 트루먼	토머스 듀이
33	1945	해리 트루먼(민주당) (대통령 병사로 인하여 그 직을 승계함)	
	1948	해리 S. 트루먼(민주당) (부)알벤 비클리	토머스 듀이

34	1952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공화당) (부)리처드 닉슨	아들라이 스티븐슨
	1956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공화당) (부)리처드 닉슨	아들라이 스티븐슨
35	1960	존 F. 케네디(민주당) (부)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
36	1963	린든 존슨(민주당) (대통령 암살로 인하여 11 직을 승계함)	배리 골드워터
	1964	린든 존슨(민주당) (부)허버트 험프리	
37	1968	리처드 닉슨(공화당) (부)스피로 애그뉴	허버트 험프리
	1972	리처드 닉슨(공화당) (부)스피로 애그뉴/제럴드 포드	소지 맥거번

닉슨의 러닝메이트 애그뉴는 메릴랜드 주지사였는데, 지방관서장으로 있을 때 세금포탈과 수뢰혐의로 고발당하였다. 그는 후에 세금포탈 혐의 부분에 대하여 불문에 부치기로 양해하고 부통령직에서 사임하였다. 부통령의 사망 사임 등 유고시에 질서 있는 승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1967년에 통과된 제25차 수정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닉슨은 제럴드 포드 하원의원을 부통령에 임명하고 의회의 인준을 받았다.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38	1974	제럴드 포드(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후 사임함에 따라서 포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포드는 제25차 수정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뉴욕 주지사 록펠러를 부통령에 임명하였다.

대	연도	대통령(정당)	경쟁자
39	1976	지미 카터(민주당) (부)월터 먼데일	제럴드 포드
40	1980	로널드 레이건(공화당) (부)조지 부시	지미 카터
	1984	로널드 레이건(공화당) (부)조지 부시	월터 먼데일
41	1988	조지 부시(공화당) (부)덴포스 퀘일	마이클 듀카키스
42	1992	빌 클린턴(민주당) (부)앨 고어	조지 부시 로스 페로

# 사진으로 보는 연수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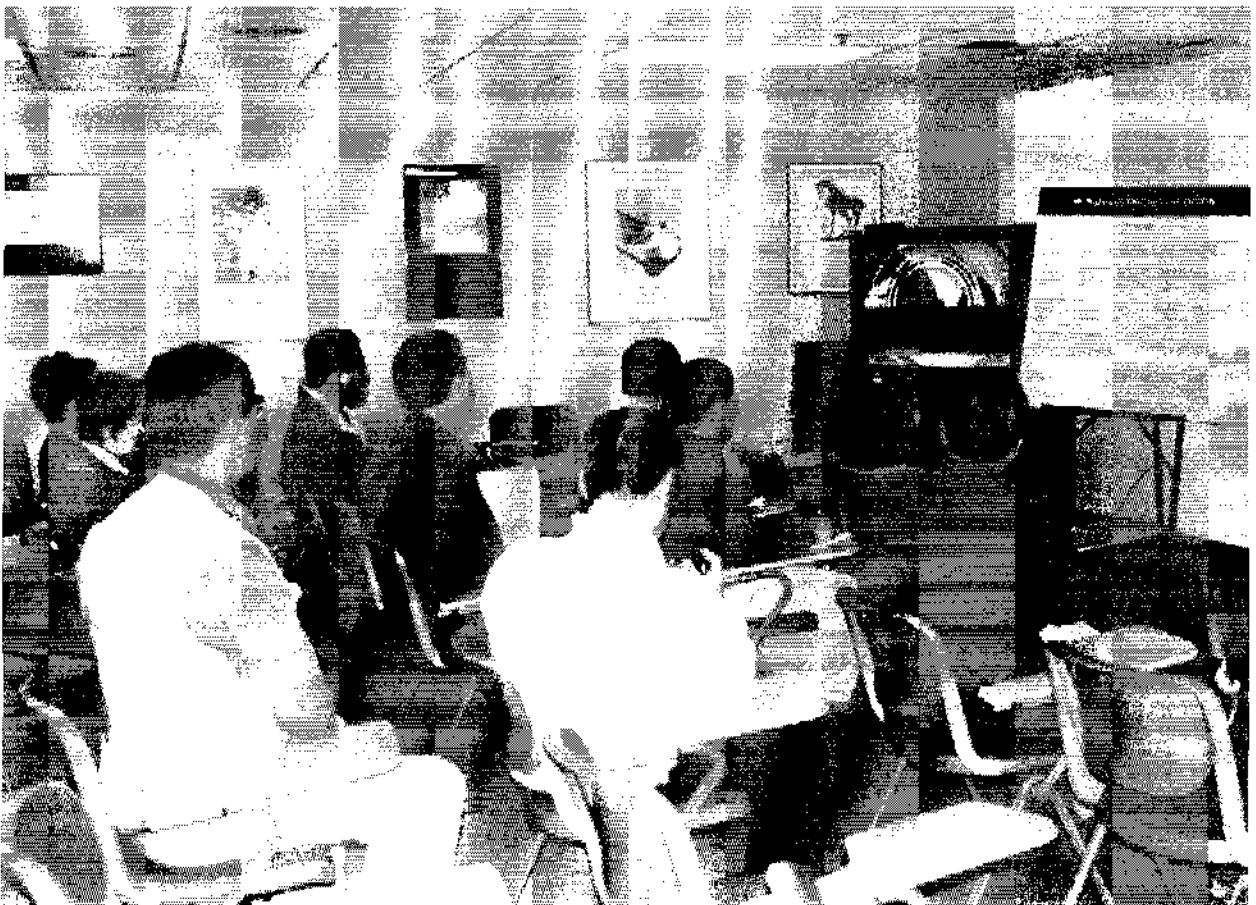
■ 레드후크 수질오염 정화시설센터





■ 국립보건연구원(NIH) - 커뮤니티센터





■ 오타와 시의회와 시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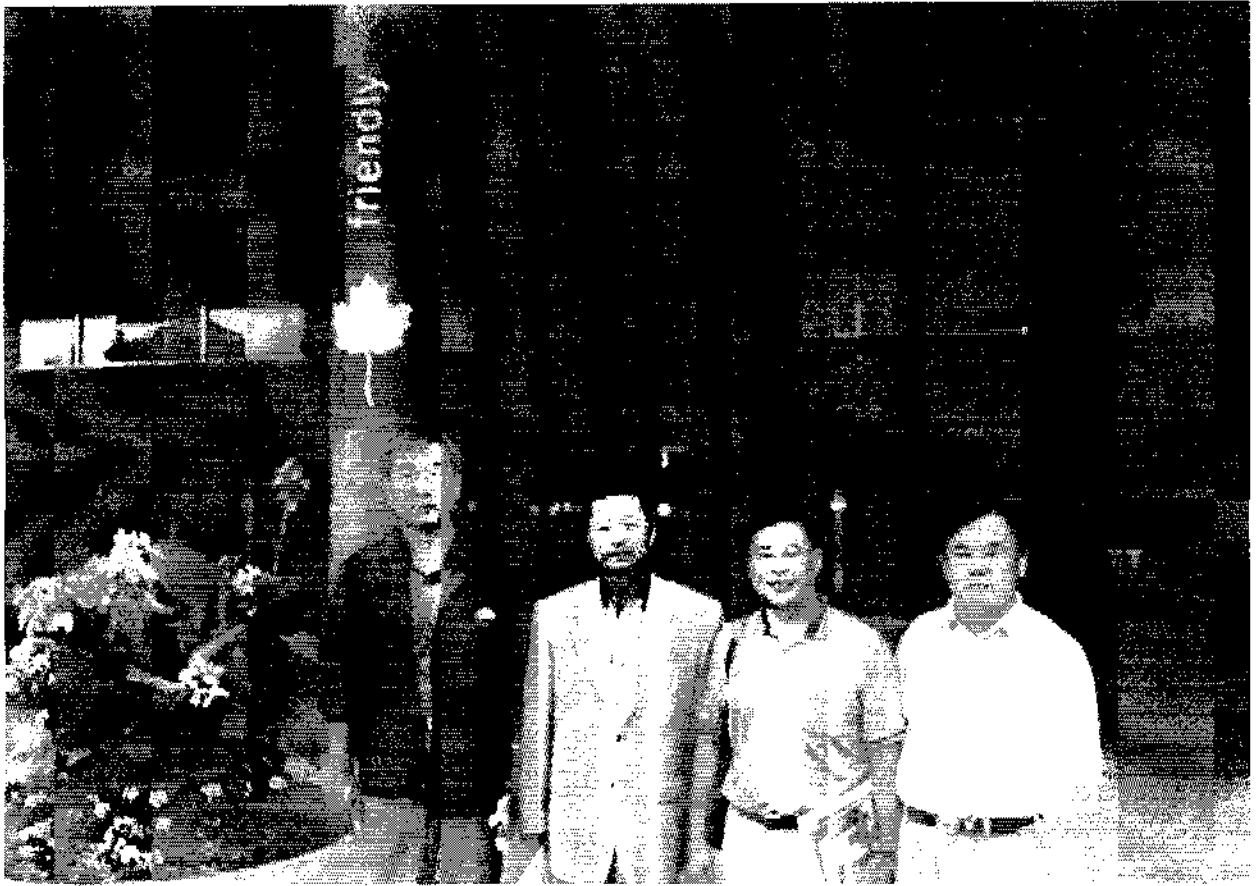
■ 오타와 국회의사당



■ 오타와시 정보센터



■ 투올투 시청과 투올투 환경 꽃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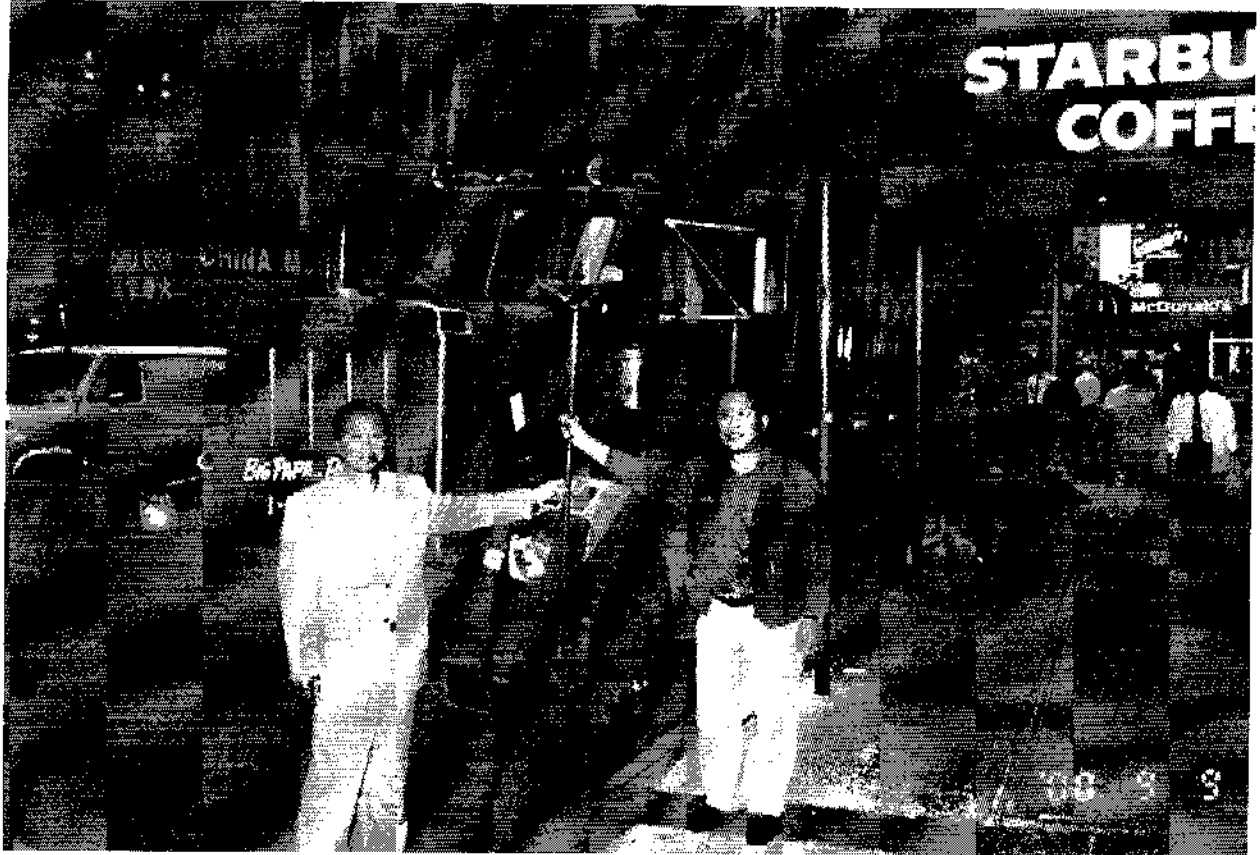




□ 남북통일 음악제 전야제와 링컨센터



▣ 뉴욕시 건축 폐기물 처리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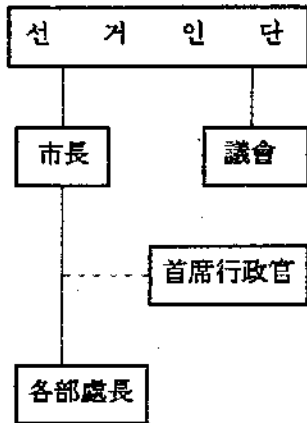


▣ 자연친화적 환경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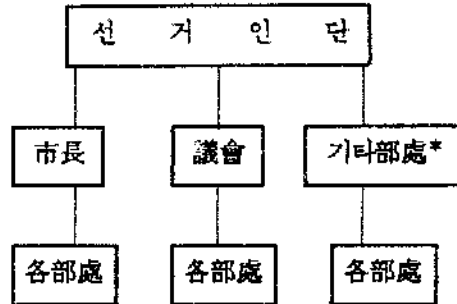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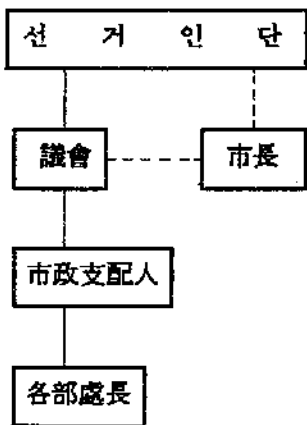
強市長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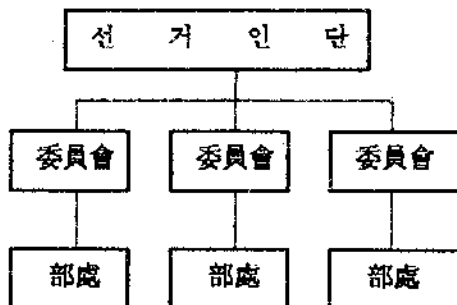
弱市長型



議會-市政支配人型



委員會型



<그림 1 : 미국市政府의 諸形態>

\* 기타部處는 市長 및 議會가 책임지지 않는 업무(예를 들면 財務, 法律 등)를 총괄하는 곳으로서 대부분 선거에 의해 구성됨

\*\* 그림에서 실선은 강력한 연계관계를 나타내고 점선은 미약한 연계관계를 나타낸다.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 Institutes & Offices

---

*Comprised of 25 separate Institutes and Centers, the NIH is one of eight health agencies that is part of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r more information, a brief program summary is provided for each Institute and Center.*

---



Office of the Director (OD)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National Eye Institute (NE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HLBI)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NIAMS)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NIDCD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NIDCD)



- KOREAN AIR LEGEND**
- National Capital
  - City
  - Korean Air Destination
  - Korean Air Overseas Office
  - Other Selected Cities
  - Korean Air Routes

1:65,007,300

0 2000 4000 kilometers

Map published by American Map Corporation,  
© 1997 GeoSystems Global Corp.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IDCR\)](#)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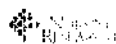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NIGMS\)](#)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NINR\)](#)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Warren Grant Magnuson Clinical Center \(CC\)](#)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CIT\)](#)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 \(NCRR\)](#)



[John E.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FIC\)](#)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CSR\)](#)

---

[FAQs](#) - [Search NIH](#) - [Comments](#) - [What's New](#) - [Información en español](#)

[NIH Home Page](#) - [About NIH](#) - [News](#) - [Health](#) - [Funding](#)  
[Science](#) - [Institutes](#) - [Employees](#)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Bethesda, Maryland 20892

# ClinicalTrials.gov

A service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evelop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Linking Patients to Medical Research

[Home](#) | [Search](#) | [Browse](#) | [Resources](#) | [User's Guide](#) | [What's New](#) | [About](#)

The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through it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has developed *ClinicalTrials.gov* to provide patients, family members and members of the public current information about clinical research studies. Before searching, you may want to learn more about [clinical trials](#) and more about [this Web site](#). Check often for regular updates to *ClinicalTrials.gov*.

## Search Clinical Trials

Enter words or phrases, separated by commas:

[Help](#)

Include synonyms in search

[Focused Search](#)

## Browse

[Browse by Condition](#) - studies listed by disease or condition

[Browse by Sponsor](#) - studies listed by funding organization

## Resource Information

[Understanding Clinical Trials](#) - information explaining and describing clinical trials

[MEDLINEplus](#) - health care information select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IH Health Information](#) - research supported by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healthfinder®](#) - consumer health and human services information

---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20894](#)

[Contact NLM Customer Servic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Copyright and Privacy Policy](#)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bout NIH](#) - [Health](#) - [News](#) - [Funding](#) - [Science](#) - [Institutes](#) - [Employees](#)

[FAQs](#) - [Search NIH](#) - [Comments](#) - [Privacy Policy](#) - [What's New](#) - [Información en español](#) - [Employment Opportunities](#)



### About NIH

Visitor information -- employment -- employee directory -- public involvement -- education -- history -- facts and figures -- Freedom of Information



### Health Information

Publications -- clinical trials -- health hotlines -- A-Z subject index -- Institutes -- MEDLINEplus -- other credible resources



### News and Events

In the news -- press releases -- calendars -- radio and video -- media contacts



### Grants and Funding Opportunities

Grants and funding information -- application kits -- grants policy -- 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 -- [research training](#) -- [Research contracts](#) -- Requests for Proposals -- contract proposal policies



### Scientific Resources

Intramural research -- special interest groups -- library catalogs -- journals -- research training -- research labs -- scientific computing



### Institutes and Offices

The organizations that make up the NIH.



### Information for Employees

A subject index of work place informatio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Bethesda, Maryland 20892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Funding Opportunities

*Grants, Research Contracts, Research Training,  
Peer Review, and the NIH Guide*

Grants

Research  
Contracts

Research  
Training

CSR-Review

NIH Guide

IC Sites

---

**Grants Page** -- Leads to information about NIH grant and fellowship programs, applying for a grant or fellowship, policy change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of awardees, peer review policies and procedures, the [CRISP database](#), and the numbers and characteristics of awards made by the NIH. [Managed by the Office of Extramural Research (OER).]

[ [Graphical Version](#) ] [ [Text Only Version](#) ]

**Research Contracts** -- This site contains information about Requests for Proposals and resources for those preparing proposals. Information on [selected R&D Requests for Proposal \(RFPs\)](#) is managed by the Office of Contracts Management (OCM).

**Research Training Opportunities** -- The NIH web site dedicated to Biomedical Research Training Resources and Opportunities. It has been designed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intramural and extramural training opportunities of the 21 NIH Institutes and Centers.

**Peer Review** -- The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CSR) manages the initial review groups that review most of the investigator-initiated applications. It is also the entry point for application receipt and referral.

**NIH Guide for Grants and Contracts** -- The *Guide* is the official document for announcing the availability of NIH funds for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and research training and disseminating policy and administrative information.

**Pages of the Institutes and Centers** -- Each major component of the NIH that has Web site. Some of these sites may contain information of interest to the grantees and staff of that component. Some of these sites include links to the general resources found within the Grants Page system.

---

[NIH Home Page](#) - [NIH Search Engine](#) - [What's New](#)

[Welcome to NIH](#) - [News and Events](#) - [Health Information](#) - [Funding Opportunities](#)  
[Scientific Resources](#) - [Institutes and Offices](#) - [Information for Employees](#)

---

Please send comments, questions, or feedback to the [NIH Office of Communications](#). For immediate help in locating information on our Web site, please try using the [NIH Search Eng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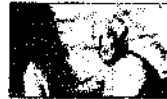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Bethesda, Maryland 20892

7/14/00 9:38 AM



# MEDLINEplus Health Information



Selected for You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Drug Information](#)

[Dictionaries](#)

[Medical Encyclopedia](#)

[Doctors/Dentists](#)

[Hospitals](#)

[Organizations](#)

[MEDLINE](#)

[Databases](#)

[Publications/News](#)

[Libraries](#)

[About MEDLINEplus](#)

[Search MEDLINEplus](#)

**F**ind information on hundreds of diseases, conditions and wellness issues

Choose a Topic by Letter: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List of All Topics](#)

Choose a Topic by Category:

[Blood/Lymphatic System](#)



Go



**NEW! Drug Information** is now available on MEDLINEplus

Selected New Sites and Links on MEDLINEplus

- ▶ [Caring for Loved Ones Who Are Mentally Impaired](#)
- ▶ [Radon Gas Confirmed as Second Largest Risk Factor for Lung Cancer](#)
- ▶ [Treating Tobacco Dependence](#)

We welcome your comments.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8600 Rockville Pike, Bethesda, MD 20894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Copyright and Privacy Policy](#), [Freedom of Information Act](#)  
[Link to MEDLINEplus from your Web Site](#)

## NIH Program Activities

NIH's program activities are represented by its Institutes and Centers (ICs), as listed below, along with a brief overview of each's essential mission.

**National Cancer Institute (NCI)** leads a national effort to reduce the burden of cancer morbidity and mortality and ultimately to prevent the disease. Through basic and clinical biomedical research and training, NCI conducts and supports programs to understand the causes of cancer; prevent, detect, diagnose, treat, and control cancer; and disseminate information to the practitioner, patient, and public.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NIHLBI)** provides leadership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in diseases of the heart, blood vessels, lungs, and blood and in transfusion medicine through support of innovative basic, clinical, and population-based and health education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NIDCR)** provides leadership for a national research program designed to understand, treat, and ultimately prevent the infectious and inherited craniofacial-oral-dental diseases and disorders that compromise millions of human lives.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NIDDK)** conducts and supports basic and applied research and provides leadership for a national program in diabetes, endocrinology, and metabolic diseases; digestive diseases and nutrition; and kidney, urologic, and hematologic diseases. Several of these diseases are among the leading causes of disability and death; all seriously affect the quality of life of those who have them.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NINDS)** supports and conducts research and research training on the normal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nervous system and on the causes, prevention, diagnosis, and treatment of more than 600 nervous system disorders including stroke, epilepsy, multiple sclerosis, Parkinson's disease, head and spinal cord injury, Alzheimer's disease, and brain tumors.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NIAID)** research strives to understand, treat, and ultimately prevent the myriad infectious, immunologic, and allergic diseases that threaten millions of human lives.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NIGMS)** supports basic biomedical research that is not targeted to specific diseases or disorders. Among the most significant results of this research has been the development of recombinant DNA technology,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biotechnology industry.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NICHD)** research on fertility, pregnancy, growth, development, and medical rehabilitation strives to ensure that every child is born healthy and wanted and grows up free from disease and disability.

**National Eye Institute (NEI)** conducts and supports research, training, health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other programs with respect to blinding eye diseases, visual disorders, mechanisms of visual function, preservation of sight, and the special health problems and requirements of the blind.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NIEHS)** reduces the burden of human illness and dysfunction from environmental causes by, defining, how environmental exposures, genetic susceptibility, and age interact to affect an individual's health.

**National Institute on Aging (NIA)** leads a national program of research on the biomedical, social, and behavioral aspects of the aging process; the prevention of age-related diseases and disabilities; and the promotion of a better quality of life for all older Americans.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NIAMS)** supports research into the causes,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the training of basic and clinical scientists to carry out this research, and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research progress in these diseases.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NIDCD)** conducts and supports biomedical research and research training on normal mechanisms as well as diseases and disorders of hearing, balance, smell, taste, voice, speech, and language that affect 46 million Americans.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NIMH)** provides national leadership dedicated to understanding, treating, and preventing mental illnesses through basic research on the brain and behavior, and through clinical, epidemiological, and services research.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leads the nation in bringing the power of science to bear on drug abuse and addiction through support and conduct of research across a broad range of disciplines and rapid and effective dissemination of results of that research to improve drug abuse and addiction prevention, treatment, and policy.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NIAAA)** conducts research focused on improving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lcoholism and alcohol-related problems to reduce the enormous health, social, and economic consequences of this disease.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NINR)** sponsors research that focuses on the clinical care of individuals and on their responses to actual or potential health problems. Through its broad mandate, NINR-supported scientists seek to understand and mitigate the effects of acute and chronic illness and disability, promote healthy behaviors and prevent the onset or worsening of disease and improve the environment in which care is administered.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NHGRI)** Supports the NIH componen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a worldwide research effort designed to analyze the structure of human DNA and determine the location of the estimated 100,000 human genes. The NHGRI Intramural Research Program develops and implements technology for understanding, diagnosing, and treating genetic diseases.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 (NCRR)** advances biomedical research and improves human health through research projects and shared resources that create, develop, and provide a comprehensive range of human, animal, technological, and other resources. NCRR's support is concentrated in four areas: biomedical technology, clinical research, comparative medicine, and research infrastructure.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 identifies and evaluates unconventional health care practices; and supports, coordinates and conducts research and research training on these practices and disseminates information.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FIC)** leads the NIH's efforts to advance the health of the American public, and citizens of all na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global health threats.

**Warren Grant Magnuson Clinical Center (CC)** is the clinical research facility of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As a national resource, it provides the patient care, services, and environment needed to initiate and support the highest quality conduct of and training in clinical research.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CSR)** is the focal point at NIH for the conduct of initial peer review, the foundation of the NIH grant and award process. The Center carries out peer review of the majority of research and research training applications submitted to the NIH. In addition, the Center serves as the central receipt point for all such Public Health Service (PHS) applications and

makes referrals to scientific review groups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merit review of applications and to funding components for potential award. To this end, the Center develops and implements innovative, flexible ways to conduct referral and review for all aspects of scienc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is one of three national libraries. It collects, organizes, and makes available biomedical science information to investigators, educators, and practitioners and carries out programs designed to strengthen medical library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Its electronic data bases, including MEDLINE, are used extensively throughout the world.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CIT formerly DCRT, OIRM, TCB)** incorporates the power of modern computers into the biomedical program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he NIH by focusing on three primary activities: conducting-computational biosciences research, developing computer systems, and providing computer facilities.

---

[NIH Home Page](#) - [NIH Search Engine](#) - [What's New](#)

[Welcome to NIH](#) - [News and Events](#) - [Health Information](#) - [Funding Opportunities](#)  
[Scientific Resources](#) - [Institutes and Offices](#) - [Information for Employees](#)

---

Please send comments, questions, or feedback to the [NIH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Public Liaison](#). For information about your privacy, please see our [Privacy Notice](#). For immediate help in locating information on our Web site, please try using the [NIH Search Engine](#).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Bethesda, Maryland 20892

#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20892

	<u>Institute/Division/Center</u>	<u>Phone</u>	<u>Information Officer/Address</u>
CC	Clinical Center . . . . .	496-2563	Colleen Henrichsen, 6100 Executive Blvd., Rm. 3C01
CIT	Center for Information Technology . . . . .	496-6203	Vacancy, Bldg. 12A, Rm. 4063
CSR	Center for Scientific Review . . . . .	435-0691	Dr. Sam Joseloff, Rockledge II, Rm. 6160
	Grants Inquiries . . . . .	435-0714	Rockledge II, Room 6095
FIC	Fogarty International Center . . . . .	496-2075	Irene Edwards, Bldg. 31, Rm. D2C-08
NCCAM	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 . . . .	644-6226	Information Clearinghouse, Bldg. 31, Rm. 5B-38
	Media Calls . . . . .	1-888	Anita Greene, Bldg. 31, Rm. 5B-38
		(301)	Pat Newman, Bldg. 31, Rm. 10A-19
NCI	National Cancer Institute . . . . .	496-6641	Bldg. 31, Rm. 10A03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435-3848	Bldg. 31, Rm. 10A03
	Media Calls . . . . .	496-6641	Bldg. 31, Rm. 10A03
NCRR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Resources . . . . .	435-0888	Kathy Kaplan, Rockledge I, Rm. 5046, MSC-7965
NEI	National Eye Institute . . . . .	496-5248	Judith Stein, Bldg. 31, Rm. 6A-32
NIHGR1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 . . . .	402-0911	Cathy Yarbrough, Bldg. 31, Rm. 4B-09
NIHDI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 . . . . .	496-4236	Terry Long, Bldg. 31, Rm. 4A-21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592-8573	Information Center
NIA	National Institute on Aging . . . . .	496-1752	Jane Shure, Bldg. 31, Rm. 5C-27
NIAAA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 . . . .	443-3860	Diane Miller, Wilco Bldg., Rm. 409
NIAID	National Institute of Allergy and Infectious Diseases . . . . .	496-5717	Leslie Fink, Bldg. 31, Rm. 7A-50
NIAMS	National Institute of Arthritis and Musculoskeletal and Skin Diseases . . . . .	496-8190	Dr. Janet Austin, Bldg. 31, Rm. 4C-05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496-8188	Bldg. 31, Rm. 4C-05
NIHHD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 . . .	496-5133	John McGrath, Bldg. 31, Rm. 2A-32
NIDA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 . . . .	443-1124	Beverly Jackson, NSC, Rm. 5213,
NIDCD	National Institute on Deafness and Other Communication Disorders . . . . .	496-7243	Dr. Marin Allen, Bldg. 31, Rm. 3C-35
NIDCR	National Institute of Dental and Craniofacial Research . . . . .	496-4261	Susan Johnson, Bldg. 45, Rm. 4AS-19
NIDDK	National Institute of Diabetes and Digestive and Kidney Diseases . . . . .	496-3583	Betsy Singer, Bldg. 31, Rm. 9A-04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654-3810	Clearinghouse
NIHIS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Health Sciences . . . . .	402-3378	Bill Grigg, Bldg. 31, Rm. B1C-02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541-3345	P.O. Box 12233, Research Triangle Park, NC 27709
NIHMS	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 . . . . .	496-7301	Ann Dieffenbach, Bldg. 45, Rm. 1AS.25
NIMH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 . . . .	443-4513	Clarissa Wittenberg, NSC, Rm. 8184, MSC 9663
	Media Calls . . . . .	443-4536	
NINDS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 and Stroke . . . . .	496-5924	Marian Emr, Bldg. 31, Rm. 8A-06
	Public Inquiries and Publication Requests . . . . .	496-5751	Bldg. 31, Rm. 8A-16
NINR	National Institute of Nursing Research . . . . .	496-0207	Linda Cook, Bldg. 31, Rm. 5B-13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 . . .	496-6308	Robert Mehnert, Bldg. 38, Rm. 2S-10

SEPTEMBER 2000

# Calendar

PATIENT RECREATION ACTIVITIES



**1**

**F R I D A Y**

10:30 a.m.-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2**

**S A T U R D A Y**

1:30-4: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

**S U N D A Y**

Please use the CC Hospital  
Theatre Video Canteen bar  
Channel 10 Movies

**4**

**M O N D A Y**

**HAPPY LABOR DAY**

1:30-4: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5**

**T U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15 p.m.

**T H U R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6:30 p.m.  
**Adult Trip to the Movies**  
Call 6-2233 by 4:3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8**

**F R I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9**

**S A T U R D A Y**

1:30 p.m.  
**City Tour**  
Call 6-2233 by 12:3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1:30-4:0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0**

**C I T Y D A Y**

**13**

**W E D N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Featuring:  
Knitting & Crocheting  
with Malca Haberman  
*14th floor Craftroom*

1:30-4:30 p.m.

STORY TIME: For ages 4-8  
*14th floor Edward Library*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7:00 p.m.

Bingo  
*14th floor Assembly Hall*

**14**

**T H U R S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6:15 p.m.

**Trip to Old Town Alexandria.**  
Call 6-2233 by 4:3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15**

**F R I D A Y**

10:30 a.m.-12:30 p.m.

**18**

**M O N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Craft Workshop Featuring:  
Making A Decorative  
Gift Bag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6:30 p.m.

**Craft Workshop Featuring:  
Making A Quick and  
Easy Quilt**  
*14th floor Craftroom*

**19**

**T U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5:30 p.m.

**A SPIRITUAL GROWTH  
DISCUSSION**  
Contact Karen Morrow  
at 6-3407  
*14th floor Conference Room*

6:30-7:30 p.m.

The Art of Relaxation  
Call the Relaxation  
voicemail on 2-0272, ext. 7  
for more information.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Conference Room*  
14SD220

**21**

**T H U R S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5:30 p.m.

**SOCK HOP**  
and enjoy an evening of good  
food and fun.  
*14th floor Recreation Area*

**22**

**F R I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23**

**S A T U R D A Y**

1:00 p.m.  
**Trip to The National Zoo.**  
Call 6-2233 by 12:0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1:30-4:0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24**

**S U N D A Y**

Please use the CC Hospital

**26**

**T U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A SPIRITUAL GROWTH  
DISCUSSION**  
Contact Karen Morrow  
at 6-3407  
*14th floor Conference Room*

6:30-7:30 p.m.

The Art of Relaxation  
Call the Relaxation  
voicemail on 2-0272, ext. 7  
for more information.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Conference Room*  
14SD220

**27**

**W E D N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Featuring:  
Knitting & Crocheting  
with Malca Haberman  
*14th floor Craftroom*

1:00-1:30 p.m.

**STORY TIME**: For ages 4-8  
*14th floor Edward Library*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7:00 p.m.

Bingo  
*14th floor Assembly Hall*

3:30-4:30 p.m.  
**A SPIRITUAL GROWTH DISCUSSION**  
 Contact Karen Morrow at 6-3407  
*14th floor Conference Room*

6:30-7:30 p.m.  
**The Art of Relaxation**  
 Call the Relaxation voicemail on 2-0272, ext. 7 for more information.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Conference Room*  
 14SD220

# 6

## W E D N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Featuring: Knitting & Crocheting with Malca Haberman**  
*14th floor Craftroom*

1:00-1:30 p.m.  
**STORY TIME** For ages 4-8  
*14th floor Patient Library*

1:30-3:15 p.m. & 6:30-8:0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7:00 p.m.  
**Bingo**  
*14th floor Assembly Hall*

# 11

## M O N D A Y

10:30 a.m.-12:30 p.m.  
**Craft Workshop Featuring: Reverse Applique T-Shir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 6:30-8:0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 12

## T U E S D A Y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15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A SPIRITUAL GROWTH DISCUSSION**  
 Contact Karen Morrow at 6-3407  
*14th floor Conference Room*

6:30-7:30 p.m.  
**The Art of Relaxation**  
 Call the Relaxation voicemail on 2-0272, ext. 7 for more information.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Conference Room*  
 14SD220

10:30 a.m.-12:30 p.m. & 1:30-3:15 p.m.  
**Arts & Crafts Featuring: Knitting & Crocheting with Malca Haberman**  
*14th floor Craftroom*

# 16

## S A T U R D A Y

1:00 p.m.  
**Trip to The Museum of Natural History.**  
 Call 6-2233 by 12:0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

1:30-4: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 17

## S U N D A Y

Please use the C.C. Hospital Theatre Video Guide for Channel 10 Movies

# 20

## M O N D A Y

10:30 a.m.-12:30 p.m.  
**Craft Workshop Featuring: Making A Canvas Tote Bag**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3:30-4:30 p.m.  
**Tai Chi**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6:30 p.m.  
**Adult Trip to the Movies**  
 Call 6-2233 by 4:3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6:30 p.m.  
**Creative Craft Workshop**  
*14th floor Craftroom*

# 29

## F R I D A Y

10:30 a.m.-12:30 p.m. & 1:30-3:30 p.m.  
**Arts & Crafts**  
*14th floor Craftroom*

1:30-3: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 30

## S A T U R D A Y

**Trip to Arlington Cemetery.**  
 Call 6-2233 by 12:00 p.m. day of trip for reservations and meet 5 minutes before trip leaves in 1st Floor Main Lobby with a Dr.'s pass.  
 ♿

1:30-4:30 p.m.  
**Billiards, Basketball & Weightroom**  
 (See back of Calendar)  
*14th floor Gymnasium*

# September

## RECREATION THERAPY PROGRAM HOURS

For more information, call the numbers listed below.

**PLAYROOM (14SD248) 6-4730**  
*Monday, Wed., Thur., Fri.* 10:30-12:30 p.m.  
*Monday-Friday* 1:30-3:30 p.m.  
*Tuesday/Saturday* 11:00-12:30 p.m.  
*Monday, Tues., Wed., Thur.* 6:30-8:00 p.m.

### RELAXATION ROOM

Experience the relaxing benefits of uniquely designed vibroacoustic recliners. Located on the 14th floor Relaxation Room. For more information call the Relaxation VoiceMail at 2-0272 ext. #7 to make an appointment or schedule an alternative time.

*Monday* 2:15 p.m.  
*Tuesday* 10:00 a.m.  
*Wednesday* 3:00 p.m.  
*Thursday* 11:00 a.m.  
*Friday* 11:00 a.m.

### ART OF RELAXATION

An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weekly forum teaching multiple methods of relaxation.

*Tuesday-6:30-7:30 p.m.*  
*14th fl. Conference Room*  
 14SD220

### EXERCISE ROOM (14TH FLOOR GYMNASIUM)

*Monday-Friday* 1:30-3:30 p.m.  
*Tuesday-Thursday-Friday* 10:00-11:00 a.m.

This area is available for patients and their guests. Patients must have a Medical Clearance Form and guests are asked to sign a release. Orientation to the equipment by an RT is necessary before equipment can be used. Equipment includes: Treadmill, Stairmaster, Lifecycles and weights. For Fitness Assessment & Personalized Fitness Plan contact Marcia Smith at 6-5159.

### TAI CHI (14TH FLOOR GYMNASIUM)

Experience the benefits of this non stressful, physical exercise from the Orient.

*Monday and Wednesday* 3:30-4:30 p.m.

### ACUPRESSURE FOR SYMPTOM RELIEF

Experience acupressure and learn self-massage for relief of your symptoms. Open to all patients and their guests.

Please contact Dr. Ge at 6-5157 to schedule individual sessions.

### MEDITATION INSTRUCTION

The meditation technique of Sahaja Yoga is easy to learn. It has no recorded negative side effects and gives relatively quick access to the benefits of holistic self care.

*Wednesdays-6:30-7:30 p.m.* 14th fl. Conference Room

### YOGA

This activity is open to all patients and their guests. Participants are asked to wear comfortable clothing. For more info contact Dr. George Patrick at 6-2278.

*Tuesdays-6:30-7:30 p.m.* 14th fl. Assembly Hall

### PATIENT LIBRARY (14TH FLOOR) 6-3036

*Monday-Friday* 11:00 a.m.-7:00 p.m.  
*Saturday* 11:00 a.m.-6:00 p.m.  
*Federal Holidays* 11:00 a.m.-4:00 p.m.

#### ATTENTION ALL PATIENTS:

*The Library computer (Mac) is Internet accessible.*

#### New in the Library (a sampling):

*Grievance*-K.C. Constantine. Detective Carlucci deals with suspects in a murder, with his unstable mother, and with the gorgeous Franny Perfetti. FICTION

*For the Time Being*-Annie Dillard. Explores the richness of our world and the eternal question of God, evil, individuality, and time. NON FICTION

*Mayo Clinic on Arthritis*. Tips on pain control, diet and exercise as well as descriptions of treatment options, including alternative therapies. HEALTH AND COPING

## NOTICES

### CHAPEL: 14TH FLOOR 6-3407

Office: (14S231)

Mid-Week Devotional Service *Thursday 12:30 p.m.*  
 Catholic: *Daily 11:15 a.m.*  
 Protestant: *Sabbath 10:00 a.m.*  
 Muslim: *Friday 1:30 p.m.*  
 Jewish: *Friday 4:30 p.m.*

### "FRIENDS OF BILL."

*Saturday Morning Live* 10:00-11:00 a.m.

*14th floor Assembly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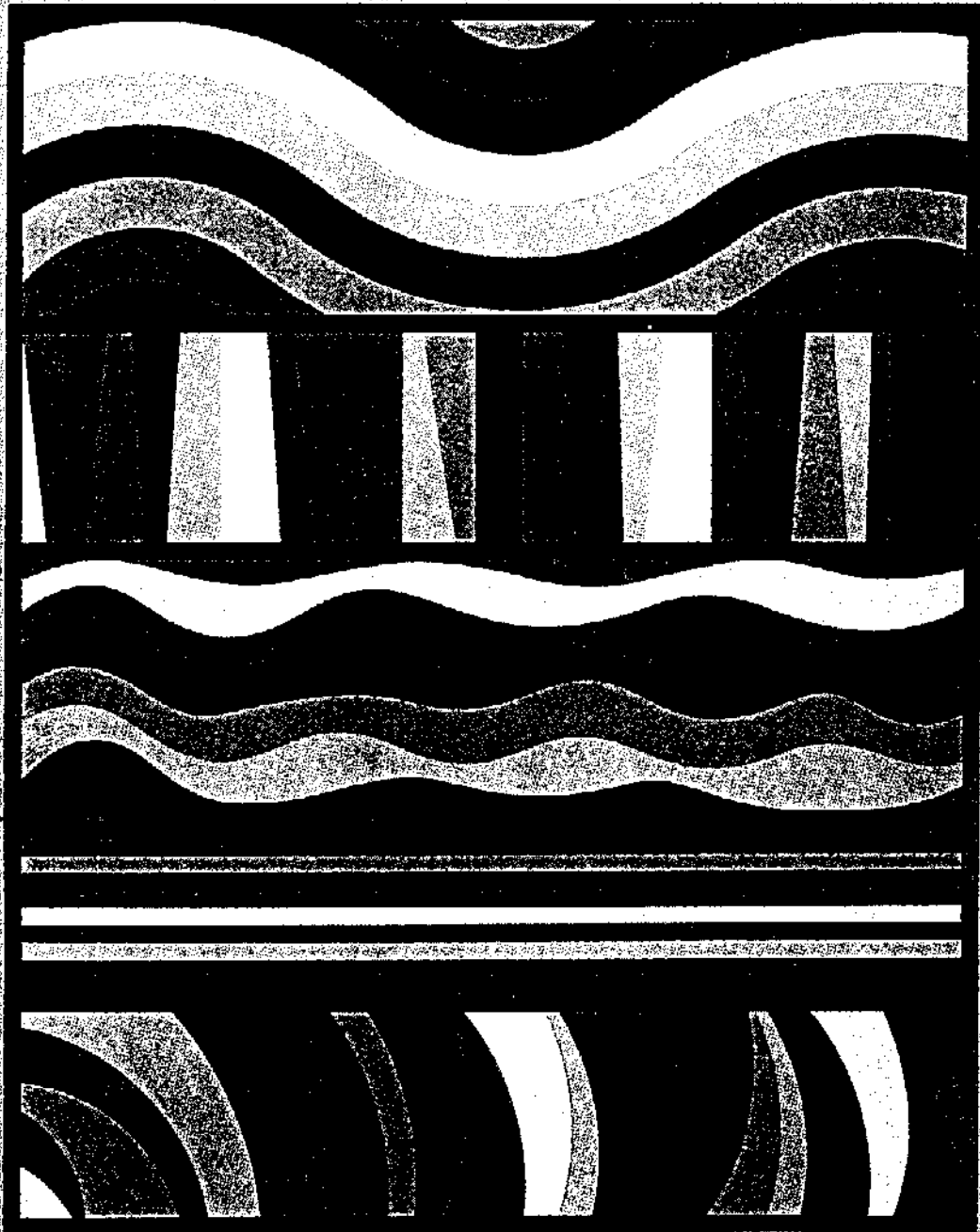
For more info contact Mel Hardy at 301-384-8690

### PATIENT ACTIVITIES CALENDAR

Published monthly by The Recreation Therapy Section, The Cancer Center, Bethesda, Maryland 20892

# STAGEBILL

SEPTEMBER 2000



LINCOLN CENTER



**Avery Fisher Hall  
Lincoln Center**

Home of  
The New York Philharmonic

*Tuesday Evening, September 5, 2000, at 8:00*

# CONCERT FOR UNIFICATION

## AMERICAN ROYAL SYMPHONY

DONG MYUNG PARK, *Conductor*

JUN MOO LEE, *Conductor*

## NATIONAL CHOIR OF NEW YORK

SUNG-KIL KIM, *Baritone*

JUN K. LEE, *Harmonica*

YOUNGOK SHIN, *Soprano*

HAI-KYUNG SUH,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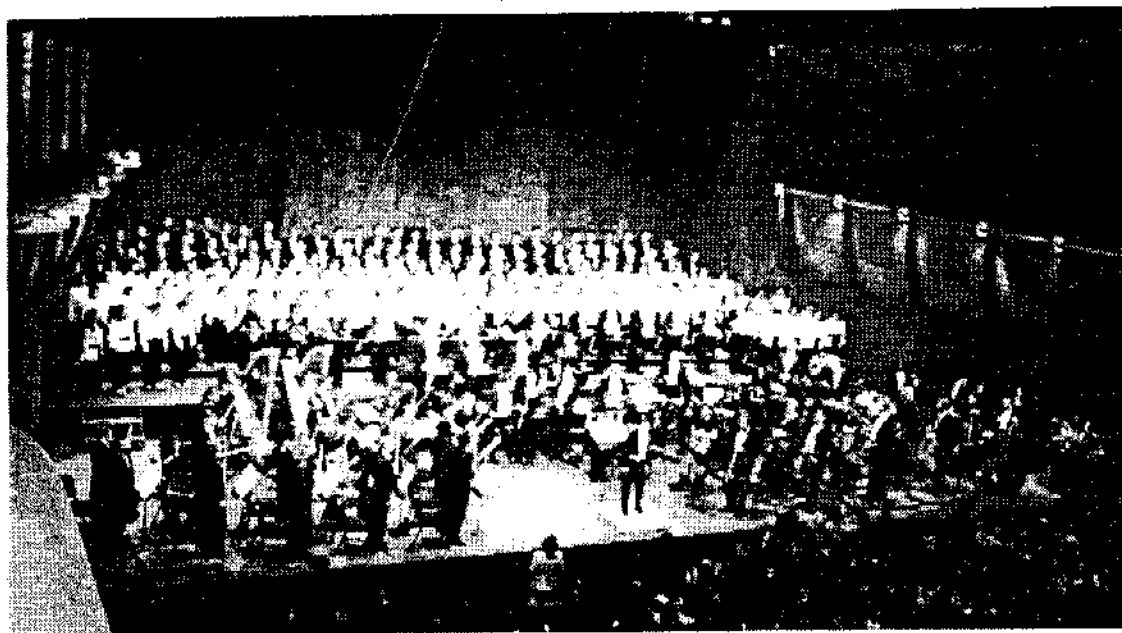
MI-JUNG IM, *Piano*

- WEBER** Overture to *Der Freischütz*
- MOZART** Serenade from *Eine kleine Nachtmusik*  
JUN K. LEE, *Harmonica*
- DONG JIN KIM** "Gagopa"
- MOZART** "Vorrei spiegarti, oh Dio"  
YOUNGOK SHIN, *Soprano*
- DOO NAM JEO** "Sun Gu Ja"
- MOZART** "Non più andrai," from *Le nozze di Figaro*  
SUNG-KIL KIM, *Baritone*
- BEETHOVEN** Piano Concerto No. 5 in E-flat major, Op. 73  
Allegro  
HAI-KYUNG SUH, *Piano*
- Intermission*
- DONIZETTI** "Quel guardo il cavaliere," from *Don Pasquale*
- YOUN JOON KIM** "Chun-San-e Sal-Li-Ra"  
YOUNGOK SHIN, *Soprano*
- JEONG K. KIM** *Bright Sun of Korea* ("Triumph")
- CHOONG NAM YUN** *Korea Is One* (Piano Concerto)  
MI-JUNG IM, *Pia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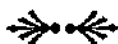
## **PROGRAM**

- KIL HAK KIM** "Moon Kyung Gogae"  
**SUNG HWAN CHOI** "Arirang"  
Korean Folk Song "Sin-Go-San Ta Reung"  
**VERDI** "Di Provenza il mar," from *La traviata*  
SUNG-KIL KIM, *Baritone*  
**EAK TAE AHN** *Korea Fantasy*, for chorus and orchestra

*Public Relations: Jiuna Kim*



*American Royal Symphony  
National Choir of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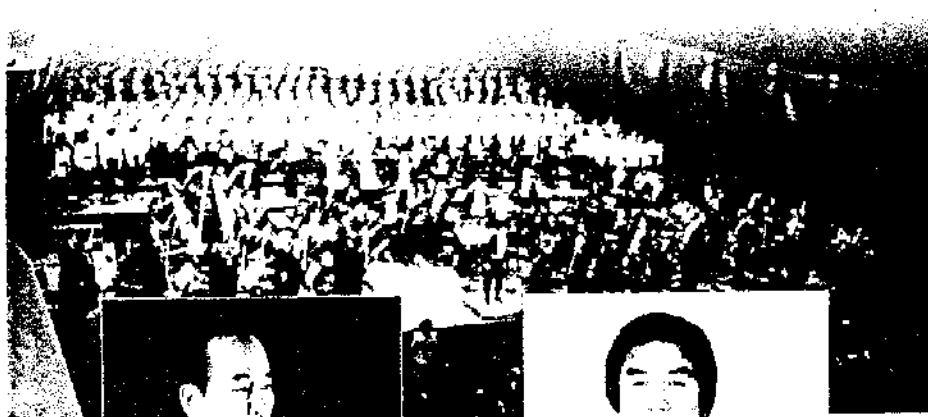


**Taeodam - NY**

*presents*

# The Great Sound of Peace **Korea: We Are One**

Sponsored by Korea Telecom, Byuck-San Group,  
Bogo Tech Co., Ltd. and Korea Telecom Fretel



Joon Moo Lee  
conductor



Dong Myung Park  
conductor

Hai-Kyung Suh, *pianist*

Mi Jung Im, *pianist*

Jun Ku Lee, *harmonica*

Young Ok Shin, *soprano*

Sung-Kil Kim, *baritone*

American Royal Symphony

National Chorus of New York

**Tuesday, September 5th, 2000, 8:00pm**

**Avery Fisher Hall, Lincoln Center**

**Broadway at 65th Street**

*For more information contact*

**The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NY Council**

**(212) 695-0259**

Public Relations Jinna Kim



## *Program* (Updated)

American Royal Symphony

conductor: Dong Myung Park, conductor: Joon Moo Lee

conductor: Dong Myung Park  
My Jesus, As Thou Wilt hymn from Der Freischütz **Weber**

conductor: Dong Myung Park  
Serenade- Allegro, from Eine Kleine Nachtmusik **Mozart**  
harmonica: Jun K. Rhee

conductor: Dong Myung Park  
Non Piu Andrai from Le Nozze di Figaro **Mozart**  
baritone: Sung-Kil Kim

conductor: Dong Myung Park  
Sin Gu Sao Ta Reung **Korean Folk Song**  
haritone: Sung-Kil Kim

conductor: Dong Myung Park  
Vorrei Spiegarti O Dio **Mozart**  
soprano: Young Ok Shin

conductor: Dong Myung Park  
Ga Go Pa **Dong Jin Kim**  
soprano: Young Ok Shin

conductor: Dong Myung Park  
Allegro, from the piano concerto 5 in E-flat major, Op. 73 **Beethoven**  
piano: Hui Kyung Suh

## *Intermission* (15 minutes)

conductor: Dong Myung Park  
Di Provenza il mar from La Traviata **Vardi**  
baritone: Sung-Kil Kim

conductor: Dong Myung Park  
Quel Guardo il Cavaliere, from Don Pasquale **Donizetti**  
soprano: Young Ok Shin

conductor: Joon Moo Lee  
"Triumph" for orchestra **Jeong K. Kim**

conductor: Joon Moo Lee  
"Korea Is One"  
for orchestra and piano solo **Choong Nam Yun**  
piano: Mi Jung 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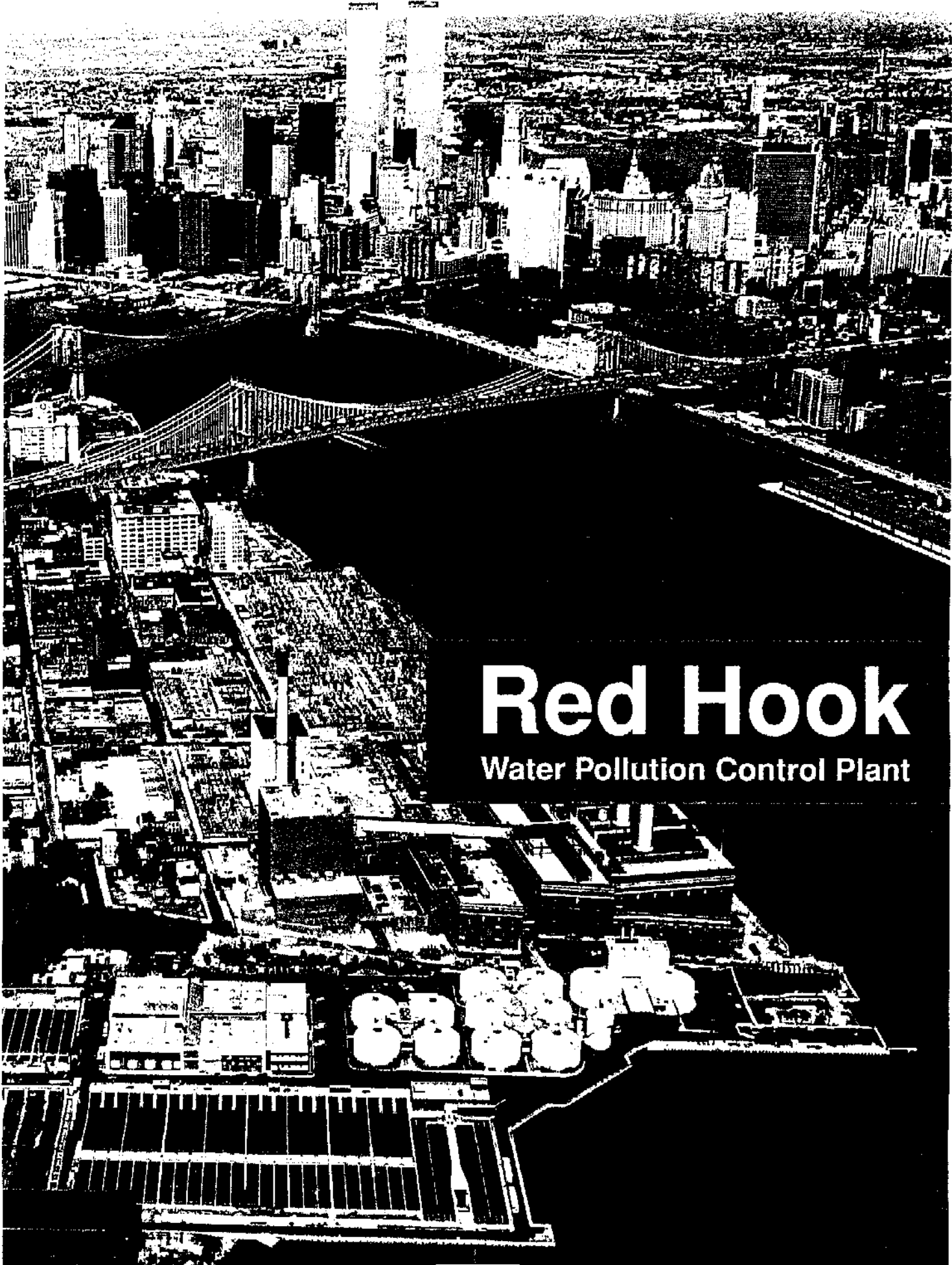
conductor: Joon Moo Lee  
Moon Kyung Go Gogae, for orchestra **Kil Hak Kim**

conductor: Joon Moo Lee  
Arirang, for orchestra **Sung Hwan Choi**

conductor: Dong Myung Park  
KOREA FANTASY **Eaktae Ahn**  
for American Royal Symphony Chorus and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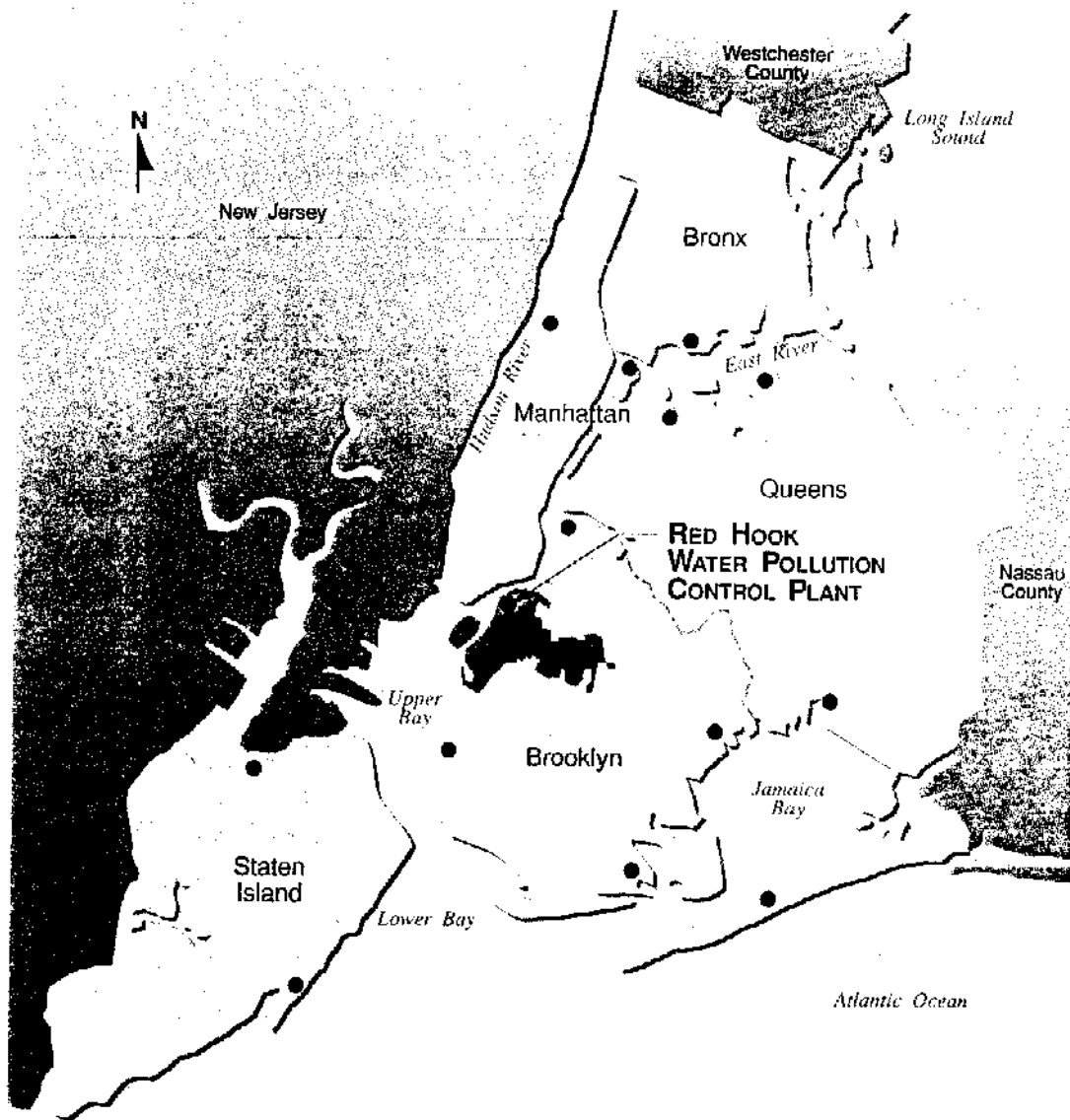
conductor: Dong Myung Park  
Everyone sings: **We Are One Nation**  
1st: Young Ok Shin  
2nd: Sung-Kil Kim  
3rd: Chorus, Orchestra

*Public Relations* Jirna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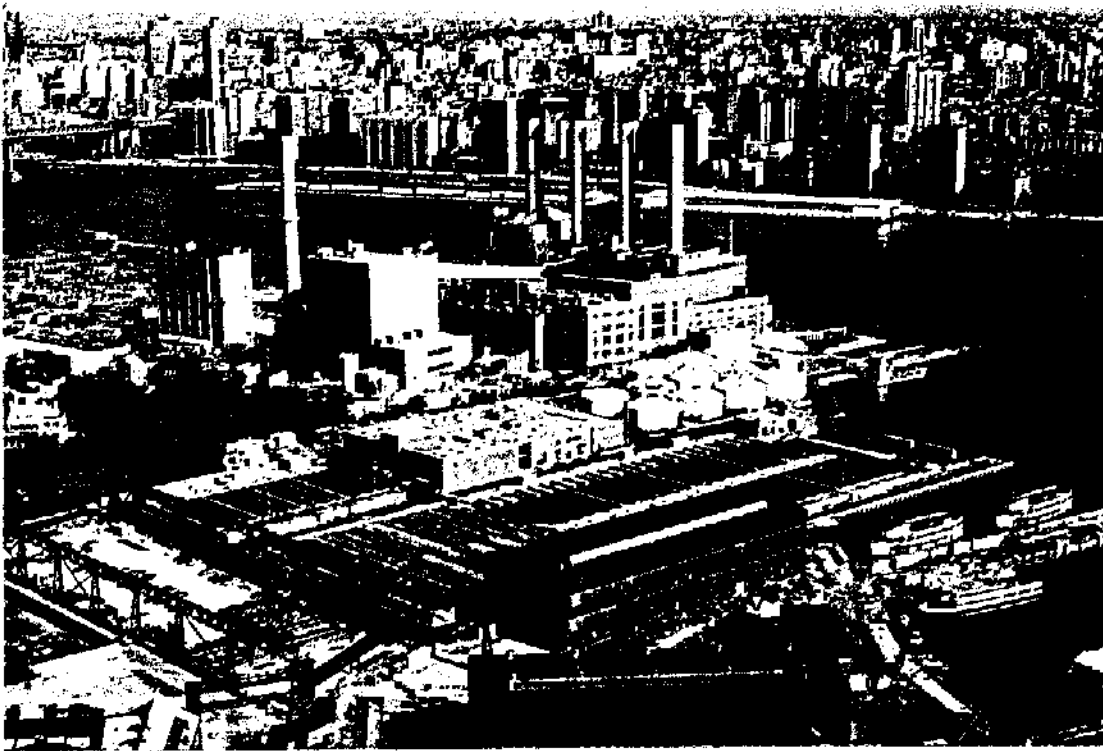
# Red Hoo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



*Red Hook is one of fourteen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s serving New York City.*

The five boroughs of New York City are divided into fourteen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 drainage areas. These fourteen plants treat approximately 1.7 billion gallons of sewage every day. This sewage is conveyed to the plants through approximately 6,000 miles of sewers, built in NYC beginning in 1696.



*The Red Hoo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 is located along the northern boundary of the service area, adjacent to a docking area.*

Located in the former Brooklyn Navy Yard, the Red Hook plant overlooks the East River and complements the panoramic Manhattan skyline. The 3,200-acre service area, encompassing Governor's Island, is predominantly residential in nature with limited commercial and industrial development concentrated along the Gowanus Canal, the Buttermilk Channel and the East River. The area is served by approximately 140 miles of combined sanitary and storm sewers, which until 1987 were discharging about 45 million gallons per day of untreated wastewater directly into the surrounding waterways.

Water quality improvements gained from the Red Hook treatment processes include the removal of unsightly debris, pathogens and oxygen-consuming materials. This improves conditions for aquatic life and enhances the aesthetics of the waterw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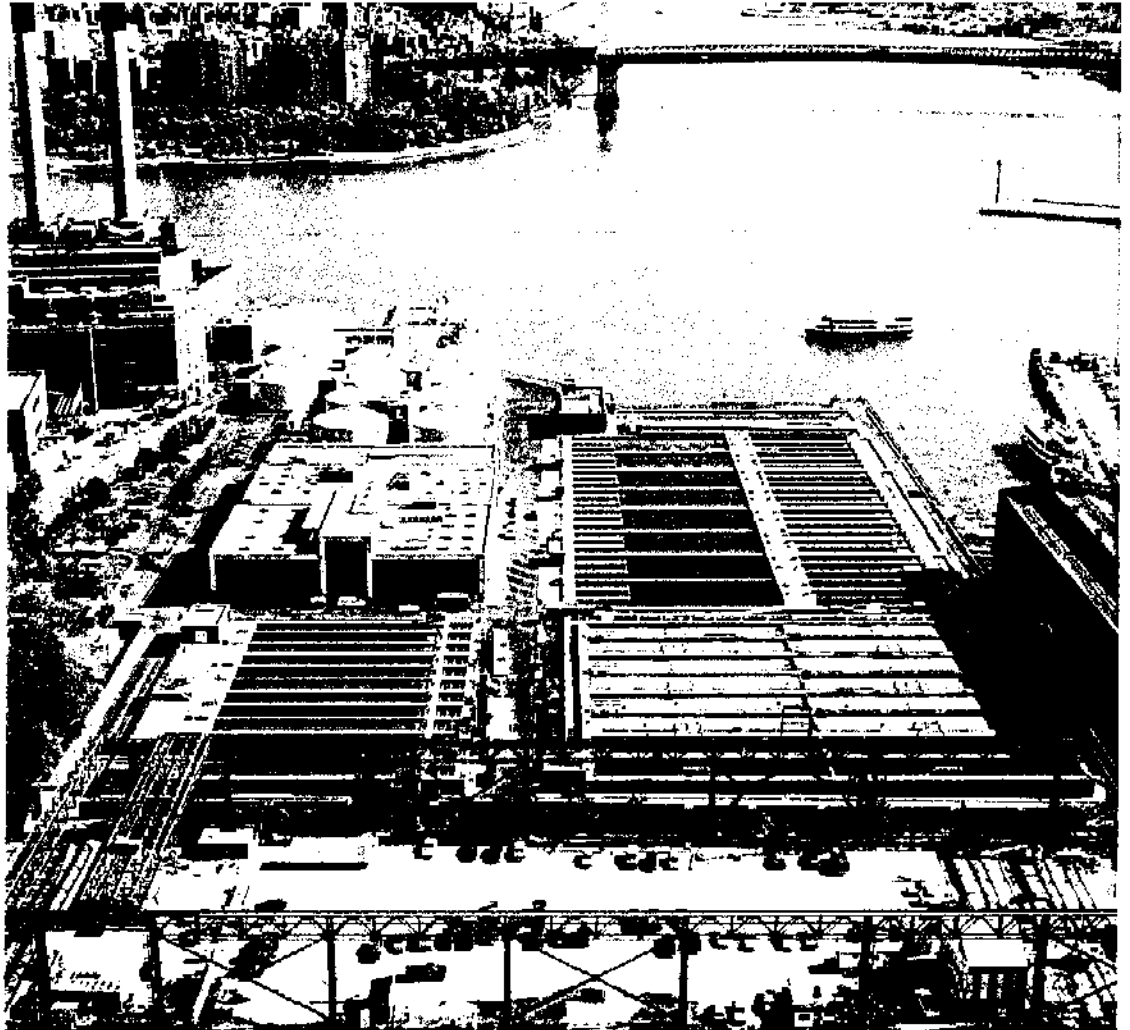
The Red Hook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 is designed to treat an average dry weather wastewater flow of 60 million gallons per day (mgd) and a peak wet weather flow of 120 mgd. It is a conventional facility, using step aeration for full secondary treatment, and final disinfection, to achieve an effluent quality consistent with regulatory standards (85% removal of pollutants).

THE  
NEED  
FOR  
WASTEWATER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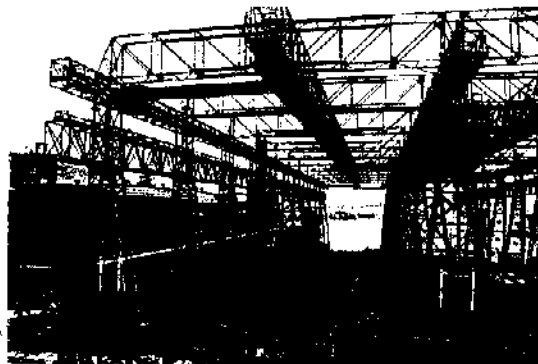


## Historical Overview

### THE NEED FOR WASTEWATER TREAT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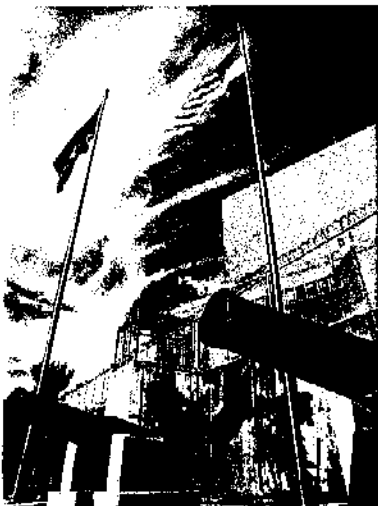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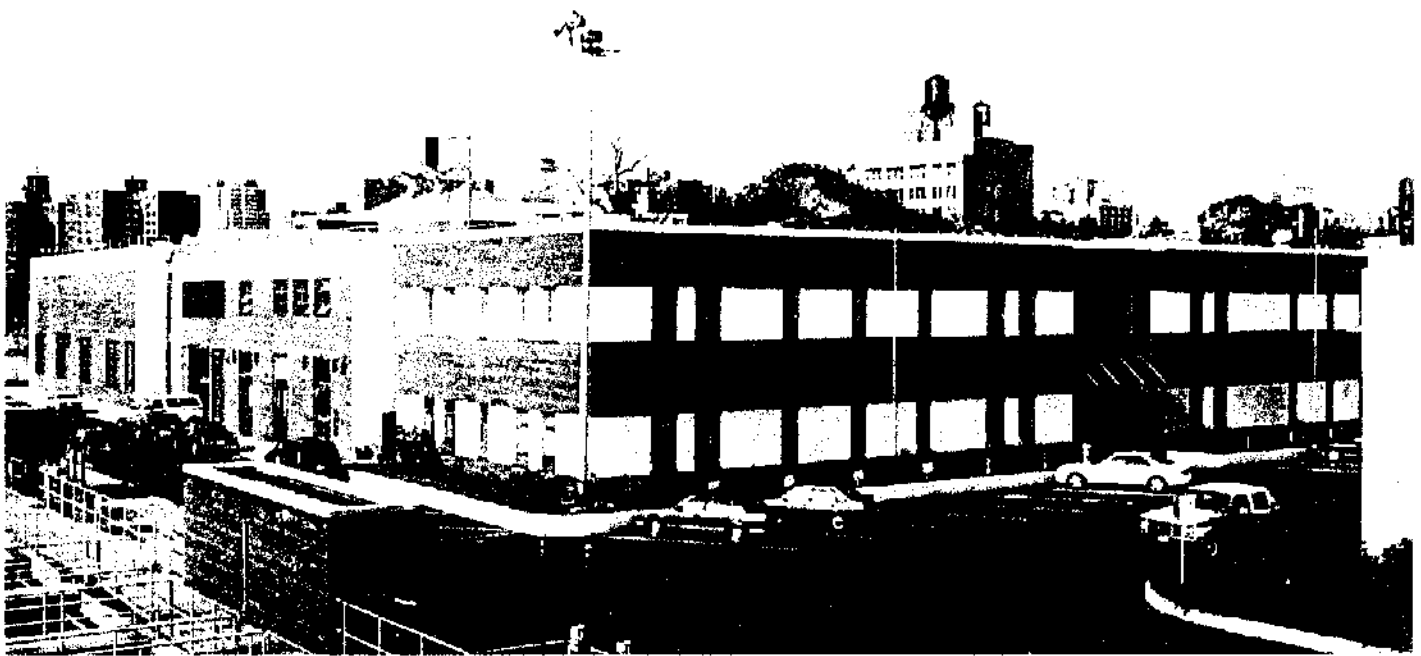


*Aerial view of the Red Hook WPCP, looking north toward the Manhattan Tower of the Williamsburg Bridge. Shipways #1 and #2, utilized for building naval vessels during World War II, occupied areas where new plant structures now stand. The remaining bridge crane, which had been used by the Navy in assembling various sub-assemblies for the ships constructed on shipways #1 and #2, is visible in the foreground*



*Old photograph of shipways #1 and #2.*

Until the late 1800's, local water quality was not an issue; sewers were built simply to protect human health from the spread of disease-causing bacteria. This was accomplished by sending raw sewage directly to the nearest water body. As flooding was also a concern, storm sewers were built to quickly drain the streets and low-lying areas. Since neither storm water nor sewage were to receive treatment (none existed), the two flows were combined under the streets into the same sewer system, and together joined local waterways. Combined sewers made sense, and were built in almost every major metropolitan area in the world. Portions of the NYC sewer system still in use date back to the 1800's, and nearly 85% of today's sewers in NYC are combined, carrying both storm water and sanitary sewage.



*Top: Administration Building  
Above: Main entrance to the Red Hook WPCP. The driveway starts at the head of Morris Avenue, which runs through the Brooklyn Navy Yard and terminates at the Cumberland Street Gate.  
Left: Restored cannons that were found on the site during initial clearing.*

As NYC's population grew, the resulting pollutant loads began to noticeably impact the surrounding water quality. NYC began rudimentary screening of Coney Island's flow to protect its popular bathing beaches in 1886. But by the turn of the century, harbor wide declining water quality caused fish kills and a decrease in the commercially important oyster population. The outbreaks of typhoid in 1904 and '918 led to the closure of the remaining oyster beds, and was the death knell of that industry in NYC.

Basic technology to treat wastewater was finally developed, and NYC began to plan some of the largest facilities ever built to meet the needs of a growing population. Construction of NYC's water pollution control plants began in 1935. Red Hook was originally planned in the 1950's for a small (5.6-acre) site between the Manhattan and Brooklyn Bridges. However, with the passing of time, the wastewater treatment requirements became substantially more stringent, eventually requiring a much larger facility than could be accommodated on the 5.6-acre site. In 1970, when the City purchased the Brooklyn Navy Yard, 19 acres were set aside for the Red Hook WPCP. Under the Navy, the site had been occupied by the Turret Shop and shipways #1 and #2. (The battleship Missouri was one of many naval ships constructed on these shipways.) These structures were dismantled and sold for scrap shortly after the Navy Yard was acqui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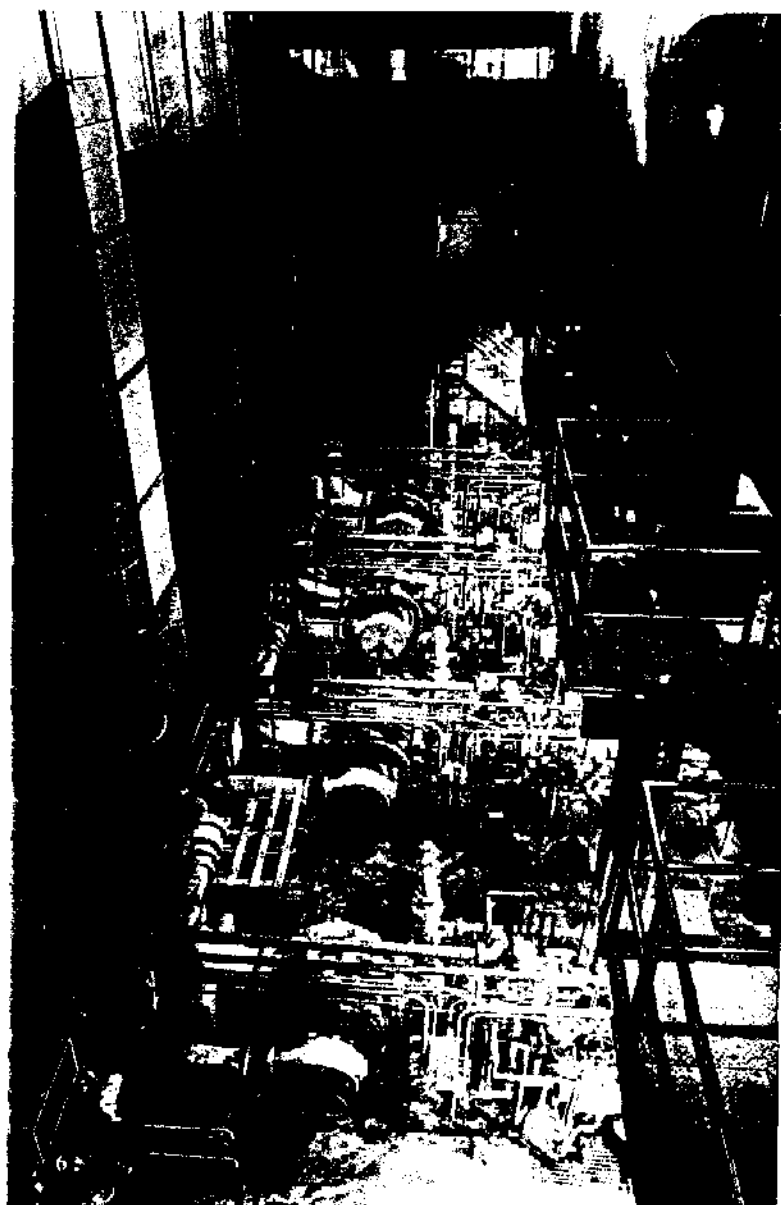
## Advanced Preliminary Treatment

THE  
TREATMENT  
PROCESS:  
THE  
WASTE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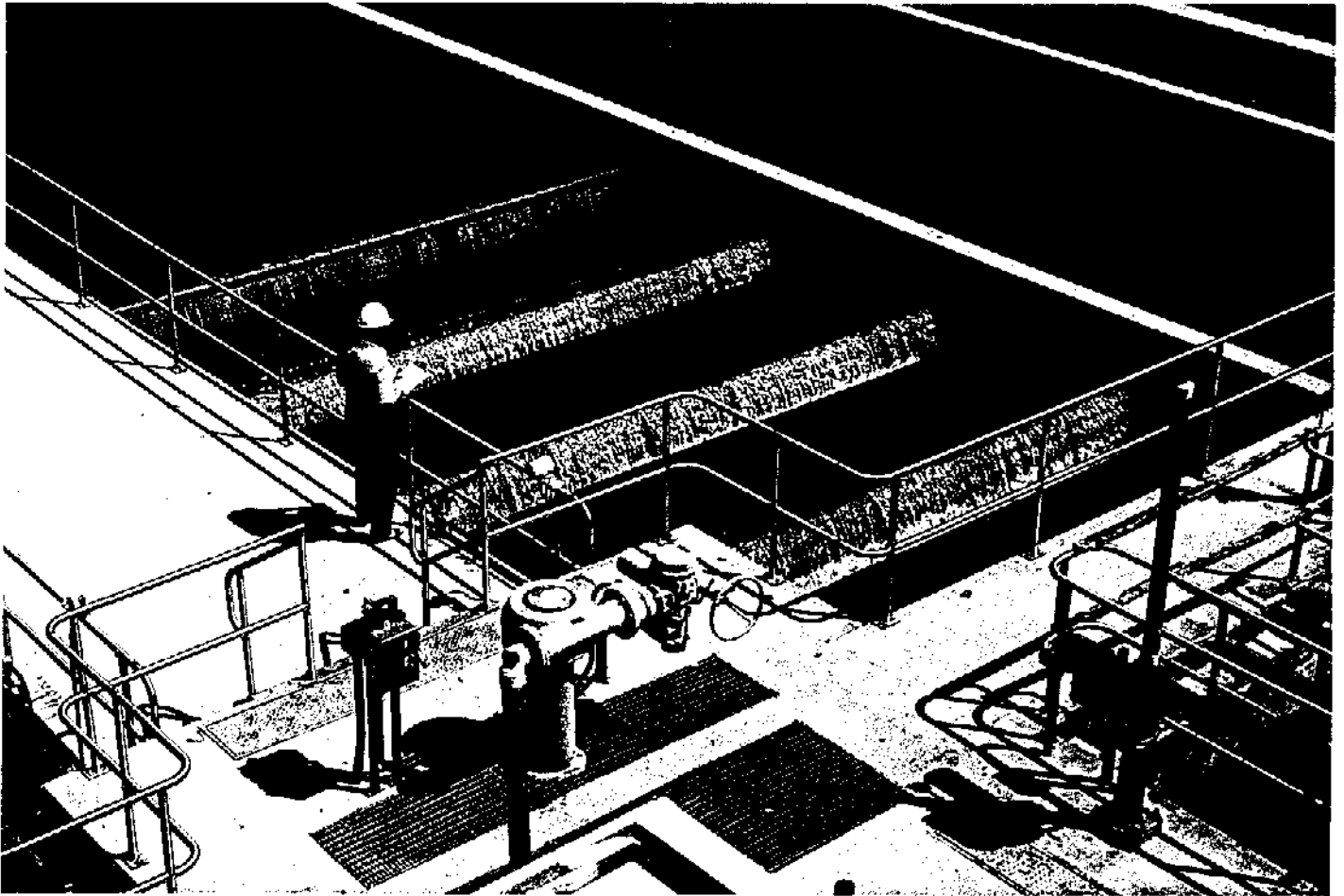


*Bar screens remove the large solids and debris from the waste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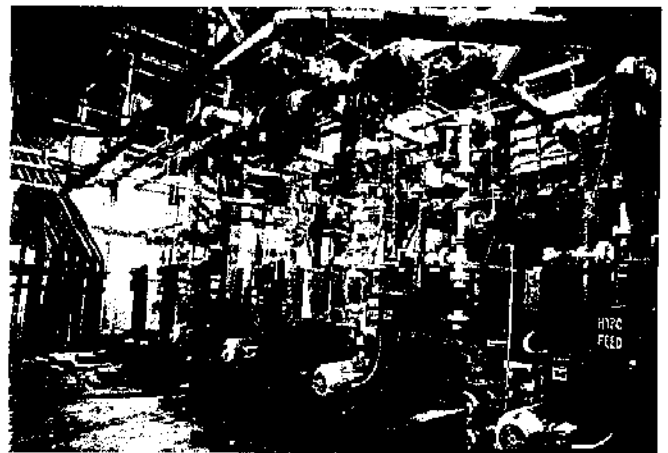
Wastewater is conveyed to the plant via a 102-inch-diameter interceptor sewer. It enters the plant through an influent gate chamber and is distributed into four channels for screening. Bar screens remove the large solids and debris that might otherwise damage or interfere with downstream treatment processes. Captured screenings, averaging less than 5 cubic yards per day, are trucked off-site for disposal at a sanitary landfill. After entering a wet well, the sewage is pumped to four preliminary settling tanks where large settleable solids and floating material are removed. Preliminary tank effluent flows by gravity to the aeration tanks, then to the final tanks and finally to the chlorine contact tanks where it is disinfected using sodium hypochlorite. Chlorinated effluent is then discharged into the East River through a 1,200-foot-long, 96-inch diameter outfall that includes a terminal diffuser section.



*Main sewage pumps lift incoming wastewater to a height where it can flow by gravity through the treatmen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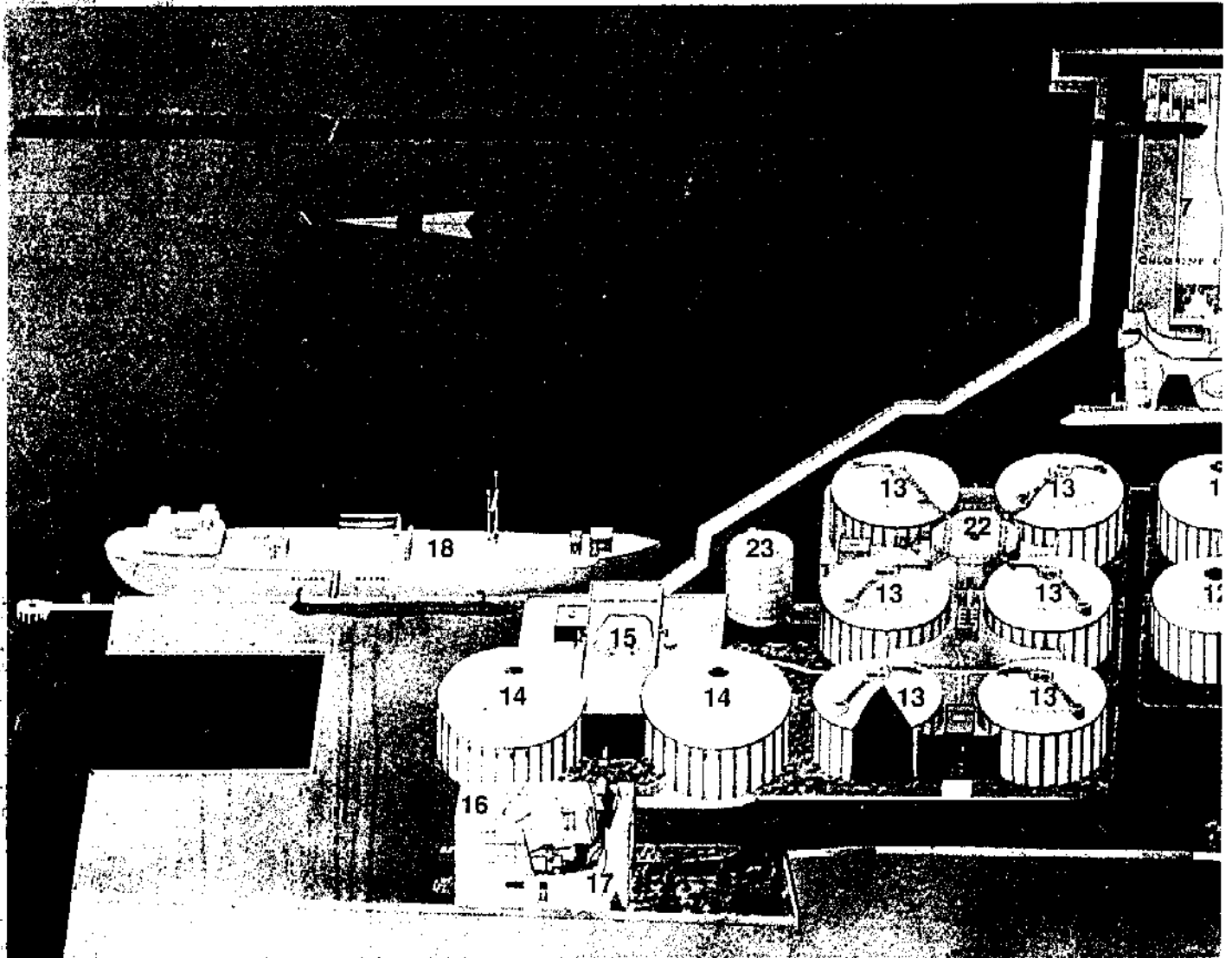
*Final plant effluent overflowing the chlorine contact tank weirs.*



*Above: Sodium hypochlorite is pumped into the wastewater flow for final disinf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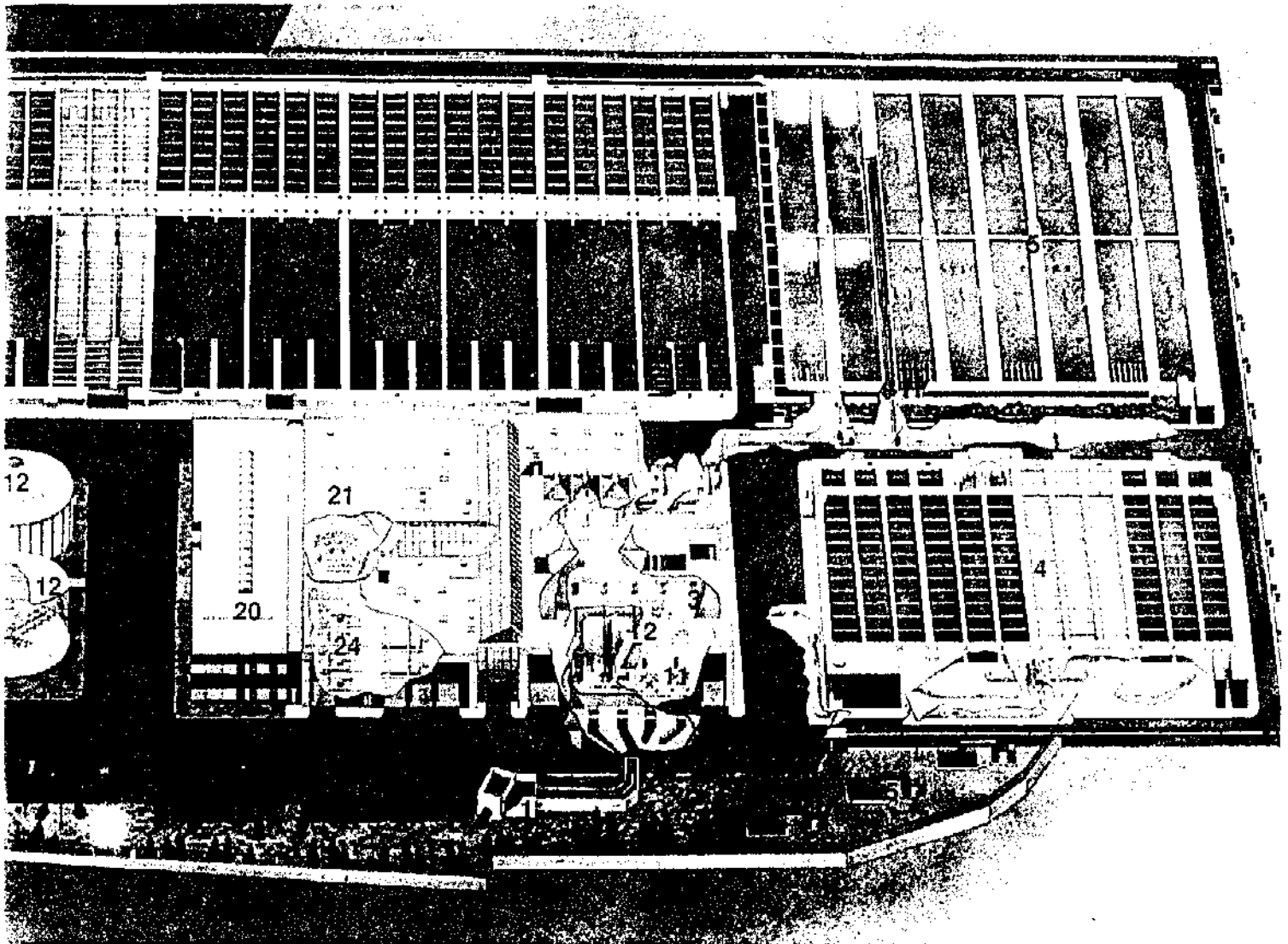
*Left: Wastewater enters the preliminary settling tanks where the settleable solids and sludge are removed from the flow. These materials receive further treatment before disposal.*

## Red Hook Plant Illustration



### Liquid Handling

- 1 Influent Flow to Plant
- 2 Bar Screens
- 3 Main Sewage Pumps
- 4 Preliminary Settling Tanks
- 5 Aeration Tanks
- 6 Final Settling Tanks
- 7 Chlorine Contact Tanks
- 8 Plant Outfall with Diffusers
- 9 Blowers for Aeration Tanks



### Solids Handling

- 10 Scum Collection and Removal
- 11 Grit Removal
- 12 Sludge Thickening
- 13 Mesophilic/Thermophilic Digestion
- 14 Storage (3% Solids)
- 15 Centrifuges
- 16 Cake Storage (23% Solids)
- 17 Truck Loading
- 18 Alternate Solids Disposal (3% Solids)

### Facility Services and Ut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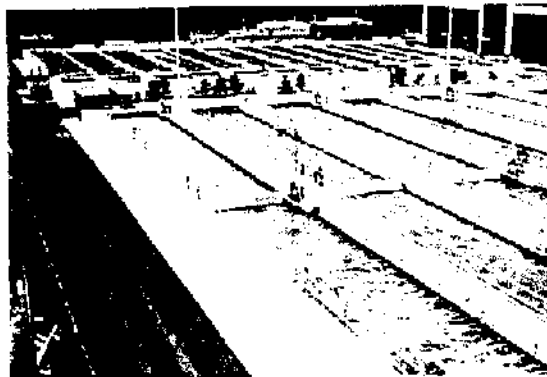
- 19 Plant Entrance
- 20 Administration Building
- 21 Control Room
- 22 Digester Gas (Methane) Compressors
- 23 Digester Gas Storage Tank
- 24 Boilers
- 25 Electrical Substation

## Secondary Treatment

THE  
TREATMENT  
PROCESS:  
THE  
WASTE  
STREAM



Above: Final settling tanks, where the solids are settled and removed.  
Right: Empty final settling tanks, showing collector mechanisms, which are used for collection and removal of settled solids.



Aeration tanks, the heart of the secondary treatment process. Compressed air allows recycled bacteria to feed on soluble organics.

The Red Hook plant uses biological step aeration, a modified form of the activated sludge process. Preliminary tank effluent flows by gravity to four deep aeration tanks, where it is mixed for a total of 3.5 hours. Compressed air, supplied through ceramic fine-bubble dome diffusers, allows recycled bacteria to feed on the soluble organics, converting them to settleable solids. The effluent flows by gravity to the final settling tanks, where the solids are settled and removed. A portion of these solids is then returned to the aeration tanks to maintain an active biological population. Final tank effluent discharges to the chlorine contact tanks. Here it is detained for 30 minutes and disinfected using sodium hypochlorite. The chlorinated effluent is then discharged into the East River through the outfall pi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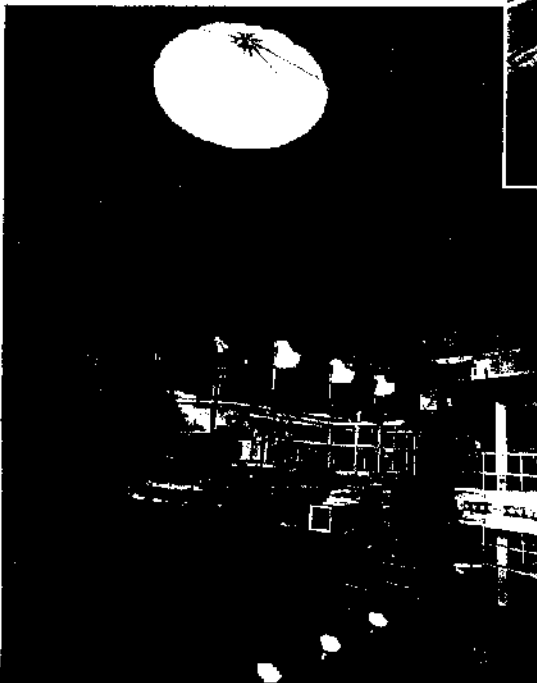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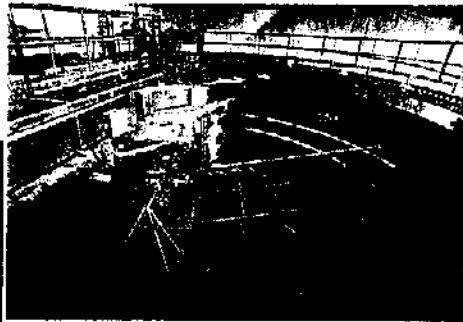


*Above:* Overall view of the solids handling facilities, including the thickeners, digesters and sludge storage tanks, with the Williamsburg Bridge in the background.

*Right:* Degritters remove sand particles from the settled solids, or sludge. This type of separator was originally patented for placer mining, the separation of gold from the settled particles of s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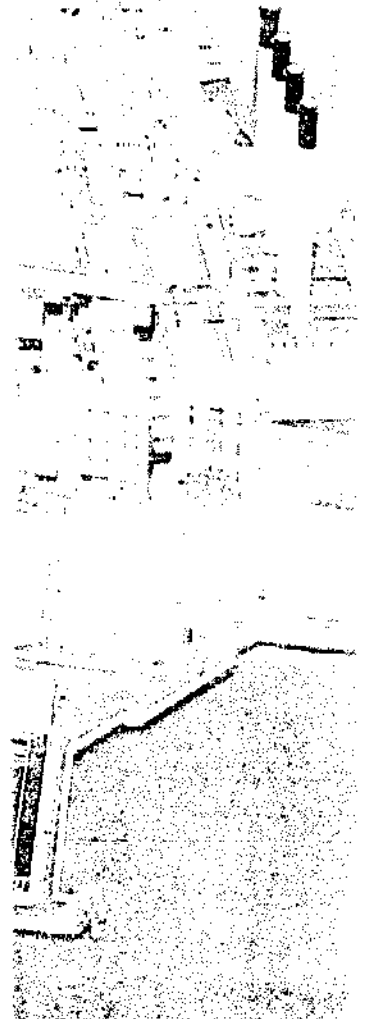
*Below Right:* An empty thickener tank, showing the thickener rake mechanism.

*Below Left:* Inside a thickener tank, where the solids are concentrat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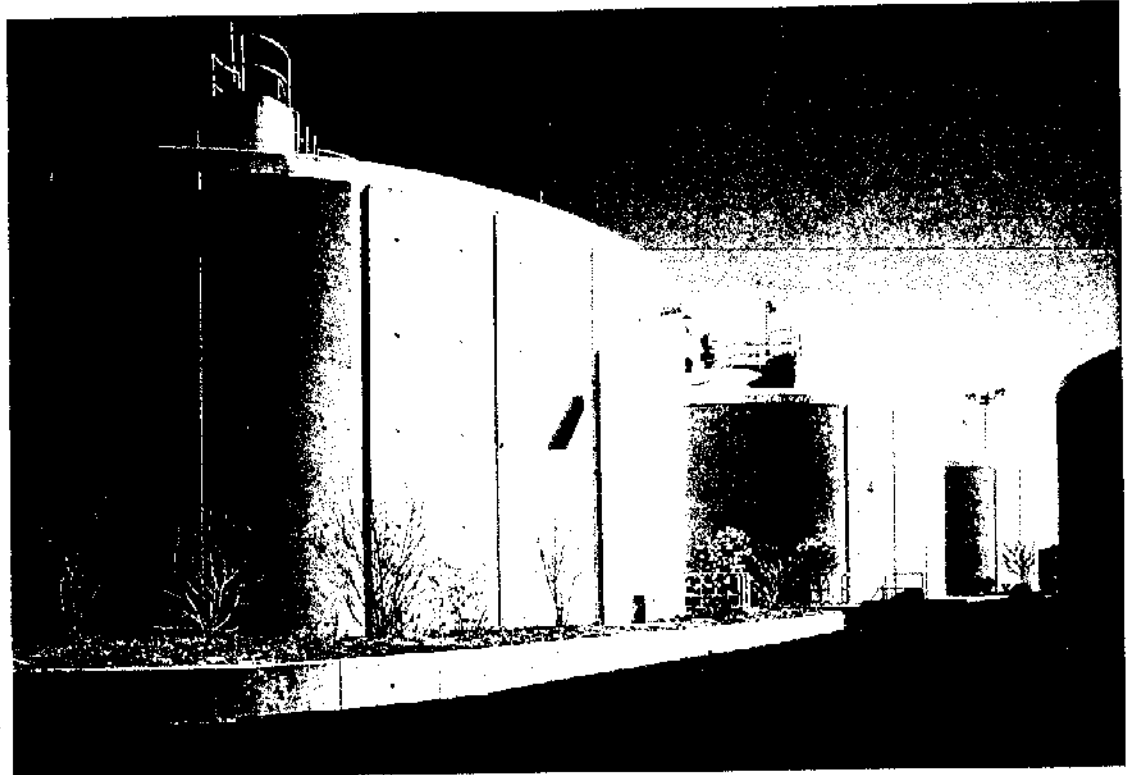
Scum from the surface of the preliminary settling tanks is collected by baffles and flows to decant tanks adjacent to the preliminary settling tanks. The scum is trucked off-site for disposal at a sanitary landfill. Settled solids, or sludge, are collected from the bottom of the preliminary settling tanks and pumped to four cyclone degritters. The grit, averaging about 4 cubic yards per day, is also trucked off-site for disposal. Waste activated sludge from the final settling tanks is blended with the primary sludge for thickening. The thickener overflow is piped back to the influent conduit of the preliminary settling tanks.

## THE TREATMENT PROCESS: THE SOLIDS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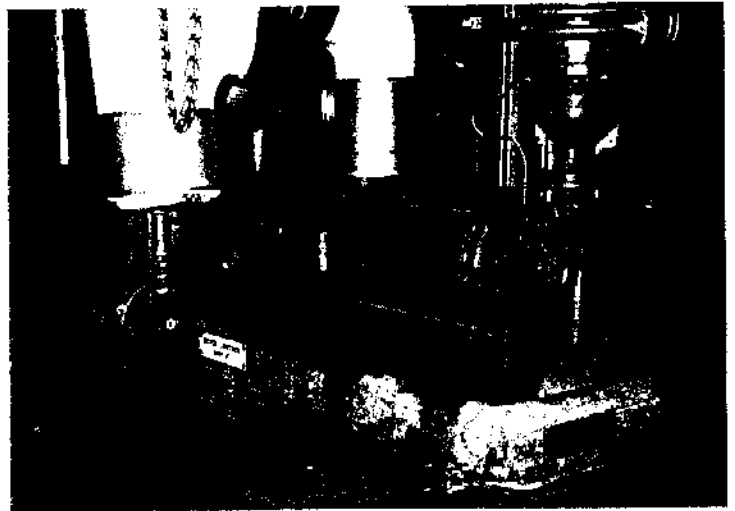
## Solids Handling and Disposal

THE  
TREATMENT  
PROCESS:  
THE  
SOLIDS  
ST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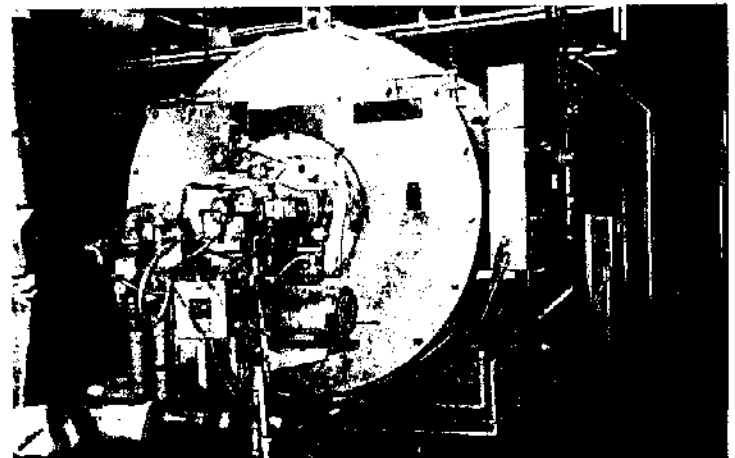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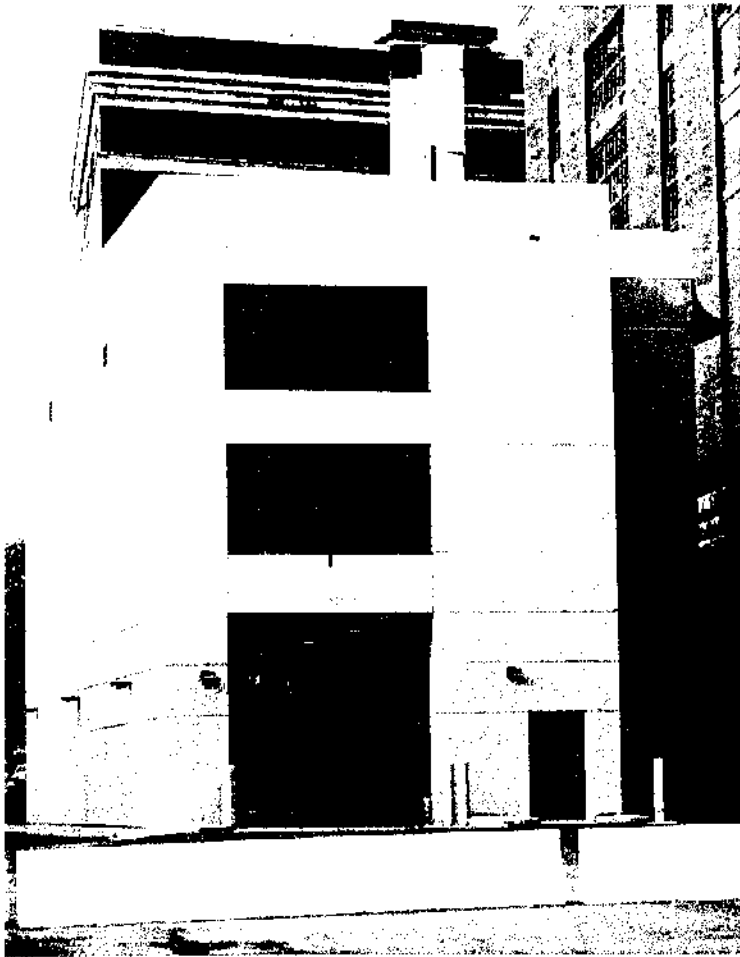
*Above: Digesters, where anaerobic digestion is used to reduce the percentage of solids and to produce methane gas as a by-product.*

*Right: Methane gas compressors are used to boost the pressure of the gas produced in the digesters so that it can be used beneficially for the operation of the plant's boilers.*



*Boilers, used to heat the sludge in the digesters and to provide cold-weather heating for the overall plant, are primarily operated on methane gas, which is produced in the digesters. As a backup, the boilers can also be operated on natural gas and on fuel o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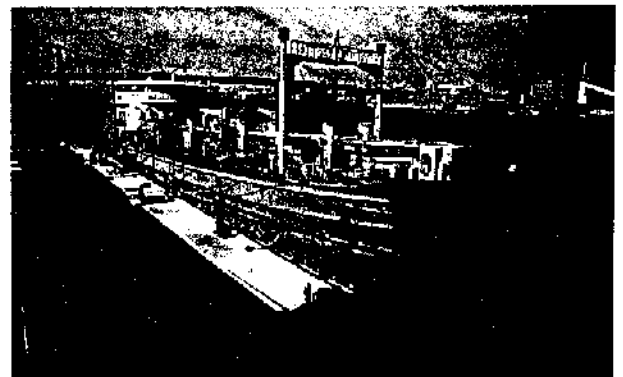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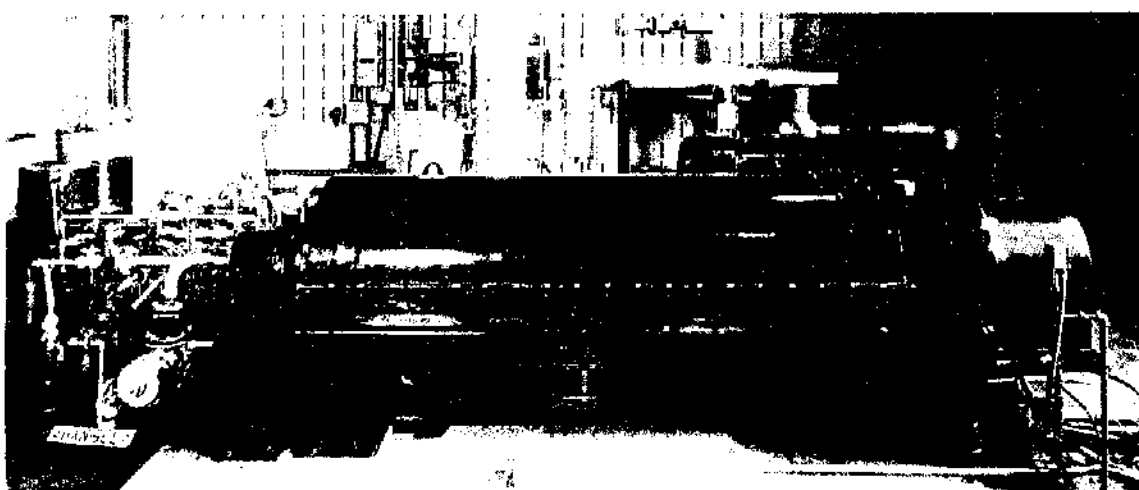
*The sludge cake produced by the centrifuges is pumped to the storage hoppers located at the top of the truck loading building. The sludge is discharged, by gravity, from the hoppers to trucks for delivery as biosolids to end-users such as landfills, pelletizers, etc. The trucks are filled by weight, which is monitored and recorded by a truck scale located in the building.*

The thickened raw sludge is pumped to six 60-foot-diameter fixed-cover digesters, which provide anaerobic digestion using the mesophilic/thermophilic combination process. During the digestion process, the sludge is first heated and mixed continuously in a set of three mesophilic digesters at a temperature of 95 -100° F. This is followed by digestion in a set of three thermophilic digesters at a temperature of 100 -125° F. This innovative design process decomposes a greater percentage of solids, thereby reducing the quantity of solids requiring disposal. An additional benefit is the production of a greater volume of methane gas, a natural by-product of the digestion process. The methane gas is used in the plant's three boilers, to provide hot water for heating the digesters, for heating the buildings during periods of cold weather, and for operating chillers during periods of hot weather.

Digested sludge at about 3% solids is pumped to two centrifuges, where it is thickened to about 23% solids (sludge cake). The sludge cake is pumped from the centrifuges to two storage hoppers in the truck loading building, where it is transferred to container trucks for delivery to end-users as biosolids. Approximately 33 dry tons of biosolids per day are generated at the Red Hook pl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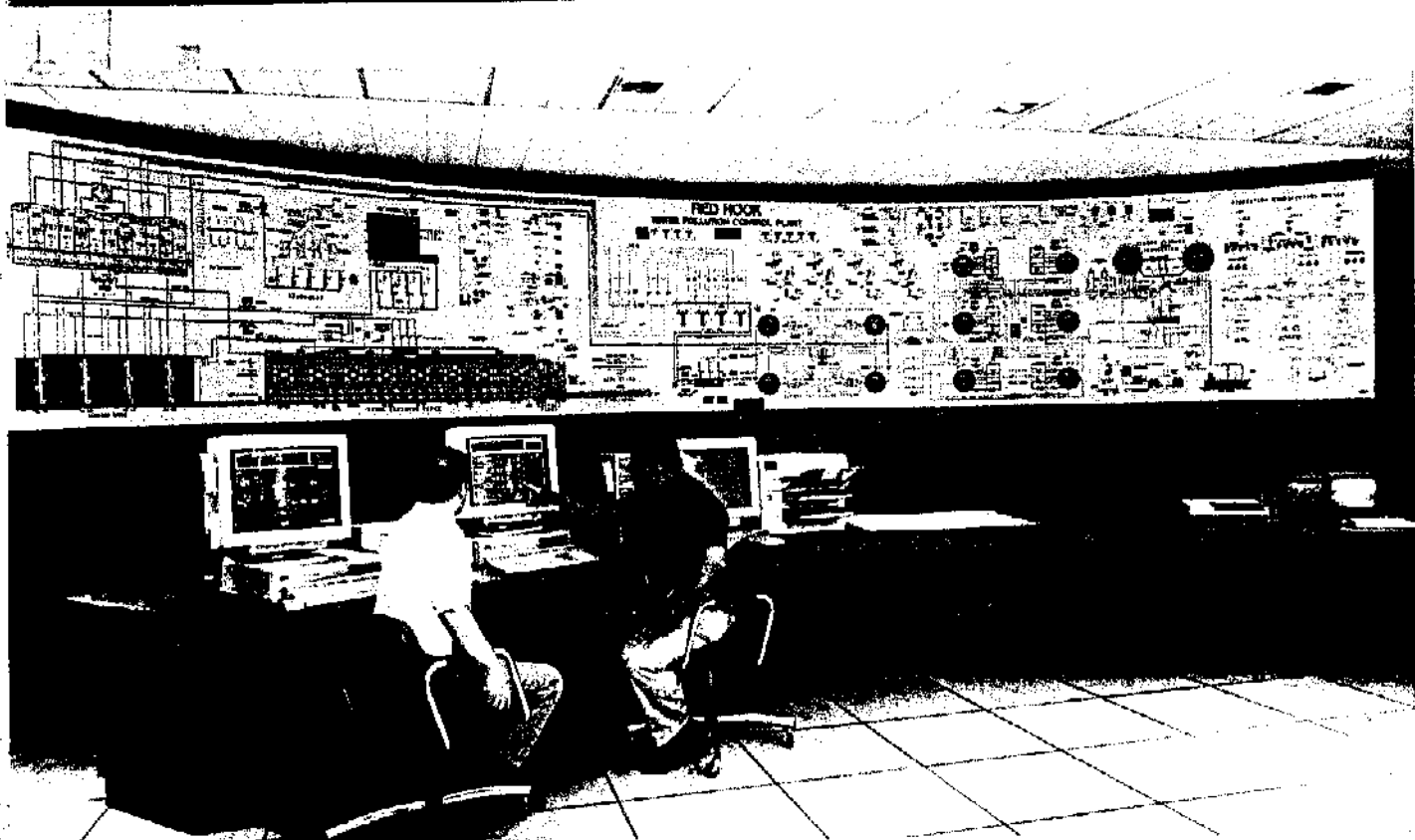


*Alternatively, the digested sludge can be sent, via ship, to any one of the other plants for sludge hand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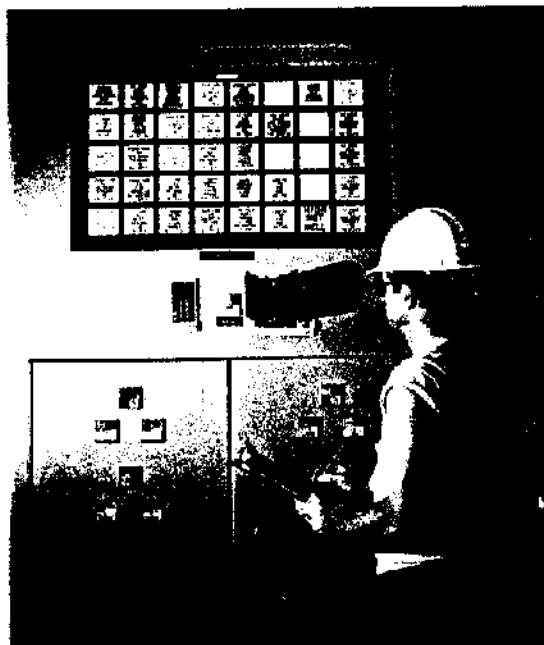


*The sludge produced by the digesters is thickened from 3% to 23% solids by centrifuges.*

## Instrumentation & Contro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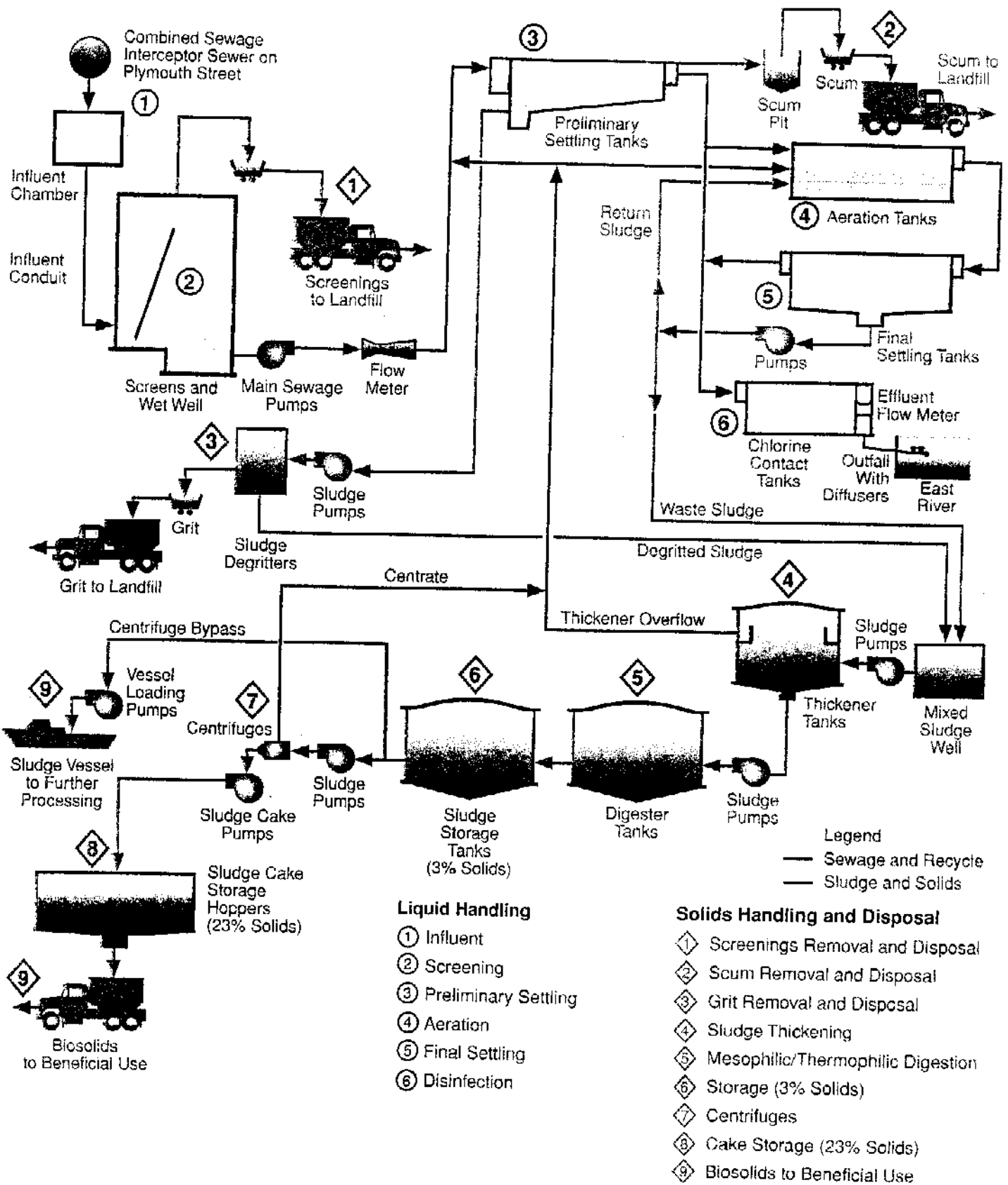
The computer system (DDAACS), shown in the foreground, and the graphic panel, in the background, provide an overview of the operation of the entire treatment plant.



Controlling the main sewage pumps from Secondary Control Panel #2. The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incorporates automatic and manual back-up in the event of a system failure.

The Red Hook plant features an advanced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The system is based on a three-tier control philosophy. The base tier consists of local controls at each piece of equipment (i.e., speed control, forward/reverse, hand-off-auto, emergency stop, etc.). The second tier consists of ten Secondary Control Panels (SPC's) located throughout the plant, each one controlling a specific process area. These panels feature alarm annunciation, process data readout and recording, remote start/stop, and automatic control of individual process loops. The third tier consists of the Distributed Data Acquisition And Control System (DDAACS), which features individual operator workstations and several PC-based monitoring stations. The DDAACS provides control, monitoring, data recording and report generation of all process and utility systems throughout the plant. An 8-foot-by-30-foot mosaic graphic panel provides a constant indication of the status of all systems.

# Schematic Flow Chart





**New York City**  
Rudolph W. Giuliani, *Mayor*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Joel A. Miele, Sr., P.E., *Commissioner*  
Diuna Chapin, *First Deputy Commissioner*  
Robert Gaffoglio, P.E., *Deputy Commissioner*  
*Director, Bureau of Environmental Engineering*  
Robert Adamski, P.E., *Deputy Commissioner*  
*Director, Bureau of Wastewater Pollution Control*

**Consulting Engine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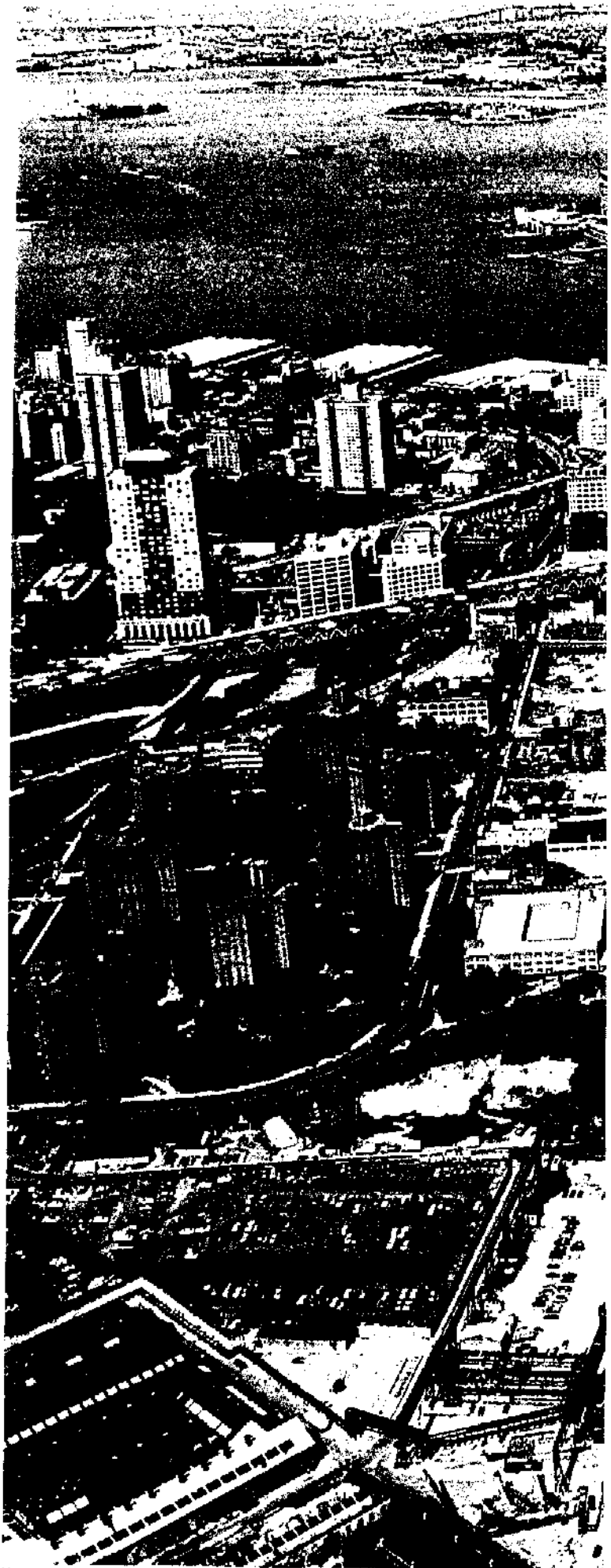
Hazen and Sawyer, P.C.  
Jerry Lastihenos, P.E., DEE, *Project Director*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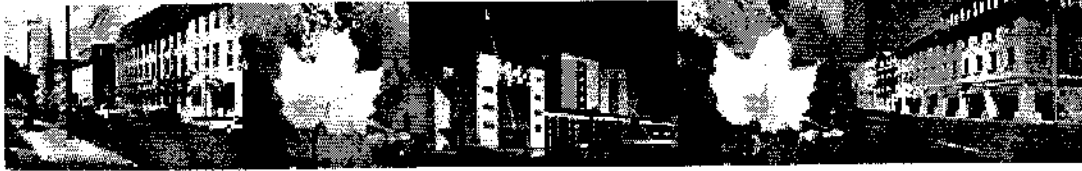
Tilton & Thatcher

**Contractors**

Steers-Buckley-Gates-Spearin  
Applied Electric Corp.  
John P. Picone, Inc.  
Lovisa Construction Co.  
Terminal Construction Corp.  
Yonkers Contracting Co., Inc. and  
Worth Engineering, Inc. (JV)  
Schiaivone Construction Co., Inc. and  
Daidone Electric of N.Y. (JV)  
John Grace & Co., Inc.  
McCullagh Mechanical Co., Inc.  
TAP Electrical Contracting Services, Inc.  
C.D.E. Air Conditioning Co., Inc.  
R.A. Gottlieb/Gottlieb Heavy Industries, Inc. (JV)  
Community Electric, Inc.  
Meadow Mechanical Corp.  
Forsythe Plumbing and Heating Corp.



Photos by Gil Zaniga 1986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

-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 Committees and Council Information
- Recreation and Culture**
- Taxes, Parking, & Permits**
- Discover Ottawa**
- Business Outreach**
- Ottawa Innovation**
- City Services**
- Contact Us**

**Back to Home Site Map**

Please select one of the following:

- Standing Committee structure
- City Boards and Advisory Committees
- Call for volunteers (City Boards and Advisory Committees)

## City of Ottawa Standing Committee Structure City Council

Where decision-making begins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Comm Servs Comm
<p>To assist it in its deliberations, City Council appoints Standing Committees to study issues and to make recommendations to Council. These Standing Committees are comprised solely of elected representatives. It is at the Standing Committee level that citizens can have input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p> <p>Committee Meetings are advertised on the City Page of the Friday edition of local newspapers. If you would like information on Committee agendas, etc., please call 244-5300-4224 or see the City's Website at: <a href="http://city.ottawa.on.ca/ottawa/city/wcb/a/a1/a1-commlist.html">http://city.ottawa.on.ca/ottawa/city/wcb/a/a1/a1-commlist.html</a>.</p> <p>Most decisions made by Standing Committees require final approval by City Council. City Council meets at 1:00 p.m. on the first and third Wednesdays of the month, except in July and August when it meets on the first Wednesday only. Council meetings are held in Victoria Hall in the Bytown Pavilion on the first level of City Hall, 111 Sussex Drive, K1N 5A1</p>	<p><b>RESPONSIBILITIES/REPORT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respecting items relating to Economic Development</li> <li>-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Public Works, the following branches or portions: the Licensing, Transportation and Buildings Branch with respect to the items relating to the Building Code Services Division; Planning Branch; and any housing issues that do not fall within the mandate of the City of Ottawa Non-Profit Housing Corporation.</li> <li>- Site Plans, property standards loans, closing, altering, widening, diverting, selling etc. of highways</li> <li>- Designation of lane(s) for use by bicycles</li> <li>- All matters emanating from Advisory Committees, Boards, Authorities and Commission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nding Committee, including appointment of members and appointments to BIA's</li> <li>- Street Name Change Committee</li> </ul> <p><b>MEMBERSHIP</b></p> <p>Councillor E. Arnold, Chairperson Councillor S. Little, Vice-</p>	<p><b>RES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p. and P. Branch</li> <li>Mana. Branch</li> <li>Mana. Licen.</li> <li>Buildi. excep.</li> <li>Buildi. and C.</li> <li>Depar.</li> <li>- Dep. Servis</li> <li>Grant</li> <li>- Clos. diverti.</li> <li>- Desi. bicycl.</li> <li>- All n. Advisi.</li> <li>Autho. within</li> <li>Stand. appoi.</li> <li>- Licen.</li> </ul> <p><b>MEMI</b></p> <p>Counc. Chair</p>

	Chairperson Councillor S. Emard-Chabot Councillor A. Higdon Councillor R. Kolbus	Chair Coun Coun Coun Coun
	<b>COMMITTEE/EXECUTIVE ASSISTANT</b> Anne-Marie Leung, 244-5300-1-3620	<b>COMI ASSIS</b> Lori F
	<b>MEETING DATE/TIME</b> The Tuesday the week before City Council meeting, 9:15 a.m.	<b>MEET</b> The V City C
	<b>LOCATION</b> Victoria Hall, Bytown Pavilion, Second Floor, City Hall 111 Sussex Drive	<b>LOC#</b> Victor Secor 111 5

## City Boards and Advisory Committees

The City of Ottawa invites the candidacy of residents interested in becoming a member.

NOTE: Advisory Committee meeting agendas are included in the links below.

### Advisory Committee on French Language Services

\* Provides advice on French language services. Meets at City Hall, 1st Thursday of

### Advisory Committee on Equity & Diversity

\* Works towards the creation, promotion and review of initiatives that contribute to  
Monday of the month, 6:00 p.m., additional subcommittee meetings.

### Cultural Leadership Committee

\* Advises the City on cultural planning and policy. Meets at City Hall, 2nd Monday

### Disability Issues Advisory Committee

\* Recommends policy development on issues related to persons with disabilities. Meets

### Environmental Advisory Committee

\* Advises on protection and enhancement of natural environment. Meets at City Hall

### Local Architectural Conservation Advisory Committee

\* Advises on all aspects of the City's Heritage Program. Meets at City Hall, 1st & 3rd

### Taxi Advisory Committee

\* Advises on all aspects of the taxi industry. Meets at City Hall, 1st Monday of the month

### Ottawa Public Library Board

\* Function: to operate a public library service in Ottawa Meets: 120 Metcalfe Street,

### Pineview Municipal Golf Course - Board of Management

To set the policy and monitor the operation of the golf course. Meets at Pineview M

### Committee of Adjustment

Holds public hearings to consider applications for minor variances, consent and non  
2:30 p.m.

**Property Standards Committee/Court of Revision**

Arbitrates disputes arising from Property Standards Inspection orders; hears appeals daytime as required.

**Ottawa Hydro Electric Commission**

Controls and manages all works for the distribution and supply of electric power. Mi

**Ottawa-Nepean Canoeing Authority**

Function: to adopt and administer policies, rules, construction, development and ott

***To apply, please send a letter of application and copy of your resume, includi***

Coordinator  
Committee and Council Services  
Department of Corporate Services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For information:**

Anne-Marie Leung  
(613) 244-5300, ext. 3620

E-mail: [emondab@city.ottawa.on.ca](mailto:emondab@city.ottawa.on.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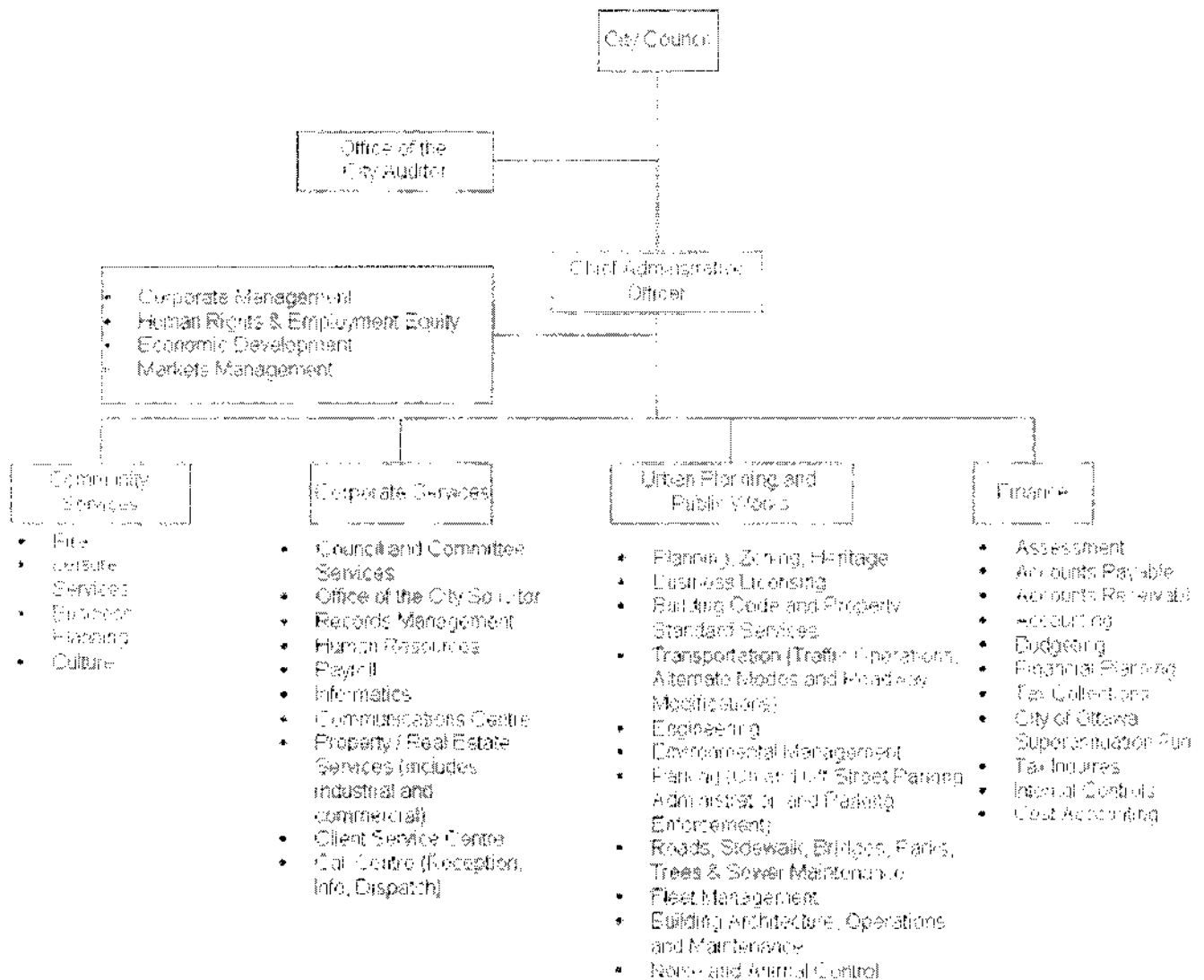
There are presently no vacancies, please stay tuned for updates.

Facsimiles (613) 244-5417 will be accepted; however, please forward original by m

Please note that applicants may apply to several committees but may only be appo  
required to attend an interview.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accommodation are cor  
babysitting, taxis, and expenses which arise from participation in ADVISORY comm

The City's Multiculturalism Policy states:

"The City of Ottawa is committed to a multicultural, multiracial society. It firmly belie  
and in participating in Municipal Government as well as in the life of the entire comr



FACTS ABOUT MANHAT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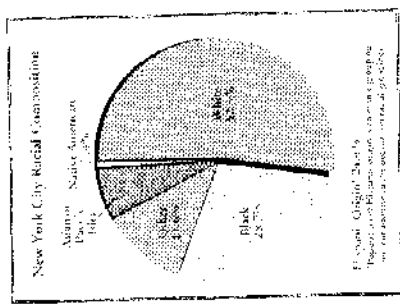
POPULATION OF NEW YORK CITY (1990)

Metro Area	18,087,000
City	7,365,000
Brooklyn (Kings County)	2,358,000
Queens (Queens County)	1,967,000
Manhattan (New York County)	1,488,000
Broxix (West County)	1,172,000
Staten Island (Richmond County)	393,000

- ✈ 35 million airport arrivals per year
- ✈ 25 million overnight visitors per year
- ✈ 5.5 million foreign visitors per year
- ✈ 2 million convention delegates per year



De Witt Clinton  
campaign banner  
governor of New York  
1817-1823 & 1825-1828.



SIZE OF MANHATTAN  
IS 22.2 SQUARE MILES  
NEW YORK CITY IS  
301 SQUARE MI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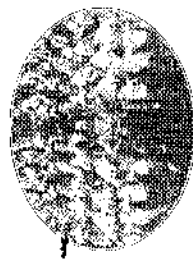


**HISTORY**  
Name: Derivation: After the Algonquian name for the island, "Manahatta."  
Discovered: 1524 by Giovanni da Verrazano  
Founded: 1625 by Dutch West India Company  
Named: 1664 New Amsterdam becomes New York

NOTABLE BUILDINGS:

Date	Height	Location	Height in the world at the time
1903	309 ft.	Chrysler Building	21 floors
1907	741 ft.	Chrysler Building	57 floors
1913	792 ft.	Woolworth Building	60 floors
1929	927 ft.	Bank of Manhattan	71 floors
1930	1,046 ft.	Chrysler Building	77 floors
1931	1,250 ft.	Empire State Building	102 floors
1975	1,368 ft.	World Trade Center	110 floors

\*The museum for Empire makes it a total of 114 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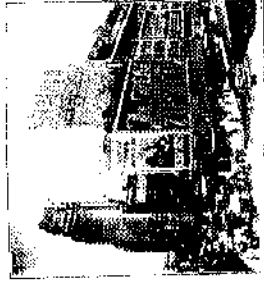


Edel Mirman  
and dances visit  
Girl City.

Empire State  
Building

CULTURE FACTS:

- 38 Broadway and 300 Off-Broadway theaters
- 150 museums and 400 art galleries
- 17,000 eating establishments
- 109 newspapers
- 185 magazines
- 90 book publishers
- 13 TV stations
- 117 radio stations
- 94 universities and colleg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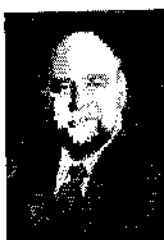


WEATHER RECORDS (AT CENTRAL PARK, EXCEPT FOR WIND RECORD AT THE BATTERY)

Lowest Temp. $\bar{A}$	High Temp. $\bar{B}$	Snowiest Day $\bar{C}$	Rainiest Day $\bar{D}$	Highest Wind $\bar{E}$
-19 2/29	106 7/10/36	36 12/26/97	11.5' 9/20/03	113mph 10/13/54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Ottawa Innovation****City Services****Contact Us****Back to Home****Councillor Ron Kolbus  
Britannia/Richmond  
[WARD OT1]**[Complete our viewer survey](#)

---

**Site Map**

Ron Kolbus, Councillor for Ward OT1 (Britannia-Richmond area) received a BPE (Recreation) and an MEd (Adult education)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Before coming to Ottawa he pursued a number of activities, many of them involving youth and housing. He was Director of a 1200 member Boys and Girls Club (an interest he still maintains), Director of the Youth Services Branch of the Alberta Government, and General Manager - Edmonton Housing Authority.

Ron came to Ottawa in 1978 as General Manager of City of Ottawa Non-Profit Housing Corporation (City Living) and Member of the City's Committee of Department Heads. He was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City's role in social housing, developed or acquired over 3,000 residential housing units, developed housing for singles, families and special needs groups and assisted non-profit and co-op groups in land acquisition. It was an involvement he feels "really contributed to the community."

After 10 years in commercial real estate, in 1994 Ron returned to the City as a Councillor. He has entered his second term with a plurality of over 75%.

As Councillor for OT1, Ron hopes to encourage community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through his Ward Advisory Council and Youth Advisory Council. He is encouraged by the smooth and satisfactory completion of the Lenester Road reconstruction and the Britannia Storm Sewer project which he would like to see extended into the Belltown neighbourhood. He's interested in traffic calming in Carlingwood and Woodpark and in the duplex-triplex conversion that affects some areas of the Ward. He was instrumental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ritannia Business Association, the Pathway Patrol, and would like to see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Queensview industrial area to broaden the tax base. He wants to ensure that seniors get the quality service they deserve and that young people are involved in planning for the community.

Across the City, Ron would like social housing tenants to feel more a part of the overall community. He wants basic City services provided in an efficient, effective and timely manner. He feels that all City planning and development must respect green spaces and that the City must stay on track in balancing the budget and lowering debt.

Ron's committee board membership includes: Chair, Audit Committee; Member and Past Chair, Policy, Priorities and Budgeting Committee; Member,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Member and Past President, City Living Board of Directors; Vice-Chair, City of Ottawa Superannuation Fund; Vice-Chair, Ottawa Hydro Commission; and Board Member, Ottawa Nepean Campsite Autho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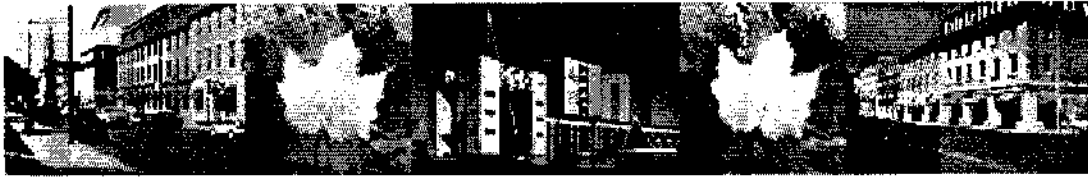
Ron's wife, Carol, is a travel consultant with AMEX Travel. He has two grown children, Joe and Renata, who live out west. He is a keen golfer, skier, baseball and football fan, and looks forward to boating, reading, and relaxing at his cottage.

**BUSINESS ADDRESS:**

Ron Kolbus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51  
Fax number: (613) 244-5373  
email: [kolbusR@city.ottawa.on.ca](mailto:kolbusR@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  
**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  
**Contact Us**  
**Back to Home**



## **Councillor Brian Mackey** **Carleton** **[Ward OT2]**

Brian was raised in Toronto, but has lived in Ottawa close to thirty years. He has a Master's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Carleton University, and has worked in both the federal public service and the private sector. Previously, Mr. Mackey served consecutive terms as a Trustee on the Ottawa Board of Education from 1988 to 1994.

Brian has served as an active volunteer in his community, as a Scout Leader, on the Bel-Air/Pinecrest hockey league, as the Carleton Ward Chairman for the Heart and Stroke Foundation of Ontario, and as a volunteer for the Canadian Cancer Society.

First elected to City Council in November 1994, Brian has served on th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the Central Canada Exhibition Board and as a Trustee of the Civic Hospital Board. Brian now serves on the following committees: Policy, Priorities, and Budgeting; Audit Committee and Ottawa-Nepean Campsite Authority.

### **BUSINESS ADDRESS:**

Brian Mackey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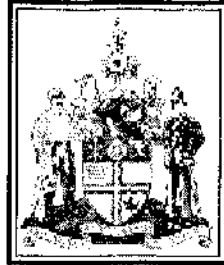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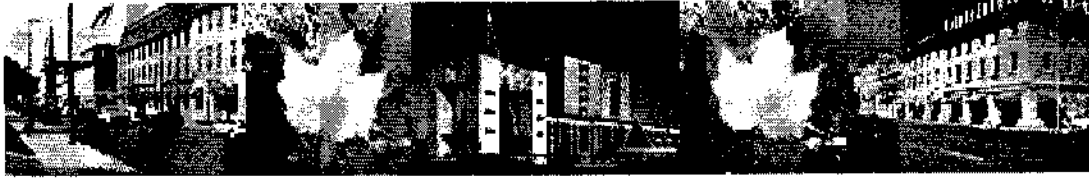
  

**Site Map**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53  
Fax Number: (613) 244-5378  
email: MackeyB@city.o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Contact Us  
Back to Home****Councillor Diane Deans  
Southgate  
[Ward OT3]****Community Survey!**

Diane Deans is the City of Ottawa councillor for Southgate Ward, located east of Bank Street in the city's south end. She was first elected as municipal councillor in 1994 and was returned for a second term by acclamation in November 1997.

Diane's interest in political work evolved at an early age. After earning a Bachelor of Arts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Guelph in 1980, she joined the 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 and two years later became its executive director. In that capacity she worked with student groups from various universities across Canada and also spent time in London, England as a participant in an international exchange. Upon completing her term with the Federation, Diane accepted a position on Parliament Hill working as a researcher and media advisor.

During her first term as a city councillor, Diane served on various boards and standing committees and was Chairperson of the Community Services and Operations Committee. She voted to keep property taxes frozen for each of those three years and worked with City staff to further streamline how City Hall conducts its business and to establish new ways of delivering services to the public.

**Site Map**

At present, Diane serves on the board of City Living, the City of Ottawa's License Committee, Opera Lyra, the Community Services and Operations Committee and is Chairperson of the Policy, Priorities and Budgeting Committee.

She is eager to grapple with the issue of regional governance as Ottawa prepares to downsize to a more efficient form of municipal government. However, she insists that any reform must benefit Ottawa taxpayers and ensure that the City of Ottawa does not pay more for a streamlined municipal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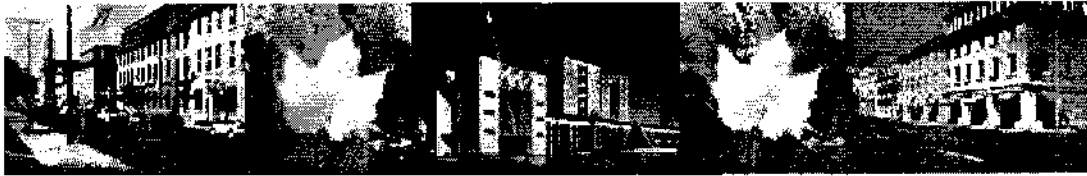
In Southgate Ward, Diane will continue working with business and community members on development, safety and quality-of-life issues. Having successfully established Ottawa's first business parks association, a local safety council, a community justice committee, and a library advocacy group (dedicated to improving library services for more than 50,000 residents living in south Ottawa), Diane is committed to representing the concerns of Southgate Ward taxpayers at City Hall and ensuring that the infrastructure needs of the developing neighbourhoods are met.

**BUSINESS ADDRESS:**

Diane Deans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55  
Fax Number: (613) 244-5349  
E-Mail Address: [deansd@city.ottawa.on.ca](mailto:deansd@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  
**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  
**Contact Us**  
**Back to Home**

**Site Map**



## **Councillor Richard Cannings** **Rideau** **[WARD OT4]**

After obtaining a Bachelor of Arts from Bishop's University and a Bachelor of Education from Dalhousie University, Richard Cannings held various teaching posts in Nova Scotia & Quebec. While Vice-Principal at a Quebec Elementary School, Cannings worked towards his masters degree in Canadian History

Cannings was appointed Quebec City Bureau Chief for CFCF Radio and Television in 1973. This was a post he held until 1977, whereupon he accepted the Position of Press Secretary to Minister of State (Urban Affairs) and Chief Political Organizer for Quebec, the Honourable André Ouellett.

From 1980 to 1982, Cannings was Press Secretary at Consumer and Corporate Affairs. In addition, Cannings worked for André Ouellett when he was acting Minister of Labour and the Minister of Public Works.

Richard Cannings is well known for his work in heritage conservation. In 1986, he received a third degree, this time in the History of Art & Architecture from Carleton University. In 1988, he was elected President of Heritage Ottawa, a post he held until 1991.

Richard is now the longest standing Councillor on Ottawa City Council. Since 1991 he has worked diligently alongside his constituents on such issues as the Vanier Parkway Extension, the Kettle Island Bridge Proposal and The Task Force On Prostitution.

Richard Cannings is married to CBC National reporter, Julie Van Dusen. Together with their three children, Molly, Patrick and Olivia they live on Lonsdale Road in Manor 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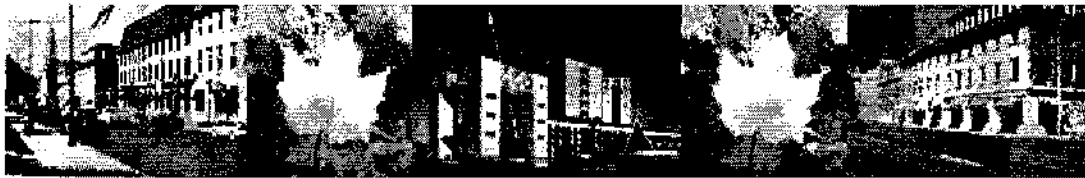
Richard will continue to use his diverse work experience to serve his community to the best of his abilities.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or write with any concerns or suggestions that you may have.

**BUSINESS ADDRESS:**

Richard Cannings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57  
Fax number: (613) 244-5374  
email: [CanningsR@city.ottawa.on.ca](mailto:CanningsR@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  
**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  
**Contact Us Back to Home**



## **Councillor Stéphane Émard-Chabot** **Bruyère/Strathcona** **[WARD OT5]**

Stéphane Émard-Chabot represents Bruyère-Strathcona Ward, which is comprised of Sandy Hill, Lowertown and the ByWard Market. Elected in November 1994, his goal is to maintain a vital, vibrant community in the downtown, where he has lived all his life.

A graduate of the University of Ottawa (B.Com. '87 and LL.B '91) and a member of the Ontario Bar, he has worked as a sessional lecturer in law at La Cité Collégiale, Ottawa's francophone college. In the community, he has volunteered his time with his local community association, Action Sandy Hill, serving two years as president. He also participated in the RMOC's Environmental Assessment Study to look at the feasibility of constructing new transportation links from the suburbs to downtown, and the Central Area Views/Density Transfer Study.

Stéphane currently sits on the Community Services and Operations Committee and th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and chairs the Licence Committee. He is Council's representative on the French Language Services Committee and the Local Architectural Conservation Advisory Committee, as well as serving on the Central Canada Exhibition Association, the City of Ottawa Superannuation Fund, the Ottawa Arts Centre Foundation, Rideau Street Youth Enterprises, the ByWard Market Business Improvement Association, the Rideau Street Business Improvement Area, Uptown Rideau and the City Living Board of Dir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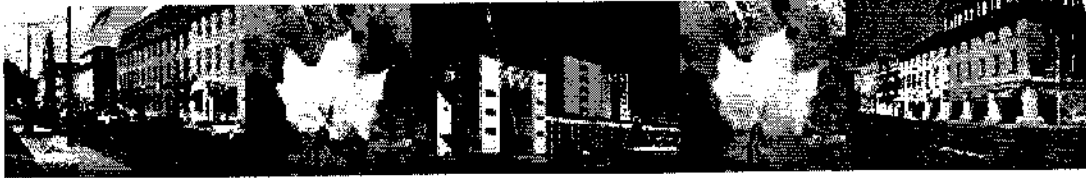
Stéphane's priorities for the 1994-97 term of Council include building safer communities (by coordinating various crime prevention projects,

ensuring follow-up on the prostitution task force recommendations and by revitalising the area's commercial main streets). Traffic planning is essential in order to maintain livable neighbourhoods downtown and monitoring the Sandy Hill Traffic Calming Plan will be an important aspect of Stéphane's mandate. He looks to improve standards for rooming houses throughout the City and also supports and promotes heritage preservation and culture. The protection of our environment by encouraging, for example, alternate modes of transportation, is also a key to inner city residents' quality of life.

**BUSINESS ADDRESS:**

Stéphane Énard-Chabot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59  
Fax number: (613) 244-5373  
email: [Enard-ChabotS@city.ottawa.on.ca](mailto:Enard-ChabotS@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Contact Us  
Back to Home**

## **Councillor Elisabeth Arnold Somerset [Ward OT6]**

Elisabeth Arnold is the City Councillor for Somerset Ward in Centretown Ottawa. First elected in November 1994, she serves as the Chair of the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is a member of the Community Services and Operations Committee, the Advisory Committee on Equity and Diversity and the Environmental Advisory Committee. She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City Living, and a member of the Boards of Directors of the five Business Improvement Areas in Somerset Ward. She sits on the the Women and Girls in Sport Committee and is the Chair of the Winter Walking Committee. Elisabeth is an active participant of several community organizations and neighbourhood committees.

Elisabeth was born in Ottawa in 1959 and attended Lisgar Collegiate. She earned a Bachelor's Degree in Geography at Simon Fraser University and a Master's in Urban Planning at Queen's University, where she was a student representative to the Canadian Institute of Planners. From 1979 to 1984, she represented Canada internationally as a member of Canada's National Canoe Team.

She has been involved in the community on both a professional and voluntary basis. From 1986 to 1988 she

**Site Map**

was the Coordinator of Housing Help, a storefront program which provides information and assistance on housing-related issues. She continued her association with Housing Help both as a board member and a volunteer. Elisabeth is also a founding board member of the Ottawa Vietnamese Non-Profit Residence Corporation.

Elisabeth worked from 1989 to 1992 as Coordinator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at the Sandy Hill Community Health Centre. Her work there was wide-ranging, from helping to set up bursary funds for young artists, to organizing coalitions, to working on issues facing new Canadians such as housing, language, and health. After leaving this position, Elisabeth continued her involvement in community health and social action, both as a volunteer and as a self-employed consultant.

In the 1993 federal election, Elisabeth acted as Affirmative Action Coordinator for Canada's New Democrats. Through this position, she worked to implement the party's affirmative action policy by recruiting, training, and providing support to affirmative action candidates.

Elisabeth has served as vice-chair for the founding board of the Women's Action Centre Against Violence and chaired the Safety Audit Committee. She has also worked with committees studying the housing needs of women and youth in Ottawa.

She has served as Vice-President of the Dalhousie Community Association, as Director of Ottawa-Carleton Housing, Director of Centretown Citizens Ottawa Corporation, and as Chair of the Young Performers Bursary Fund. As well, she helped organize Friends of the Flats, a local citizen's group that lobbies for community input in the redevelopment of Lebreton Flats.

**BUSINESS ADDRESS:**

Elisabeth Arnold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613) 244-5361  
Fax: (613) 244-5371  
email: ArnoldE@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  
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  
Contact Us  
Back to Home**

**Councillor Shawn Little  
Kitchissippi  
[WARD OT7]**

Councillor Little was born at the Ottawa Civic Hospital and grew up in Westboro, where he attended Broadview Public School and Nepean High School. He obtained a diploma in the Health sciences field from Humber College of Applied Arts & Technology in 1985; a certificate in the teaching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n 1991; has completed professional courses in the field of marketing and international trade; and obtained a bachelor's degree in History and Political Science from Carleton University in 1994.

Over the years Mr. Little has been involved in a variety of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such as the Community Youth Forum; the Humane Society of Ottawa-Carleton; the Ottawa Board of Education Central Alumni Choir; the Capital City Chorus; NEWSWEST; the Canadian National Institute for the Blind and guide dog program; the Association of Young Political Leaders; the Humber College student newspaper and Students' Association Council; the Charlatan; CKCU-FM; community theatre; neighbourhood watch; and the scouting movement, just to name a few.

In recent years, Mr. Little re-started and was the president of the Westboro Community Association; the Vice-Chair of the NEWSWEST Board of Directors; the Co-Chair of the Communities Before Cars Coalition; a member of the City of Ottawa Taxi Advisory Committee; a Director for

**Site Map**

the Abbeyfield Houses Society for Seniors; a member of the Public Advisory Committee on the Champlain Bridge Environmental Assessment Study; and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for the Island Park, Kirkwood, Churchill and Area Traffic Calming Study.

At present, Councillor Little is President of the Wesboro Kiwanis Club; a member of Wesboro United Church; and the Ottawa area member of the Ontario Film Review Board.

**BUSINESS ADDRESS:**

Shawn Little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63  
Fax number: (613) 244-5373  
E-mail: [LittleS@city.ottawa.on.ca](mailto:LittleS@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Discover Ottawa****Business Outreach****Ottawa Innovation****City Services****Contact Us****Back to Home**

## **Councillor Jim Bickford Mooney's Bay [Ward OT8]**

Councillor Bickford was elected in an April, 1999 by-election in the Mooney's Bay Ward. He spent more than 30 years previously with the Ottawa Police Service, rising to the rank of Deputy-Chief. Following retirement he spent three years with the federal Department of Justice. He is vice-chair of the Policies, Priorities and Budgeting Committee and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and Disabilities Advisory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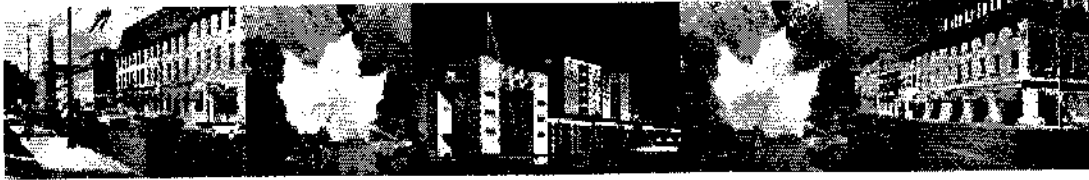
**BUSINESS ADDRESS:**

Jim Bickford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65  
Fax number: (613) 244-5373  
E-mail: BickfordJ@city.ottawa.on.ca

**Site Map**





# Inside *City Hall*

**Inside City Hall**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 **Members of Council**  
**Recreation and Culture**  
**Taxes, Parking, & Permits**  
**Discover Ottawa**  
**Business Outreach**  
**Ottawa Innovation**  
**City Services**  
**Contact Us**  
**Back to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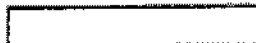
## **Councillor Inez Berg** **Capital** **[Ward OT9]**

Inez Berg grew up in Winnipeg in a family of six. While attending the University of Manitoba for a Bachelor of Arts, she met and married Richard Berg. In 1972, they moved to Ottawa and resided in Sandy Hill. Inez worked as a research assistant in the University of Ottawa's Department of Community Medicine.

In 1975, she and Richard moved to Capital Ward. Their son Dorion was born that year, and daughter Julia in 1977.

Inez became active in community life, helping organize the Glebe Co-operative Playgroup, and early childhood music classes. She also taught at the Playgroup and volunteered with the Glebe Neighbourhood Activities Group (GNAG), which organizes recreational programs at the Glebe Community Centre.

As well as serving on home and school executives, Inez volunteered at Mutchmor Public School, First Avenue Public School and Hopewell Public School. She also enjoyed her time as "Sunny-Owl" with the Brownies and Guides, and as a volunteer in House League hockey at Brewer arena.



**Site Map**

A writer, with the Glebe Report community newspaper since 1980, Inez served on its board, and as a staffer. She became its editor in 1987, stepping down in September 1997 to run for City Council.

As a member of the Glebe Community Association since the early '80s, Inez served as an Area Director for 10 years. Her interest in healthy communities led her to co-organize the City Centre coalition earlier this year.

Inez Berg's commitment to her community was recognized with a Whitton Award in 1992, and the Ottawa Centre Canadian Leadership Award in 1995.

As the new, and very busy Councillor for Capital Ward, she hopes to find time for her family and other interests such as distance cycling, drawing, reading and volleyball.

**BUSINESS ADDRESS:**

Inez Berg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67  
Fax Number: (613) 244-5373  
E-Mail Address: BergI@city.ottawa.on.ca





# Inside *City Hall*

- Inside City Hall**
- Political & Administrative Structure**
- Members of Council**
- Recreation and Culture**
- Taxes, Parking, & Permits**
- Discover Ottawa**
- Business Outreach**
- Ottawa Innovation**
- City Services**
- Contact Us**
- Back to Home**



## **Councillor Allan Higdon** **Alta Vista/Canterbury** **[Ward OT10]**

Allan Higdon was born in Dublin, Ireland and emigrated with his family to Canada in 1957.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Allan travelled extensively in Europe and Asia. Upon his return, he entered Queen's University and graduated with a B.A. in English and History. Allan later attended the University of Toronto, where he graduated with a Bachelor of Education and was awarded the distinction of Associate of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A.R.C.T.).

Allan was subsequently invited to work with the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 (CIMM) on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dealing with the world of work. While living in Toronto, Allan met Willa Rea and they were married in 1979.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CIMM project, Allan and Willa travelled throughout South-East Asia for a year and came to Ottawa in 1980. They began a family, which now includes two children, Leith (14) and Andrew (11).

After a period of teaching at Ottawa high schools, Allan worked on Parliament Hill before becoming a self-employed consultant specializing in social and demographic research and communications. In 1988, Allan accepted a position in the Department of Communications (now Canadian Heritage) where he was employed as a Senior Policy Analyst, until his election as City Councillor.



**Site Map**

Allan has been deeply involved in volunteer community affairs and organizations for many year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financial management.

In addition to municipal involvement, Allan is very active in his church, where he is a long-time choir member. As Warden of St. Luke's church and Director of Redevelopment, Allan was responsible for financing and directing the complete renovation of the church and the creation of Serson Clarke Non-Profit Housing Corporation, of which he is Founding President. In 1991, Allan was elected to the Executive Committee of the Anglican Diocese of Ottawa and was subsequently re-elected for the following three years.

In November of 1994, Allan was elected as a member of Ottawa City Council for OT-10, which combines the old wards of Alta Vista and Canterbury. In 1997, Allan was re-elected by acclamation and appointed to the position of Deputy Mayor by a unanimous vote of his colleagues on City Council.

Allan has earned a reputation as an outspoken and thoughtful elected official who clearly articulates his views on issues of public policy and community development.

**BUSINESS ADDRESS:**

Allan Higdon  
111 Sussex Drive  
Ottawa, Ontario  
K1N 5A1

Telephone number: (613) 244-5369  
Fax number: (613) 244-5372  
E-mail: HigdonA@city.ottawa.on.ca

